

KLPGA members

Korea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Winter 2025



Recharge Your Energy This Winter

본격적인 무대는 이제부터 시작, 김민별

2024 SPONSORS & PARTNERS

KLPGA TOUR 정규투어 타이틀 스폰서



DREAM TOUR · JUMP TOUR · CHAMPIONS TOUR

드림 · 점프 · 챔피언스 투어 타이틀 스폰서



MARKETING PARTNERS 마케팅 파트너



contents

2025 . WINTER



COVER STORY

2025년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겨울 내내 선수들은 희망찬 내일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선수들을 응원해 봅니다. 이번 <KLPGA members> 겨울호에는 '2024 동부건설-한국여자신탁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 올린 김민별을 표지에 담았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바라던 우승이라 기쁨이 더욱 배가 된다는 김민별의 우승 스토리를 지금 만나보세요.

발행일 2025년 1월 21일

발행인 이영미

발행처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221 KLPGA빌딩 3, 4층

TEL 02.587.2929 FAX 02.539.6003

홈페이지 www.klpga.co.kr

기획·디자인 매경골프(02,2000,2967)

04 INTERVIEW

본격적인 무대는 이제부터 시작, 김민별

10 DATA REPORT

데이터로 알아보는 경기 리뷰

12 REVIEW

숫자로 보는 KLPGA대회 리뷰

16 PLAYERS

도전은 계속된다

우승과 놀라운 기록의 행진

22 COLUMN

2025시즌 빛날 신예와 베테랑 스타들

SPECIAL THEME

24 WITH ENERGY

내일의 승리를 위한 에너지

26 INTERVIEW

고난의 경험을 위기 극복의 에너지로 지한솔

28 INTERVIEW

한 방이 있는 역전의 여왕 김민선7

30 INTERVIEW

한결같은 꾸준함으로 쌓아 올린 K-10 최은우

32 YOUR ENERGY

ONE THING THAT GIVES ME STRENGTH

34 MORE ENERGY

위기의 순간 새로운 에너지로 채우기

36 TRAINING

2025시즌 이제부터 시작!

제17대 KLPGA 홍보모델의 전지훈련 플랜

38 CHARITY

세상에 따뜻한 에너지를 전하는 KLPGA 자선활동



46

62

KLPGA를 통해 찾은 내일의 희망

자라비 분찬트

2025시즌 정규투어 무대 데뷔를

앞두고 이루고 싶은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태국 선수

자라비 분찬트.



40 INTERVIEW

투명경영과 차별화된 골프마케팅으로 신뢰를 쌓다

두산건설 이정환 대표

44 MEMORY

THE HISTORICAL TIMELINE

46 COURSES

KLPGA 2025시즌 미리보기

해외 골프장 투어

52 AWARD

2024시즌 KPGA투어 총결산의 자리

2024 KLPGA 대상 시상식

60 F&B

선수들이 즐겨 찾는 보양식 열전

62 CHALLEN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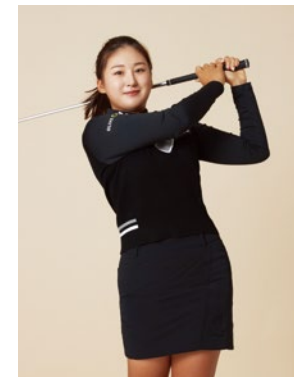
KLPGA를 통해 찾은 내일의 희망

자라비 분찬트

64 ADVICE

김해림의 어드바이스

현명한 은퇴를 위한 준비



16

도전은 계속된다

우승과 놀라운 기록의 행진

집념의 의지를 바탕으로

놀라운 성적과 우승 기록을 낸

선수들을 만나보았다.

66 GUIDE

KLPGA 프로들을 위한 은퇴 후 코칭

골프장 업무

68 SPONSORSHIP

유전자검사로 나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제노플랜

72 WINTER TRAINING

2025시즌을 위해 달린다!

루키 선수들의 전지훈련

76 PROGRAM

캘피TV 핫 프로그램 가이드

78 회원맞춤형교육 공지문

80 RANKING

2025년 2주 차 K-RANKING

81 위메이드 대상 포인트 우수 선수

82 2024년도 KLPGA 제5기 재능기부단

84 KLPGA TOUR NEWS

90 MEMBER'S SERVICE

KLPGA 회원을 위한 혜택

2024 MEMBER'S SERVICE

97 EVENT

퀴즈 이벤트 <빈칸을 채워라>

THE REAL JOURNEY BEGINS NOW

KIM MIN BYEOL

본격적인 무대는 이제부터 시작, 김민별

주목받던 신인왕 김민별에게는 '우승'이라는 두 글자에 대한 부담감이 늘 존재했다. 드디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었던 2024시즌. 김민별은 생애 첫 우승을 거두며 무관의 설움을 씻어내고 골프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글 · 신정희 | 사진 · 임한수

꾸준히 한 발짝 노력 끝 일궈낸 첫 승

국가대표 출신으로 누구보다 촉망받는 스타였던 김민별. 누구보다 뛰어난 기량으로 일찍부터 김민별이 신인상을 탈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2023년 KLPGA투어에 데뷔한 이후 방신실, 황유민 등 경쟁한 동기들을 제치고 신인상을 차지했지만 준우승만 3차례를 기록하고 우승과 인연이 좀처럼 닿지 않았다. '우승 없는 신인왕'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으며 답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2023시즌 우승 기회를 놓쳤지만 그것에 연연하지는 않았어요. 루키 시즌이기도 했고 '우승은 내년에 하면 되지. 너무 미련 갖지 말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자'고 생각했어요. 루키 시즌에 우승과 신인상이 목표였는데, 신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함을 덜어내자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2024시즌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전지훈련 동안 2024시즌에 대한 준비를 잘 대비했다고 여겼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시즌 초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실망하고 자신감이 점점 떨어졌다. 연습도 나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음먹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다.

"경기를 뛰면서 멘탈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한 번 실수를 하면 마음이 흔들려 다음 샷까지 영향이 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다른 것보다 제 스스로가 마음을 잡지 못해 멘탈이 무너지는 게 빨랐던 것 같아요."

Perseverance Leads to a Long-Awaited First Victory

Kim Min Byeol, a former national team standout, has always been a player to watch. Her exceptional skills made her a strong favorite for KLPGA Rookie of the Year from the start. After debuting on the KLPGA Tour in 2023, she claimed the Rookie of the Year title, edging out strong contenders like Bang Sin Sil and Hwang Yoo Min. However, despite three runner-up finishes, a victory eluded her, earning her the frustrating label of "Rookie of the Year without a win."

"I missed my chances to win last year, but I didn't let it get to me," Kim said. "It was my rookie season, and I told myself, 'There's always next year. Let's focus on appreciating what I achieved instead.' My goals were to win a tournament and earn Rookie of the Year, and since I achieved one, I decided not to dwell on the other."

The 2024 season brought

unexpected challenges. Despite a productive offseason, Kim struggled to perform early in the year. The disappointing results shook her confidence. “I had high expectations for myself, but the results didn’t reflect that. I worked hard and tried to stay positive, but it was tough to keep my mindset stable during tournaments. One mistake would throw me off, and it was hard to recover.”

Determined to improve, Kim focused on her putting an area she knew needed work and worked tirelessly to calm her nerves under pressure. Her breakthrough came at the 2024 Dongbu Corporation · KOREIT Championship, where she delivered a flawless final round, carding nine birdies with no bogeys.

The tournament, played under a modified Stableford scoring system, saw Kim adopt an aggressive strategy. Starting the final round four points behind leader Kim Min Sun 7, Kim surged with four consecutive birdies before the turn and added more at holes 9, 10, 14, and 15. A clutch birdie at the pivotal 17th hole sealed her victory, as she finished with a total of 49 points, edging runner-up Bang Sin Sil by two points.

Turning Weaknesses into Strengths

Kim credited her putting for the victory. “On the first hole of the back nine, I sank a tough birdie putt, and that’s when I thought, ‘I could actually win this.’ My putting followed my swing perfectly, and everything I practiced just clicked.”

The decisive birdie putt on the 17th hole, where she was in a close battle

“ 이제 목표로 했던 첫 우승을 이뤘는데요. 올해는 다승왕을 목표로 실력을 더욱 향상시켜 2025시즌 준비를 열심히 해볼 생각이예요. 퍼트 부분에 부족했던 점을 연습하면 더 좋은 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플레이할 때 멘탈적인 면에서 좀 더 강인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

점점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하고, 실수가 많았던 퍼트 연습에도 매진을 했다. 우승이 안 나올수록 조급해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을 잡기 위해 애썼다. 불안해질 때마다 쫓기듯이 플레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가 빛을 보게 된 경기가 바로 KLPGA투어 ‘2024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이었다.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김민별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보였다. 3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렸던 김민선7에 4점 뒤진 공동 5위로 경기를 시작한 김민별은 최종라운드에서 전반 2개 홀을 남기고 4연속 버디를 잡은 뒤 9, 10번 홀 연속 버디와 14, 15번 홀 연속 버디를 더하며 선두 경쟁에 뛰어 들었다. 이후 승부처인 17번 홀에서 다시 버디를 추가해 2위 그룹을 5점 차로 밀어내며 마침내 승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대회 3라운드까지 31점을 획득했던 김민별은 최종라운드에서 버디만 9개를 쓸어 담아 18점을 더하며 최종점수 49점을 기록해 2위인 방신실을 2점 차로 누르고 최종 우승에 오를 수 있었다.

약점을 강점으로, 우승의 비결이 된 퍼트

김민별은 이번 우승의 비결로 ‘퍼트’를 꼽았다. 후반 첫 홀에서 어려운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면서 이번 대회에서는 우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샷 감각도 좋아서 퍼트만 잘 따라준다면 좋겠다 싶었는데 연습했던 대로 잘 들어갔다. 방신실과 접전이었던 17번 홀에서 세 번째 샷한 공을 홀 앞 2.5m에 붙인 후에 친 버디 퍼트는 정말 긴장감이 컸다. 평소 퍼트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해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날 퍼트감이 좋아 좀 부담은 있었지만 자신감 있게 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너무 많이 기다리던 우승이었어요. 그만큼 기쁨도 배가 되었어요. ‘드디어 내가 해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의 마음 고생을 털어낸 귀한 우승이었다. 후반 첫 홀에서 어려운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면서 혹시 첫 우승을 한다면 이런 때가 아닌가 싶었고, 그 예감이 들어 맞았다. 그 전에는 우승을 생각하며 이런저런 우승 소감도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막상 우승 순간이 오니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우승을 하면 평평 울 줄 알았는데 눈물이 나지 않더니, 인터뷰하는 순간 눈물이 났다. 현장에서 동기들과 선배 선수들에게 축하 인사를 많이 받았다. 우승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싶어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with Bang Sin Sil, stood out. “Putting has always been a weakness for me, so I’ve worked on it a lot. That day, I trusted myself and went for it, and it paid off”,Kim said.

After countless near-misses, the win was especially sweet. “I had waited so long for this moment, and it was worth every bit of the struggle. When it finally happened, I couldn’t believe it. I thought I’d cry on the spot, but it didn’t hit me until the post-round interview.”

Kim was showered with congratulations from fellow players and fans, realizing just how many people had been rooting for her. “I felt so grateful. Knowing so many wanted to see me succeed made this win even more special.”

From First Victory to Lofty Goals

With her first win secured, Kim is now setting her sights on new goals for the 2025 season. “After my rookie season, some people said I lacked the killer instinct to win. That was stressful at times, but I also understood where they were coming from. I’m working to strike a balance staying competitive while staying true to myself. I want to show fans that I won’t give up and will fight until the end to achieve my goals.”



오늘의 첫 우승을 발판으로 내일의 다승왕을 꿈꾸며

이제는 신인왕에 이어 첫 우승도 이뤄내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다. 원하던 목표를 이뤘던 2024시즌을 뒤로하고 새로운 목표와 다짐으로 2025시즌을 향해 더욱 힘을 내볼 차례다.

“루키 시즌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난 뒤 우승이 없다 보니 좀 독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어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요. 그래도 팬분들께 너무 승부에 집착이 없어 보이나 싶기도 했어요.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번 겨울에는 2023년과 마찬가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로 전지훈련을 떠난다. 지난 겨울에는 쇼트게임과 퍼트, 100m 이내 샷을 중점적으로 훈련했다. 작년 전지훈련을 잘 마친 덕분에 첫 우승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 훈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올겨울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해볼 작정이다. 경기할 때 실수한 부분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고 일찍 털어내고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숙제다. 다른 분들은 안정적이고 기복이 없어 보인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스스로 느끼기에는 영향을 받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지 않지만, 좋은 책이나 글을 읽으며 마음을 달래고 있다.

“경기를 뛰면서 멘털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한 번 실수를 하면 마음이 흔들려 다음 샷까지 영향이 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멘털 관리는 아직도 숙제이긴 한데 실수했을 때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빠르게 잊고 평소처럼 플레이하는 노력이 계속 필요해요.”

한편 김민별은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필드 위에서만 스타가 아니라 기부에 있어서도 스타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다. KLPGA투어 데뷔전인 'PLK 퍼시픽링크스코리아 챔피언십 with SBS Golf'에서 첫 상금 전액을 기부한 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11월에는 강원일보 사회복지법인 '함께사는 강원 세상'에 세 번째 기부를 했다. 프로에 데뷔하기 전부터 돈 벌면 꼭 기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자신의 꿈을 위한 노력에만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더 좋은 영향력을 위해 노력하는 선수 김민별의 내일이 더욱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

Kim's winter training will once again take her to Palm Springs, California, where she plans to focus on improving her short game, putting, and shots within 100 meters areas she identified as needing improvement during her previous training camp. "Last year's training laid the foundation for my success this season. This year, I'm focusing on correcting mistakes and building consistency, especially mentally. Staying composed after a bad shot is still a work in progress for me." Her ultimate goal? Becoming the KLPGA's top winner in 2025. "Now that I've achieved my first win, I'm aiming for multiple wins next season. Improving my putting and strengthening my mental game will be key. I'm committed to doing whatever it takes to keep improving."

Kim's commitment to excellence extends beyond the course. Since her debut, she has been dedicated to giving back. At the PLK Pacific Links Korea Championship, her KLPGA debut, she donated her entire prize money to charity. In March, she contributed to Severance Children's Hospital, and in November, she supported the Kangwon Welfare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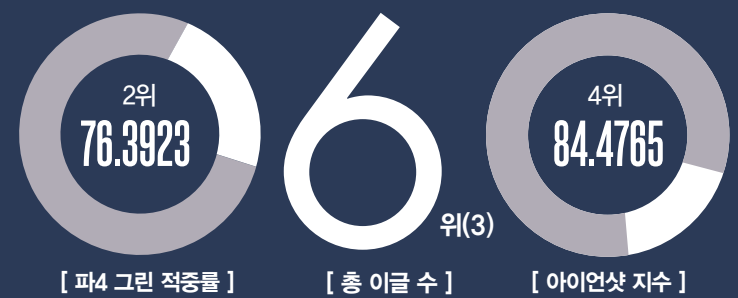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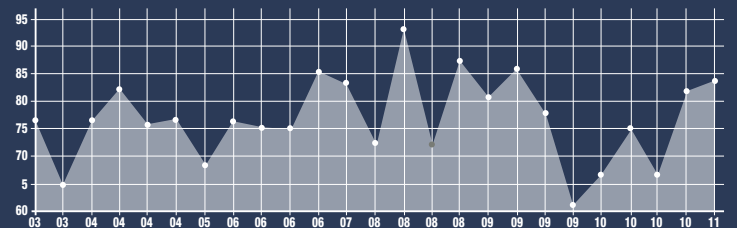
Kim decided long ago that she would use her success to make a difference. "I've always believed that if I earn something, I should give back", she said. Her generosity and dedication both on and off the course make her a true role model and an athlete worth watching.

With her first win in the books and her sights set on bigger goals, Kim Min Byeol is ready to make an even greater impact in the seasons to come. ◆

김민별 선수의 data



[그린 적중률] 4위(76.7738)



대회별 순위

크리스에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	공동 3위
DB그룹 제38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3위
맥콜 · 모나 용평 오픈 with SBS Golf	공동 7위
2024 동부건설 · 한국노지신탁 챔피언십	1위
SK텔레콤 · SK실더스 챔피언십 2024	공동 8위

※ 'SK텔레콤 · SK실더스 챔피언십 2024' 종료 기준



데이터로 한눈에 보는 2024시즌 결산

선수들의 플레이를 좀 더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보는 방법, 바로 데이터를 통해
보는 것이다. KLPGA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수치를 통해 2024시즌 선수들의 경기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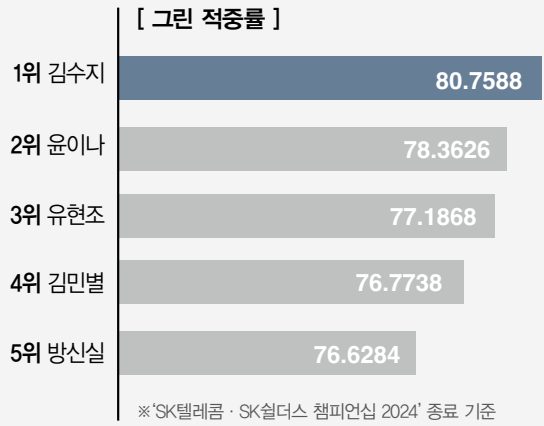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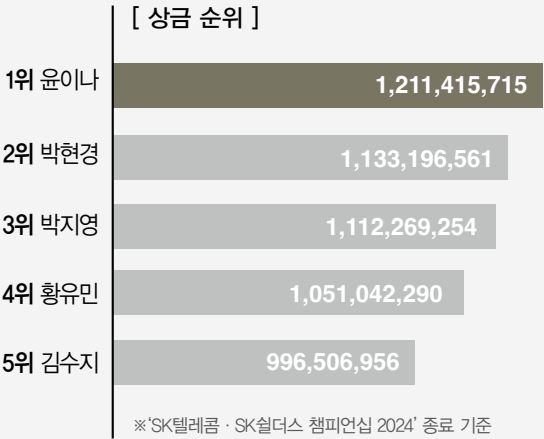
윤이나



이예원

2024시즌 이번은 없었다. 시즌 초반부터 윤이나 돌풍이 거세더니 상금순위 1
위에 올랐다. 2024시즌 KLPGA투어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윤이나, 박
현경, 박지영 세 선수의 상금왕 경쟁이 치열했다. KLPGA투어 최종전인 'SK
텔레콤·SK실더스 챔피언십'은 우승자에게 상금 2억 5,000만 원에 대상 포인
트 100점, 준우승은 9,600만 원에 50점이 주어지기에 대회 결과에 따라 상
금왕의 얼굴이 달라질 수 있었다. 윤이나는 우승한 기록이 단 한 차례로, '제
주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것이 전부다. 그러나 준우승 4회, 3
위 3회 등을 기록하며 톱10에 14차례 진입해 상금 1,211,415,715원으로 1위
를 차지할 수 있었다. 뒤를 이어 시즌 3승을 기록한 박현경과 박지영이 나란
히 상금 순위 2, 3위를 기록했다. 윤이나가 상금왕에 오른 만큼 고른 분야
에서 상위권에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시즌 파5홀에서 가장 좋
은 성적을 보여준 선수도 바로 윤이나다. 윤이나는 평균 드라이브샷 비거리
254.98야드로 2위에 오르며 장타자로 이름을 날렸지만 페어웨이 안착률은
69.1756%로 다소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었다. 그린 적중률에서는 78.3626%
로 아이언샷에서 정확도를 보여주었고, 버디 308개를 잡으며 평균타수 1위에
올랐다.

2024시즌 256.23야드로 드라이브 비거리 1위에 오른 방신실은 준우승만 3
차례를 기록하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개막전인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박현경



(좌측부터)서어진, 김수지

여자오픈' 2위에 이어 '제11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공동 2위,
'2024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에서도 아쉽게 우승
을 놓치며 2위에 머물렀다. 기록을 살펴보면 그린 적중률 5위
(76.62%)에 올라 있고 준우승 3회와 3위 1회를 포함해 4번이
나 톱5 안에 들었다.

장타자에 유리한 파5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선수는 드
라이브 비거리 순위가 높은 윤이나였다. 25개 대회에 출전해
총 308개 홀에서 1442타를 기록해 평균 4.68로 1위에 올랐
다. 흥미로운 점은 티샷을 멀리 칠수록 파5홀이 유리하기는
하지만 2위를 기록한 선수는 드라이브 비거리가 높은 순이
아니라는 점이다. 2위에 오른 이예원은 드라이브 비거리 41위
(239.62)에 올라와 있는 선수다. 이예원은 비거리보다는 정확
한 아이언샷을 내세워 파5홀에서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었다.
총 27개 대회 352개의 파5홀에서 1,672타를 쳐 평균 4.7500
타를 기록했다. 3위는 박현경이 평균 4.7642타를 기록했고,
4위는 드라이브 비거리 4위(253.76야드)에 오른 황유민이었
다. 한편 파3홀에서는 서어진이 2.9105타를 쳐 1위를 기록했
고 뒤를 이어 방신실이 2.9119타로 2위를 차지했다. ◆

[파5 성적] ※'SK텔레콤·SK실더스 챔피언십 2024' 종료 기준

1위 윤이나	4.6818
2위 이예원	4.7500
3위 박현경	4.7642
4위 황유민	4.7862
5위 서어진	4.7895

[파3 성적] ※'SK텔레콤·SK실더스 챔피언십 2024' 종료 기준

1위 서어진	2.9105
2위 방신실	2.9119
3위 안선주	2.9186
4위 최예림	2.9216
5위 박지영	2.9219



숫자로 보는 — KLPGA 대회 리뷰

2024시즌에도 선수들의 놀라운 기록 행진은 계속되었다. 선수들의 도전과 성공의 기록들을 숫자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았다.

4

박민지가 '2024 셸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 우승해 KLPGA투어 사상 최초로 동일 대회 4연패를 달성하며 골프 팬들을 열광하게 했다. 박민지는 지난 6월에 열린 '2024 셸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 우승을 하며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게 되었다. 이전까지故 구옥희, 강수연, 박세리, 김해림이 세운 3회 연속 우승 기록이 최고였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박민지는 상금 2억 1,600만 원을 받으며 통산 상금 60억 원을 돌파하는 놀라운 성과도 함께 이루었다. 2025시즌에도 대기록의 도전은 계속된다. 박민지는 KLPGA투어 최다 우승 기록인 20승에서 1승만을 남겨놓고 있어 2승만 더 추가하면故 구옥희, 신지애가 세운 최다 우승 기록도 뛰어넘을 수 있다.

360

안송이가 KLPGA투어 역대 최다 대회 출전 기록을 경신하며 한국여자골프 역사에 남을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S-OIL 챔피언십 2024'에서 360번째 대회 출전 기록을 세우며 기존 홍란의 359회 출전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이후 시즌 최종전인 'SK텔레콤·SK실더스 챔피언십 2024'에 출전해 361개 대회 출전 기록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새해에도 안송이가 걷는 길이 새로운 역사로 쓰이게 될 것이다. 새해에는 최다 예선 통과 기록 경신도 노리고 있다. 현재 예선 통과 269회를 기록 중인데, 김해림의 270회나 홍란의 287회 기록까지 넘을 수 있을지 골프 팬들의 관심이 모인다.



gamtan®
All day, Everyday

감 탄
브 라®

감탄 공식 온라인몰 <https://gamtanstore.com>

500,000,000

2024년엔 KPGA투어 사상 처음으로 생애 첫 시즌 상금 5억 원을 돌파하는 선수가 7명이나 쏟아졌다. 상금왕에 오른 윤이나(12억 1,141만 원)를 비롯해 노승희(9억 2,577만 원), 상금 9위(8억 1,719만 원)에 오른 배소현, 상금 11위(6억 8,061만 원) 이재영, 상금 12위(6억 4,621만 원) 전예성, 상금 13위(6억 1,276만 원) 최예림, 상금 15위(5억 8,920만 원) 유현조까지다. KPGA투어에서 처음으로 시즌 상금 5억 원을 돌파했던 선수는 2007년 신지애다. 한편 이번 시즌에는 역대 투어 최초로 단일 시즌 상금 10억 원을 돌파한 선수도 4명이나 탄생했다. 윤이나, 박지영, 박현경, 황유민은 각각 시즌 상금 10억 원을 넘기면서 KPGA투어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104

2024시즌 KPGA투어에서 3승을 거둔 이예원이 역대 최대인 '104홀' 연속 노보기 진기록을 세웠다. 지난 5월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2라운드 후반 16번 홀부터 6월 '2024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2라운드 11번 홀까지 104홀 연달아 보기 없는 플레이를 펼친 것이다. 2018년 김자영2가 기록했던 99홀 연속 노보기 홀을 뛰어넘은 KPGA투어 신기록이다. 이예원은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2라운드를 마치고 플레이를 하면서 노보기를 몇 홀까지 할 수 있을까 기록이 궁금했는데 찾아보지 않았다고 말하며, 역대 기록을 경신해 놀랍고 굉장히 뿌듯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2.9105

2024시즌 쇼트 홀인 파3홀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선수는 과연 누구였을까? 서어진은 2024년 31개 대회에 출전해 총 380개의 파3홀에서 경기를 했다. 기준 타수 1,140타보다 34타 적은 1106타를 기록한 서어진은 파3홀 평균 2.9105타로 1위에 오르며 최강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뒤를 이어 방산실은 28개 대회, 352개의 파3홀에서 평균 2.9119타를 쳐서 2위, 3위는 안선주로 25개 대회, 258개의 파3홀을 소화하면서 평균 2.9186타를 기록했다. 4위는 최예림으로 29개 대회 357개의 파3홀에서 평균 2.9216타를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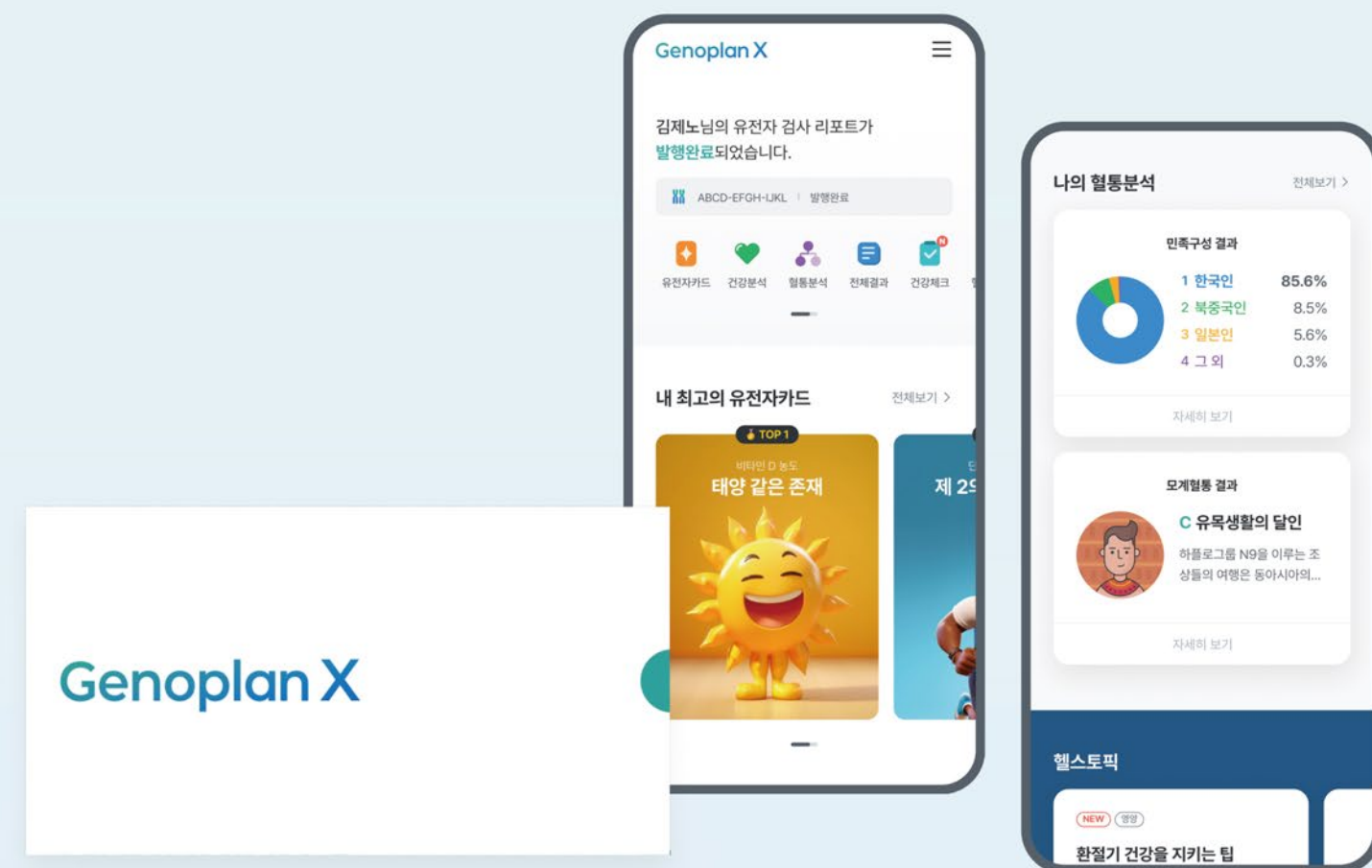
344

2024시즌 KPGA투어는 선수들의 향상된 기량을 바탕으로 많은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가운데 노승희는 선수 중 가장 많은 344개의 버디를 기록했다. 2024시즌 열린 31개 대회에 모두 출전해 총 100라운드 동안 344개의 버디를 기록하며 지난 2023시즌 임진희가 기록한 332개보다 12개 더 많은 버디를 성공시켰다. 노승희가 버디권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강한 체력. 31개 대회에 모두 출전하면서도 지치지 않았고 컷 탈락은 단 한 번밖에 없었다. ♦



유전자로 시작하는 건강관리

제노플랜엑스 유전자 검사



이런 분들에게 유전자검사를 추천합니다.

내 체질에 꼭 필요한 영양제는 무엇일까?

어른이 되어서도 왜 계속 여드름이 생기는걸까?

어떤 운동이 나에게 잘 맞을까?

할아버지가 탈모인데, 혹시 나도 탈모가 생길까?

낮에 유난히 졸린데 나는 저녁형 인간인걸까?

나는 커피를 많이 마셔도 괜찮은 체질일까?



제노플랜엑스
x.genoplan.co.kr

도전은 계속된다 우승과 놀라운 기록의 행진

누구보다 치열한 노력과 도전이 있었기에 승리의 열매는 달콤하다. 필드 위에서 혹독한 노력과 도전 끝에 뛰어난 성적과 기록을 거둔 선수들의 얼굴은 그래서 더욱 밝을 수 있다.
글 · 신정희 | 사진 · 임한수

KLPGA 한 라운드 최다 버디 기록

전예성

‘크리스에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 버디만 12개를 기록하며 한 라운드 최다 버디 기록을 세웠는데요. 그때를 기억하면 어떠세요?

골프를 하면서 처음 한 경험이라 1주일 동안 그 기쁨의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우승했을 때보다 더 많은 축하를 받았어요. 레이쿠우드 컨트리클럽은 지난 2021시즌 ‘에버콜라겐 퀸즈크라운’으로 첫 승을 거두었던 곳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만 오면 이상하게 버디도 잘되고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오리고기를 먹은 다음 날 항상 잘하는 운이 있는데요, 이번에 서연정 선수 부모님이 하시는 오리고기식당에서 두 번 먹었는데 두 번 다 성적이 너무 좋았어요. (웃음) 이제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 꼭 먹어야 할 것 같아요.

12언더파 60타로 KLPGA투어 18홀 최스타 타이 기록도 달성했는데요. 2017년 KLPGA투어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2라운드에서 이정은6가 먼저 12언더파 60타를 기록한 곳도 바로 레이쿠우드 컨트리클럽이었어요. 이번 기록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난 전지훈련에서 샷도 샷이지만 퍼트가 더 중요하다고 느껴 퍼트 연습을 많이 했어요. 퍼트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기존에는 남자 선수들이 쓰는 퍼터를 사용했는데 여성 아마추어들이 쓰는 퍼터로 바꾸었어요. 2, 3라운드에서는 부진해서 아쉬웠지만 최종라운드에서는 치면 다 들어가고 핀에 붙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느낌이 잘 맞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우승에 대한 기대는 없었나요?

캐디 오빠와 경기 중에 “이정민 언니처럼 10개만 줄 이자”라고 농담삼아 이야기했는데 12언더파를 기록했어요. 이정민 선수가 너무 스코어를 줄여 놓은 상태라 저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자고만 생각했고 등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홀이 있다면요?

12번 홀에서 버디를 한 후 다시 14번 홀과 15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기록했어요. 17번과 18번 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17번 홀에서 버디를 한 이후 마지막 18번 홀에서는 약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했는데요. 18번 홀 버디 퍼트가 좀 길어 ‘이것도 좀 들어갔으면’ 하고 바랐는데 놀랍게도 들어갔어요. 제가 쳤지만 깜짝 놀랐어요.

2021년 첫 승을 거둔 뒤 2024시즌에는 준우승만 세 번이나 했는데요. 우승은 없었지만 상금랭킹 1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을 돌아보면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잘했던 해인데도 불구하고 우승이 없어 많이 아쉬워요. 그래도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어야 다음 시즌에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동안은 제가 항상 우승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제 목표예요. 우승을 목표로 하면 우승과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우승하려고 하기보다는 열심히 해서 우승이 따라오게 만들고 싶어요.

2024시즌 준우승을 여러 번 하며 우승 문턱에 갔는데 가장 아쉬웠던 경기가 있나요?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4’가 제일 아쉬웠어요. ‘2024 셸트리온 퀸즈 마스터즈’나 ‘크리스에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은 2위이긴 하지만 우승권에 아주 가까운 건 아니었거든요.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은 내가 진짜 우승할 수도 있겠구나, 내심 기대했던 경기라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아쉬움이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지만 마음이 힘들 때는 멘탈에 관한 책을 읽으며 극복하는 편이에요. 매니지먼트 부장님이 책 선물을 종종 해주시는데, 그중에 <챔피언의 마인드>와 <멘탈리티>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어요. <챔피언의 마인드>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PROFILE | 전예성

생년월일 2001년 3월 4일

입회 연도 2019년 5월

2024 주요성적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 공동 4위

크리스에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 2위

제10회 고촌 1991 레이디스 오픈 7위

2024 셸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공동 2위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4 2위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 챔피언 마인드가 있다고 소개하는데요. 가령 동메달리스트는 우승 퍼트가 남았을 때 우승하고 난 뒤 세리머니와 어떤 인기를 가질 것인지를 상상한다면, 금메달리스트는 당장 눈앞의 퍼트 하나만을 생각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해요. 상황에 주어진 것만 생각하고 그 다음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2025시즌을 위해 준비하시는 것이 있다면요?

베트남으로 전지훈련을 떠나는데요. 드라이버 비거리 늘리기가 평생의 숙제라고 여길 만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요. 비거리를 늘리다 보면 샷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

는 훈련을 하고 싶어요. 체력훈련에도 집중하고 있는데요. 전지훈련 떠나기 전까지 3곳에서 필라테스와 웨이트, 기능성 운동을 나눠 하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한 곳에서만 체력훈련을 했는데, 새해에는 좀 더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몸을 훈련하고 싶어요.

2024시즌 가장 자신 있었던 플레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자신 있는 점은 ‘퍼트’예요. 주니어 시절부터 하루 10시간 연습을 하면 그중 쇼트게임에 8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쇼트게임에 공을 들였어요. 쇼트게임이 유독 재미있었어요. 단순히 쇼트게임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처럼 연습했던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어요. ◆



KLPGA 파마리서치 리주란 드림투어
왕중왕전 2024 우승

리슈잉

KLPGA 파마리서치 리주란 드림투어 왕중왕전 2024에서
우승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승하는 상상을 계속 했는데 정말 이뤄져서 꿈만 같아요.
왕중왕전은 드림투어에서 제일 큰 대회이고 시즌 마지막
대회이다 보니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앞뒤로
순위가 촘촘해서 걱정도 했는데 우승을 하게 되니 너무 기
뻐요.

**이번 경기에서 서교림 선수와 공동 선두를 형성해 2차 연
장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소감이 남다를 것 같
아요.**

만약에 우승 경쟁을 하게 된다면 서교림 선수와 하게 되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했어요. 서교림 선수가 워낙 잘해서요.
스코어를 모른 채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연장을
준비하라고 하셔서 우승을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18번 홀에서 진행된 1차 연장에선 파를 기록해 승부를 내
지 못했어요. 안전하게 한 홀만 마무리하자 생각하며 쳤는
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죠.(웃음) 2차 연장에서 다행히 버
디를 잡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긴 퍼트를 성
공시켜 기뻐어요.

**이번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된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
각하세요?**

경기를 준비하면서 샷감이 좋아진 것을 느꼈어요. 특히 아
이언 샷감이 좋아지면서 파3에서 많은 버디를 할 수 있었
어요. 드라이버 비거리도 늘고 퍼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었어요.

**대회 첫날 6언더파 66타로 순조롭게 출발해 2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로 단독 2위에 오르며 최종 라운드를 맞이했
는데요. 우승을 예감하셨나요?**

우승까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2라운드 끝나고 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전까지 목표는 20위
안에 꼭 들어 2025시즌 정규투어 시드권을 확보하는 일이
었어요. 왕중왕전 순위에 따라 전체 순위가 바뀌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2025시즌 시드권 걱정이 더 컸던 것 같
아요. 경기 초반에는 해볼 만하겠다 생각했지만 서교림 선
수가 이글 퍼트를 하면서 쉽지 않겠구나 싶었어요.

**2024시즌을 우승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시즌을 돌
이켜보면 어떠셨어요?**

2024시즌에 정규투어와 드림투어를 오가며 36개 대회에
출전했어요. 사실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
러나 많은 대회를 하며 좀 더 풍부한 경험을 하고 좋은 선
수들과 플레이하면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소중
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드림투어에서는 워낙 출중한 선수

들이 많다 보니 최대한 낮은 타수를 치는 연습을 많이
했고, 정규투어에서는 빠른 그린 스피드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어요. 적응력이 좋아지고 보완할 점을 분명
히 알게 된 한 해였어요.

**이번 겨울 전지훈련에서는 어떤 점을 보완하고 싶으세
요?**

2025시즌 정규투어에 복귀하는데요. 정규투어는 드림
투어와 달리 핀 위치가 더 어렵고 그린 스피드도 빠르
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정규투어에서 좋은 성
적을 거두기 위해 쇼트게임 연습을 많이 할 계획이에요.
웨이샷에서 찬스가 왔을 때 좀 더 많은 버디 찬스
를 만들어 버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연습
할 생각이예요. 퍼트와 어프로치 연습을 많이 해서 좋
은 성적 보여드리고 싶어요.

**점프투어에서 2승을 거두며 승승장구했지만 루키 시
즌에는 상금 순위 72위에 그쳐 시드를 유지하지 못했
고 2024시즌 시드순위전에서 31위에 그쳐 정규투어와
드림투어를 병행했는데요. 아쉬움은 없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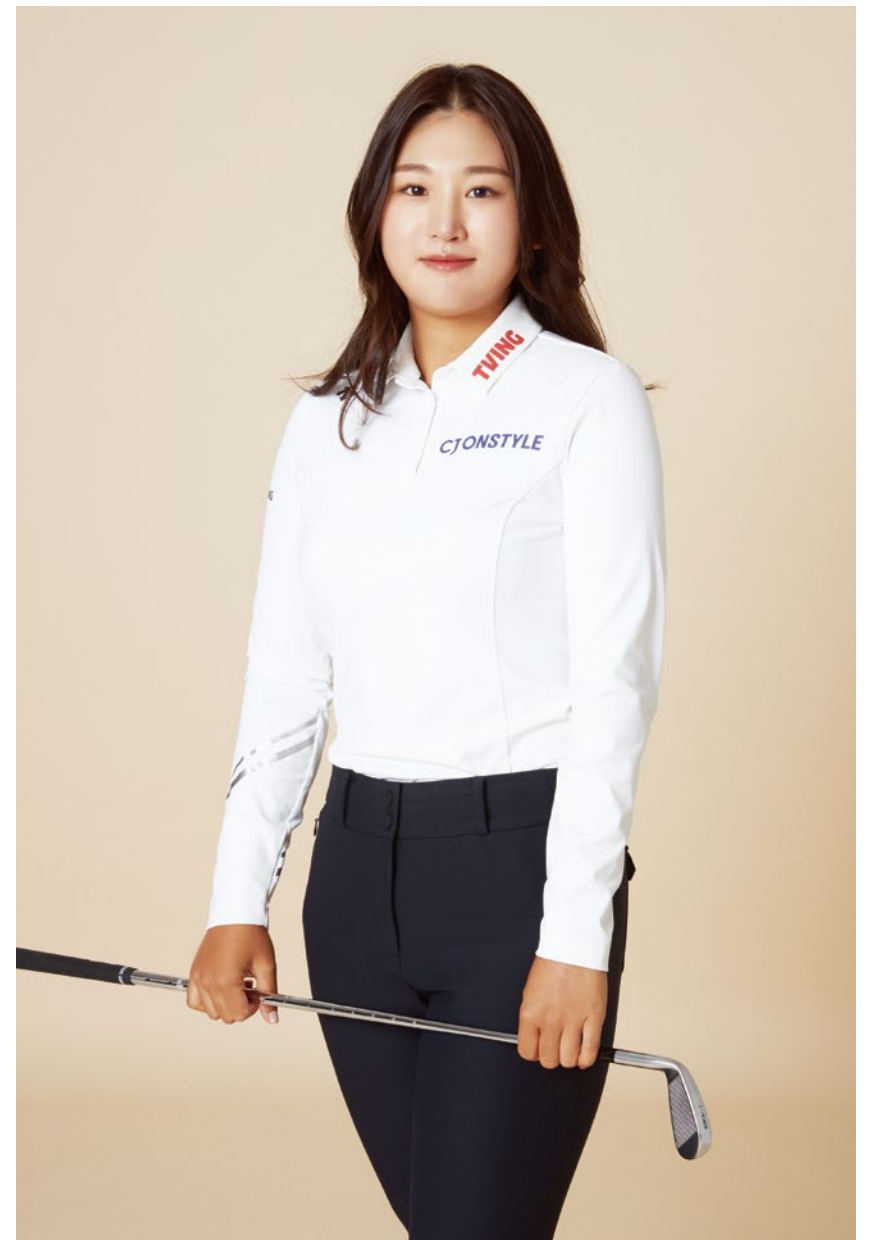
점프투어 때 한참 큰 목표를 가지고 임한 건 아니었는
데 예상보다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정규투어에서 뒀
경험은 상당히 좋았어요. TV에서만 지켜봤던 우수한
선배 선수들과 함께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울
게 많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루키 시즌은 정신없이
빨리 지나갔어요. 좀 더 집중해서 공격적으로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플레이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
은 있어요.

롤모델로 삼는 선수가 있다면요?

평산산과 리디아 고 선수를 동경해요. 평산산 선수는
2012년 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해 중국 선수로는 처
음으로 메이저대회를 제패한 것을 비롯해 LPGA투어
에서 모두 10번의 우승을 차지한 선수인데요. 함께 경
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멘탈적인 부분이나 코스 내 상
황 대처력에서 배울 점이 많았어요. 리디아 고 선수도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하
며 후배들까지 챙겨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플레
이가 안될 때도 넓은 마음으로 대담한 퍼포먼스를 보
여주는 모습은 정말 배우고 싶어요.

동료 선수들에게 많은 점을 배웠다고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항상 경기장에 함께 가면
"너는 오늘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경기하니까 많이 배
우고 와" 혹은 "오늘 선배 선수들과 함께 경기하면서
어떤 걸 느꼈어?"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이



PROFILE | 리슈잉

생년월일 2003년 12월 18일

입회 연도 2022년 5월

2024 주요성적

KLPGA 파마리서치 리주란 드림투어 왕중왕전 2024 우승

KLPGA 2024 무안CC·울포유 드림투어 11차전 공동 2위

KLPGA 2024 서울제약·큐캐피탈파트너스

드림챌린지 15차전 공동 3위

KLPGA 군산CC·세기P&C 드림투어 2024

16차전 공동 7위

런 질문을 받으면 '왜 어머니는 늘 똑같은 질문을
하나' 싶었는데요. 그런 질문을 계속 받다 보니 점
점 플레이를 돌이켜보게 되고 어떤 부분을 배워야
할지 지켜보게 되었어요. 제 경기도 중요하지만 주
변 선수들의 좋은 플레이를 배우며 많은 것을 느끼
고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던 것 같아요. 선배 선수
들과의 경기는 정말 귀한 경험이니까요.

**중국 국적자로는 처음으로 KLPGA투어에 입성했
고, 왕중왕전에서 우승한 것도 최초인데요. 다른 외
국인 선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외국인 선수들이 점점 KLPGA투어에 많아지고 있
는데요. 좋은 본보기가 되어 더 많은 외국인 선수
들이 KLPGA투어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요. ♦



KLPGA 2025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본선 수석

이율린

이번 KLPGA 2025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본선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셨는데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2025시즌을 다시 정규투어에서 뛸 수 있어 기쁘고 한시를 놓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티샷 입스를 극복하고 좋은 성적을 얻게 되어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제 스스로에게 좋은 게기가 되었어요.

이번 KLPGA투어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본선에서 나온 23 언더파 265타를 기록했는데요. 2위와 8타 차로 따돌린 압도적인 성적이었어요. 수석을 차지한 비결이 있다면요?

이번에는 시드전을 치르는 동안 집중력이 흐트러진 적이 없었어요. 또 이번 경기에서 달라진 점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공격적인 플레이가 잘 통해서 원하는 대로 경기가 흘러갔어요. 퍼트도 잘돼서 자신감이 올라가고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죽음의 시드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수들 사이에서 많은 부담감을 가지는 경기인데요. 긴장되지는 않으셨어요?

플레이하는 기간 내내 저희 조에서 함께 치는 선수들이 다 같이 버디도 많이 하고 잘하는 분위기였어요.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경기력을 더 좋게 만들었어요. 버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러면서 매 홀 버디를 노리는 전략으로 임했는데 잘 맞았어요. 그리고 아이언샷이 정말 잘돼서 샷을 핀 가까이 붙이면서 버디 찬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다행히 퍼트도 잘돼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2024시즌 5월부터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윙에 어려움을 겪는 티샷 입스에 시달리셨는데요. 어떻게 극복 하셨어요?

6월부터 함께한 김해동 코치님이 은인이에요. 처음에는 드라이버가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교정했는데요. 드라이버가 잡히면서 그 방법을 아이언에도 똑같이 적용시켰더니 아이언 문제도 해결됐어요. 코치님은 멘탈적인 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심리적으로 스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아예 초심으로 돌아가 1부터 쌓아보자고 하셨어요. 문제가 있는 부분만 교정한 것이 아니라 아예 스윙 전체를 바꾼 것이 입스를 고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입스를 겪으며 멘탈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도 잘 못 치니 다시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코치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서, 한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감을 먼저 올리고 멘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경기를 하면서 '쫄지 말고 한 번 해보자'며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셨다고요.

경기를 하다 보면 컷 탈락이나 순위 등에 신경 쓰면서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막아내고, 이걸 피하고 등의 전략이었어요. 하반기 들면서 내가 준비한 것을 모두 보여주려면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드전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야 하는 경기이기도 하고요. 이전까지는 위축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긴장하다 실수하거나 안정적으로 방어하는 경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고 했어요. 잘못 쳐도 자책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 다음 샷에는 잘해보자' 마음을 편하게 먹었어요.

힘겨운 시간 동안 고마웠던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코치님은 원래 표현을 많이 하는 분이 아닌데 이번 시드전에서 수석을 차지한 후 너무 기뻐하셔서 뿌듯했어요. 저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정성을 쏟아 주셨는데 제가 뭔가 보답을 한 것 같아 기뻐요. 그리고 입스로 가장 고생할 때 친구인 황유민 선수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매주 연락해서 "이번 주는 좀 어때? 좀 좋아졌어?"라고 매번 챙겨줬어요. 이번 시드전 때는 매일 연락해 "하루만 더 잘해보자"라고 이야기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입스가 와서 고생을 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입스가 와서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입스일 수 있겠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되지, 이런 생각을 깊이 하면 우울해지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좀 멀리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만약 주변에 입스를 겪는 친구를 보면 "원래 잘했으니 이번 고비만 넘기면 잘할 거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 입스를 극복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해'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요. 좋아질 수 있다 믿고 긍정적으로 자신을 믿어주었으면 좋겠어요.

2024시즌 '덕신EPC·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에서 입회 후 처음으로 준우승을 차지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셨는데요.

그 경기부터 공격적인 플레이를 시도했는데 잘 통한 것 같아요. 경기가 열린 88컨트리클럽은 고등학교 때 골프장학생으로 있던 곳이라 익숙하기도 했어요. 시드전 준비를 병행하다 보니 '꼭 잘해야 돼!'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마음이었어요.

이 대회를 통해 상급 순위는 100위에서 64위로 무려 36계단 수직 상승했습니다.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그 정도까지 크게 성적이 오를 줄은 몰랐어요. 경기하면서는 워낙 스코어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막연히 잘 쳐서 시드전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선 면제되면 좋겠다는 희망적인 마음으로 경기를 하려고 했어요. 경기 초반에는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우승에 욕심 내지 않고 경기한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준우승한 뒤 주변에서 정말 많은 축하를 받

아서 응원해줬던 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2025시즌 정규투어를 앞두고 각오가 있다면요? 이제 진짜 '이율린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물론 우승인데요. 단순히 우승만이 아니라 꾸준히 잘 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기록 없이 톱텐 안에 들어 좋은 기량을 보여드리면 좋겠어요. 시즌이 끝나고 나서는 개인적인 시간을 좀 보내셨어요?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과 만나거나 콘서트, 뮤지

컬 보는 것을 좋아해요. 겨울 전지훈련 가기 전까지 시간이 나서 체력 보강에도 힘쓰고 있어요. 코어 힘을 기르는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고 있어요. 골프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골프가 잘되었을 때나 이겼을 때 드는 쾌감이 있는 데요. 버디 퍼트를 성공했을 때의 느낌 같은 거요. 사람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겼을 때의 그 느낌을 좋아하는 거겠구나 싶었어요.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플레이가 잘되었을 때 보상받는 느낌이 매력적이에요. ♦



PROFILE | 이율린

생년월일 2002년 12월 29일

입회 연도 2022년 8월

주요성적

KLPGA 2025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본선 수석

덕신EPC·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공동 2위

KLPGA 2024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본선 2위

2025시즌 빛날 신예와 베테랑 스타들

2024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선 유례없는 다승왕 경쟁 등 볼거리가 풍성했다. 2025시즌에도 장타력에 두드란 배짱을 지닌 신예들과 부활을 꿈꾸는 베테랑 스타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투어를 한층 흥미진진하게 이끌 것으로 보인다.



노승희

다승왕 5명에 윤이나 12년 만에 1승 상금왕

2023년 3관왕(대상, 상금, 평균타수)을 휩쓴 이예원은 2024시즌 11번째 대회인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에서 시즌 3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려 가장 먼저 3승 고지에 올라 다승왕을 예약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상승세가 주춤해 우승을 추가하지 못했고 그러는 사이 거센 추적이 시작됐다.

박현경은 초반 스타트가 늦었으나 5월 두산 매치플레이에서 첫 승을 신고한 뒤 6월 BC카드 한경레이디스컵과 맥콜 모나용펍 오픈에서 연속 우승해 3승을 달성했고, 박지영은 8월 한화클래식에서, 배소현은 9월 KG레이디스 오픈에서 각 3승 고지를 밟아 다승왕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때만 해도 4승이나 5승에서 다승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모두 3승 벽을 넘지 못했고, 오히려 9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뒤늦게 시즌 첫 승을 거둔 마다솜이 시즌 막판에 열린 S-OIL 챔피언십과 최종전인 SK텔레콤·SK실더스 챔피언십 정상에 올라 시즌 5번째 3승을 달성하며 5명의 공동 다승왕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다승왕 경쟁만큼 윤이나의 3관왕 달성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윤이나는 8월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유일하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려 우승 숫자에선 공동 다승왕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준우승 4회를 포함해 14차례 톱 10을 기록, 12억 1,141만 5,715원의 상금을 획득해 상금왕을 차지했다. KLPGA투어에서 1승 상금왕이 탄생한 것은 2012년 김하늘 이후 처음이다. 당시 대회는 19개였고, 30개 이상으로 늘어난 이후 1승 상금왕은 윤이나가 처음이다. 상금왕을 손에 쥔 윤이나는 대상(553점)과 평균타수 1위(70.0526타)로 3관왕을 차지해 올해 KLPGA를 빛낸 '최고의 퀸'이 됐다.

윤이나 떠난 자리 흥행 이을 예비 스타들

3관왕을 차지한 윤이나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미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다. 하지만 KLPGA투어엔 윤이나의 뒤를 이을 예비스타가 넘친다. 윤이나에 버금가는 장타력에 두드란 배짱을 지닌 신예들의 활약에 기대가 크다. 2024년 또 다른 수확은 노승희의 도약, 신인 유현조와 이동은의 가능성 확인이다. 2020년 KLPGA투어에 입성한 노승희는 119번째 대회까지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2024년에도 5월까지 E1 채리티 오픈 등에서 우승 경쟁에 나섰으나 기회를 잡지 못했다.



이동은

유현조



배소현

임희정

우승은 없지만 여러 차례 우승 경쟁을 펼치며 내공을 쌓은 노승희는 6월 열린 메이저 대회 DB그룹 제38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에서 마침내 첫 우승의 꿈을 이뤘다. 나흘 내내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고 와이어투와이어로 우승을 차지하며 '노승희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다. 한국여자오픈에서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은 2006년 신지애 이후 18년 만이다. 한국여자오픈은 2010년까지는 3라운드로 치러져 4라운드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은 노승희가 처음이다.

노승희는 9월에 OK저축은행 아웃오픈에서 역전 우승까지 차지해 2024년 2승으로 공동 다승왕 못지않은 특급 활약을 펼쳤다. 드라이브샷 평균거리 71위(234,26야드)로 장타력에선 상위권 선수들과 차이를 보이지만, 80.65%(2위)의 높은 그린 적중률은 노승희의 가장 큰 무기다.

2024년 루키 시즌을 보내고 새해 2년 차 시즌을 앞둔 신예 유현조와 이동은의 활약도 기대된다. 유현조는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인전 동메달을 목에 건 뒤 프로로 전향했다. 2024년 데뷔 때부터 가장 유력한 신인왕 후보로 평가받았고, 9월 열린 메이저 대회 KB금융 스타 챔피언십에서 진가를 증명했다.

KLPGA투어에서 신인 선수가 메이저 퀸에 이름을 올린 것은 2013년 한국여자오픈을 제패한 전인지 이후 11년 만이다. 유현조의 장점은 장타자이면서 쇼트게임 감각이 뛰어나고 긍정적인 멘탈의 소유자라는 점이다.

유현조를 지도하는 지유진 삼천리 스포츠단 감독은 2024년 초 데뷔에 앞서 "유현조 선수는 장타자이면서 쇼트게임 감각도 좋고 특히 긍정적인 멘탈은 그의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이라면서 "멀리 치면서 퍼트와 어프로치 같은 쇼트게임을 모두 잘하기 쉽지 않은데, 유현조 선수는 두 가지 모두 수준급 이상이다. 2024시즌 기대가 크다"라고 돌풍을 예고했다. 이번 겨울에도 구슬땀을 흘릴 예정인 유현조의 2년 차 시즌이 기대되는 이유다.

유현조에 신인왕을 내준 이동은은 윤이나의 빈자리를 메울 또 다른 예비 후보다. 2024시즌 드라이브샷 평균거리 254.14야드로 방싯, 윤이나에 이어 장타 부문 3위에 오른 이동은은 장타자 특유의 몰아치기 능력을 여러 번 보여줬다. 지난 7월 열린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1라운드에선 63타를 때려내며 우승 경쟁에 나섰다. 하지만, 우승을 놓고 경쟁하면서 신인의 경험 부족을 드러내며 아쉽게 우승으로 연결하지 못

한 것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2년 차 시즌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가장 기대가 크다.

베테랑의 품격과 부활을 꿈꾸는 스타들

31세의 배소현은 2024년 골프 인생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2017년 만 24세의 나이로 늦게 정규 투어에 입성한 그는 8년 차인 2024년 5월 E1 채리티 오픈을 시작으로 8월 더해븐 마스터즈, 9월 KG레이디스 오픈을 차례로 제패했다. 배소현의 장점은 꾸준함이다. 3승 뒤에도 느슨해지지 않고 자신을 향해 채찍질하며 2024년보다 더 뜨거운 2025년을 기대하고 있다.

배소현은 "당장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해도 그건 실패가 아닌 것 같다. 당시엔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패가 쌓여 성공으로 돌아오더라"라고 3승의 비결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고의 선수는 스스로 관리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는 걸 배웠다"라며 "저에게 골프는 직업이다. 골프를 좋아하지만 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크다"라고 2025년 더 높은 도약을 준비했다.

2025년엔 KLPGA투어 통산 5승 임희정의 부활에도 기대를 걸 만하다. 2019년 데뷔해 3승을 차지하며 일약 스타덤에 오른 임희정은 2년 차 시즌을 우승 없이 보냈지만, 2021년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그리고 2022년엔 한국여자오픈을 제패하면서 KLPGA 투어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 잡았다.

안타깝게도 2022년 4월 교통사고 후유증이 그를 괴롭혔다. 2023년엔 한국여자오픈 경기 도중 기권한 뒤 한 달 반 가까이 통째로 실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았다. 2024년에도 경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면서 상금랭킹 49위에 만족했다. 2년 동안 우승 없이 시즌을 보낸 임희정은 2024년 스톡브리그 기간에 일찍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2025시즌 부활을 준비했다. ◆



글쓰기 | 주영로
(이데일리 스포츠팀장 겸 전문기자)

with ENERGY

여름 동안 울창했던 나무들은 어느새 앙상하게 가지만 남고 추운 겨울 바람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차가운 겨울 바람이 지나가면 따스한 봄 햇살이 비출 날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겨울 내내 땅 밑에 있는 모든 것들도 조용히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봄 더 찬란하게 꽃피우기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시간인 것이다.

2024시즌 누구보다 치열하게 필드 위에서 우승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KLPGA 선수들. 이제 잠시 정비의 시간을 가진 뒤 새로운 시즌 또 다른 경기들에서 열정의 에너지를 쏟아낼 것이다. 추위로 단단하게 굳은 필드가 봄의 따뜻한 열기로 가득할 그 시간을 기다리며, 지금은 잠시 더 큰 도약을 위한 멈춤의 순간이다. ◆

Energy for Tomorrow's Victory

The once lush, green trees of summer now stand bare, their branches exposed to the biting chill of winter winds. Yet, as the cold persists, we know that the warm rays of spring will inevitably return. Beneath the frozen earth, all seems quiet, but this is the season when nature gathers its strength, preparing to bloom even more brilliantly when the time comes.

KLPGA players, who gave everything on the course last season in pursuit of victory, now embrace a moment of rest and renewal. After a brief period of preparation, they will channel their passion and energy into new challenges in the upcoming season. As we await the thaw of winter and the fields warming with spring's vitality, this pause serves as a crucial step and a moment to store energy for an even greater leap forward. ◆

내일의 승리를 위한 — 에너지

2024시즌이 이제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시점이다.

2025시즌 더 큰 에너지를 내기 위해, 겨울 동안 선수들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갖고 있다.



2024시즌은 지한솔에게 '다사다난'했던 해라고 말할 수 있다. 힘든 시간을 노력의 힘으로 극복하며 자신만의 에너지로 이겨낸 지한솔은 정규투어 데뷔 11년이 지났지만 또 한 번 성장 중이다.



PROFILE | 지한솔

생년월일 1996년 5월 20일

입회 연도 2014년 11월

2024 주요성적

덕신EPC·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우승

2024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 공동 7위

대보 하우스디 오픈 공동 2위

OK저축은행 오픈 공동 2위

고난의 경험을 위기 극복의 에너지로 — 지한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루하루 완주해 얻은 우승

2024시즌 초반은 지한솔에게 악몽과도 같은 힘든 시간이었다. 9월에 열린 'OK저축은행 오픈 오픈' 이전 대회까지 21개 대회에서 10번이나 컷 탈락을 하는 부진을 겪었다. 4월 초에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다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을 받으며 선수 생활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몸의 기운이 빠지며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드라이버 거리가 평소보다 50m나 줄어 180m밖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체력이 저하되면서 스윙과 경기 감각도 무너졌다. 경기를 중단하고 쉬까, 생각도 해봤지만 지한솔은 멈추지 않았다.

"갑상선으로 고생하며 처음에는 드라이버를 들 힘도 없어서 스펙을 바꿔 채도 교체했어요. 시즌을 계속 유지한 이유는, 경기를 너무 쉬어 버리면 경기감이 떨어져 나중에 복귀할 때 너무 힘들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엄마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남은 경기를 하라고 권유하셨어요. 힘들어 쉬더라도 경기장에서 쉬자고 생각하며 버텼어요."

하루하루를 버티며 힘들게 이겨낸 끝에 드디어 결실이 찾아왔다. KLPGA투어 '덕신EPC·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2라운드에서 두 차례 연속 버디 행진을 하며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잡아 7언더파 65타를 적어낸 지한솔은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이후 최종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2개를 잡아 2언더파 70타를 치며 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2위 그룹을 2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마지막 퍼트의 순간에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났다. 그린에 올라가 퍼트를 하려고 하는데 비가 오는 와중 갑자기 흰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온 것이다.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가 찾아왔다는 예감이 들었다고, 우승의 순간 아버지가 흰 나비로 날아와 함께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울컥했다. 마지막 퍼트를 하며 감정이 북받쳐 일부러 웃으며 침착해지려고 애썼다고도 덧붙였다.

자존감을 살려준 5km 러닝

통산 4승. 9월에는 2주 연속 준우승을 차지했던 아쉬움까지 털어낸 값진 우승이었다. 2024시즌 "웃으면서 끝내고 싶다"라고 했지만 우승 소감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의 힘들었던 과정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 감정이 북받쳐 울랐다고 했다.

사실 지한솔은 '흥이 많은' 캐릭터로 유명하고 필드에서 늘 밝게 웃는 모습을 보이지만 굉장히 내성적인 성향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했다. 이번엔 우승을 하기까지 수없이 컷탈락을 겪으며 경기에 나가지 못하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다. 이런저런 생각도 많아지는 시기, 사람들이 박수 칠 때 떠나고 싶지, 능력이 안돼 그만두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좌절에서 헤쳐나갈 방법을 계속 찾아봤어요. 결국 솔루션은 제 힘으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우울한 감정이 들면 그 감정을 검색해 봐요. 우울인지 공허인지 구분도 해보고 우울하다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찾아봐요. <내면소통>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내면소통>이라는 책은 연세대 언론홍보학부 김주환 교수가 쓴 책으로, 뇌과학과

명상으로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며 마음근력을 키워주는 것이 핵심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어떤 뇌의 부위가 작동하는구나,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구나 배우게 되었다. 힘든 순간 가장 에너지가 되었던 것은 다른 아님 예능 프로그램 <무식소녀단>이었다. 연예인들이 짧은 시간 안에 체력훈련을 통해 철인3종경기에 도전한다는 내용인데 우연히 보게 되었지만 많은 자극이 되었다. 프로그램 초반 체력훈련 테스트로 5km 달리기를 하는데 어떻게든 완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바로 그 다음날부터 5km 달리기를 시작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몸이 안 좋은 상태였지만 개의치 않았다. "해보자, 이겨내자!"라고 생각하며 걸어서라도 5km를 완주해냈다. 컷 탈락으로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완주의 경험은 크게 위안이 되었다. 무더운 여름 5km 달리기를 완주한 뒤 땀범벅이 된 상태에서 샤워를 하고 나면 "이게 바로 행복이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 작은 성취감이 활력소가 되어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었다.

"처음 골프를 시작할 때 10년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벌써 10년이 되었어요. 10년 동안 잘 버텨준 제 자신이 너무 뿌듯해요. 후배들에게 참고 버텨라, 버티면 결과는 온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저도 꺾일 법한 상황이 많았지만 그때 포기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고 다음 시즌도 뛰지 못했겠죠.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힘이 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후회 없이 경기를 하고 싶어요." ◆



한 방이 있는 역전의 여왕 김민선7

여자골프 왕중왕전이라 불리는 '위믹스 챔피언십 2024', 위믹스 포인트 랭킹 최하위에서 연장전 끝에 정상에 우뚝 선 김민선7. 이번 우승은 행운이 아니라 그동안 노력의 결실이다.



PROFILE | 김민선7

생년월일 2003년 10월 9일

입회 연도 2022년 5월

2024 주요성적

위믹스 챔피언십 2024 우승

더헤븐 마스터즈 4위

OK저축은행 오픈 오픈 공동 5위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 공동 2위

시즌 마지막을 장식한 신인의 돌풍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 가상화 페로 상금을 지급하여 이목을 끈 '위믹스 챔피언십 2024'에서 공식 우승 기록이 한 번도 없었던 김민선7이 우승컵을 들어올린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우승은 1라운드에서 윤이나, 2라운드에서는 김수지까지 꺾으며 화제를 모았다. '위믹스 챔피언십 2024'는 KLPGA투어 공식 대회는 아니지만 왕중왕전 형식으로 펼쳐져 KLPGA 공식 후원사인 위메이드가 집계하는 위믹스 포인트 랭킹 1위부터 20위까지 출전한다. 대회 출전권을 우선 획득한 20명을 제외하고 위믹스 포인트 랭킹 상위 선수 4명까지 와일드카드로 출전해 경기가 진행된다. 김민선7은 첫날 매치 플레이에서 위믹스 포인트 랭킹 1위인 윤이나의 지목을 받아 7번 홀에서 첫 패배를 했지만 9번 홀에 이어 10번 홀에서도 승기를 잡았고 최종 3&2로 꺾으며 화제를 낳았다. 둘째 날에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위믹스 포인트 랭킹 4위인 김수지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이 펼쳐졌다.

"왕중왕전이라는 '위믹스 챔피언십 2024'에서 우승하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고 기뻐요, 많은 분들이 기뻐해 주셨지만 프로님이 기뻐하신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희 대방건설팀에서 2024년에는 아직 여자 선수 우승은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해 너무 기뻐하셔요."

아직 투어 2년 차.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윤이나에게 뽑혔을 때 부담감이 없지는 않았다. 더욱이 윤이나는 랭킹 1위기 때문에 많은 갤러리들이 응원을 하기 위해 모인 상황이었다. 상대 선수를 위해 수없이 많은 관중들이 모인 경기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싶었고, 윤이나가 2025시즌에는 미국에 가기 때문에 이런 매치 플레이를 언제 해볼까 싶기도 했다.

"윤이나 선수는 2024시즌 가장 잘한 선수잖아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렇게 함께 플레이를 할 수 있겠어요. 이기든 지든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승패에 대한 생각보다는 편한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즐겁고 편하게 경기를 했던 게 도움이 됐어요."

전반에는 계속 퍼트에서 실수해 아쉬움이 컸다. 1번 홀은 쉬운 버디 찬스라고 생각했는데 티샷부터 미스샷이 발생했다. 첫 퍼트도 내리막을 의식해서 짧게 쳤는데 잘 맞지 않았다. 계속된 퍼트 실수가 너무 아쉬웠다. 두 번째 퍼트 할 때부터는 아쉬움을 털어내기 위해 과감하게 쳤고 그게 잘 맞았다. 그때부터 퍼트에 대한 감이 오면서 남은 홀들에서 퍼트를 할 때 이렇게만 과감하게 공략하면 되겠구나 싶었다. 남은 홀들에서 과감히 한 퍼트 덕분에 결국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었다.

과감한 플레이와 도전으로 우승을 공략

김민선7은 사실 이번 '위믹스 챔피언십 2024'를 하반기 내내 준비해왔다. 이번 경기를 준비하면서 스윙 코칭도 받고 열심히 연습하던 중 허리 부상이 찾아왔다. 허리 때문에 샷 연습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아이언샷 대신 어프로치와 퍼트 연습에 주력했다. 이번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비결도 쇼트 게임이 잘된 덕분이라고 본다. '위믹스 챔피언십 2024' 전까지

KIM MIN SEON 7



는 그런 주변에서의 세이브율이 좋지 않았는데 그동안의 연습 덕분에 이번 경기에서는 버디 찬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다.

"18번 홀에서 김수지 선수와 연장전에 돌입했을 때는 긴장감이 크긴 했어요. 아직 투어 경험이 많지 않아 연장전 경험은 2023년이 유일했어요. 너무 떨린다고 멘탈 코칭 선생님께 전화했더니 경기를 하면서 무조건 많이 웃으라고 하셨어요. 웃다 보면 긴장이 풀린다면서요. 경기 모습을 보면 제가 계속 웃고 있는데 긴장감을 풀려고 그런 거예요."

연장 승부까지 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고 여겼다. 캐디 오빠에게 시합 끝나고 뭘 먹으러 갈까 물어보면서 일부러 다른 생각을 하며 긴장감을 풀려고 했다. 연장전 세 번째 샷에서 김민선7은 홀에 약 1m로 볼을 붙이며 버디로 연결한 반면, 김수지는 파로 그치며 김민선7의 우승이 확정되었다. 이번 시즌 목표가 무조건 1승을 거두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그 목표를 이루고 2023년보다 2024년 경기력도 더 좋아져 뿌듯하다.

"제가 그동안 대회 때 많이 긴장했던 편이라 고3때부터 멘탈 코칭을 받았어요. 예상치 못한 샷을 치면 그 상황에서 머물러 다음 홀에도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오래 멘탈 코칭을 받으며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은퇴하고 나면 선수들 멘탈 교육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멘탈 코칭을 많이 받아보며 경험을 쌓고 있어요."

이번 시즌 큰 에너지를 받았다고 여기는 부분은 새로운 도전을 해본 것이다. 지난 전지훈련 동안 참가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아드 골프클럽에서 열린 '레이디스유러피언투어 아람코 사우디 레이디스 인터내셔널'이다. 전지훈련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에 참가해도 괜찮을지 몇 달간 고민했을 정도로 심사숙고해 참가했다. 그곳에서 렉스 톰슨 같은 세계적인 선수와 함께 경기하며 많은 부분을 배우고 자양분이 되었다. 어떻게 하면 골프를 더 잘할 수 있을지 그 방향성을 세울 수 있는 기회였고, 상반기에는 그 에너지로 경기들을 했다. 이번 전지훈련에 가서도 기회가 된다면 '아람코 사우디 레이디스 인터내셔널'에 참가하고 싶고 더 많이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

어느 한 분야에서 10년을 꾸준히 하며 성적을 냈다는 것은 인정받을 만한 일이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큰 것이다. 최은우는 KPGA투어에 데뷔해 10년간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은 결과, 특별한 순간을 맞이했다.



PROFILE | 최은우

생년월일 1995년 5월 19일

입회 연도 2014년 5월

2024 주요성적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4 우승

상상인·한경 와우넷 오픈 2024 공동 7위

한화 클래식 2024 공동 9위

포기하지 않고 뚝뚝뚝 나가는 '마이 웨이'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는 그만큼 10년이라는 시간이 주는 무게감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강산도 변하는 시간 10년. 한 분야에서 10년간 꾸준히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내는 것은 또 어떨까. 그 분야에서 베테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은우는 2015년 KPGA투어에 데뷔해 2024년 데뷔 10년 차를 맞이했다. 단순히 10년 차를 맞이하는 선수는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10년 연속으로 상금랭킹 60위 안에 들거나 지옥의 시드전을 통과해 시드를 10년 연속으로 유지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KPGA에서는 2017년 'K-10 클럽상'을 신설했고 영광스럽게도 2024시즌 최은우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아직 K-10을 달성하는 선수가 많지 않다고 알고 있는 데요. 처음에는 그런 목표가 없었는데 연차가 쌓여 가면서 욕심이 나긴 했어요. 이런 커리어 자체가 생겼다는 것이, 큰 달성을 한 것 같고 뿌듯해요. 10년 연속으로 투어에 있으면서 시드권을 유지한다는 게 해보니 쉽지는 않았어요. 누구에게 10년 차라고 소개할 때도 그 10이 주는 무게가 크다는 걸 실감했어요."

한결같은 꾸준함으로

쌓아 올린 K-10 — 최은우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돌이켜 보았다. 처음엔 너무 좋아서 시작했던 골프였는데 투어 4~5년 차 정도 될 때쯤 직업으로 느껴지면서 번아웃이 오기도 했다. 골프에만 너무 집중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 빨리 지쳐버리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골프선수로 시즌 중에는 열심히 활동하지만, 중간에 휴식도 좀 취하고 해보고 싶었던 취미에 도전도 해보면서 시야를 골프 외의 다른 쪽으로 돌려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경기장에서도 연습을 하고 나면 주변 관광지에 가서 잠깐 머리를 식히는 경험을 처음 해보았다. 그렇게 하다 보니 경기장 가는 게 다시 재미있어지고 시즌 시작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부상을 통해 골프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

10년을 달려오기까지 위기의 시간도 있었다. '2018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3위를 차지하며 상승세를 타던 시기였는데 갑자기 부상이 찾아왔다. 가을이 되면서 왼손 엄지손가락 부상이 심하게 온 것이다. 보통 11월까지 경기에 참여했는데 9월에 일찍 시즌을 마감하고 부상 치료에 전념해야 했다.

"저는 골프 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갑자기 부상으로 골프를 중단하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골프라는 건 내가 하고 싶어도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골프를 다시 너무 하고 싶어 굳이 1부 투어가 아니더라도 2부 투어라도 골프만 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골프의 소중함을 깨닫은 계기였죠."

부상 이전까지는 시드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상당히 컸는데 골프를 치기만 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부담감을 내려놓고 몸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 아프지 않고 골프를 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상 이후 이듬해에도 부상 트라우마로 제대로 경기하기 힘들었고, 부상 부위에 신경이 쓰이면서 비거리도 많이 줄었다. 그래도 연차가 쌓이다 보니 비거리의 약점을 쇼트게임이나 퍼트 등으로 보완하는 요령도 생겼다.

"아직도 투어 다니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투어 시즌이 시작되면 신나게 경기를 하다가 시즌이 딱 종료되고 나면 몸이 아파요. 시즌 중에는 새벽에 일어나 매일 경기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가 시즌이 끝나면 3주가량 완전히 골프를 쉬는데요. 그때는 안 아프던 허리도 아프고 몸살도 나고요. 저는 그냥 1년 내내 계속 골프를 쳐야 하는 체질인가 보다 생각할 정도예요. (웃음)"

2024시즌 우승을 차지했던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4'에서는 전혀 기대를 갖지 않았다. 최종라운드까지 선두와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우승에 대한 생각을 아예 접어두고 다른 선수들을 응원하자는 마음으로 경기를 했다. 보통 우승권 안에 든다는 생각이 들면 온몸이 긴장되면서 신호가 오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홀까지 전혀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아 이상할 정도였다. '혹시 평소와 달리 이렇게 마음에 긴장감이 없고 다르게 느껴질 때 우승이 찾아오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이라는 것도 집에 가는 길에 기사를 보고 알았을 정도다. 오히려 순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기를 했던 점이 우승에 도움이 되었다. 더군다나 이번에 우승한 날은 아버지의 생일이라 더욱 뜻깊었다. 아버지는 최은우가 골프에 입문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루키 시절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며 골프 조력자로 큰 도움을 주었다.

2024시즌에는 'K-10 클럽' 달성도 의미가 크지만 12월 1일 결혼식을 올리며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한 해였다. 최은우는 결혼 준비를 하느라 시즌 막바지에는 골프에 집중을 많이 하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면서도 인생의 큰 숙제를 끝낸 만큼 앞으로 더 골프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결같은 골프 사랑을 드러냈다. ◆

ONE THING THAT GIVES ME STRENGTH

04
Special Theme
Your Energy

우승이라는 두 글자를 위해 치열한 시간을 보내는 KLPGA 선수들. 때로는 좌절의 순간을 겪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힘과 위로가 되어 주는 것들이 늘 존재한다.



YOO HYUN JO 유현조

어린시절부터 항상 모든 일정을 함께 해주는 어머니의 존재는 늘 저에게 에너지가 되고 있어요. 경기가 있으면 경기장까지 함께 다니며 응원해 주시고, 때로는 플레이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자극이 되는 말도 해주시면서 더 나은 경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늘 힘이 되어 주는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 골프백에 어머니의 성함을 딴 'Sangmi Power'를 새겨 다니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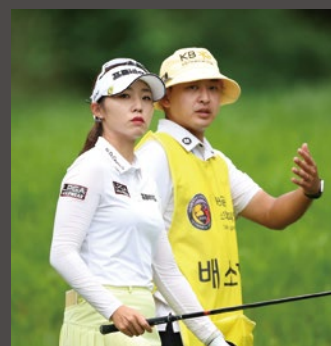
KIM SU JI 김수지

팬분들이 항상 저의 가장 큰 에너지예요. 대회가 언제 어디에서 열리든, 멀든 가깝든 항상 대회장까지 직접 와서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2024시즌에는 우승으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어 더욱 기뻐요. 앞으로도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BAE SO HYUN 배소현

경기를 하다 보면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캐디 오빠의 조언이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실령 샷이 좋지 않을 때에도 "괜찮다"라며 용기를 북돋워주고요. 이렇게 말을 해준 덕분에 실제로 그 홀에서 타수를 잃지 않고 마무리한 적이 많아요. 좀 더 집중이 필요할 때나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아 힘겨워 할 때에도 든든하게 이끌어주고 있어요.



KIM MIN BYEOL 김민별

경기 중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역시 매년 현장에 와서 응원해 주시는 갤러리분들과 팬분들인 것 같습니다! 2025시즌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겨울 동안 철저히 훈련하고 돌아올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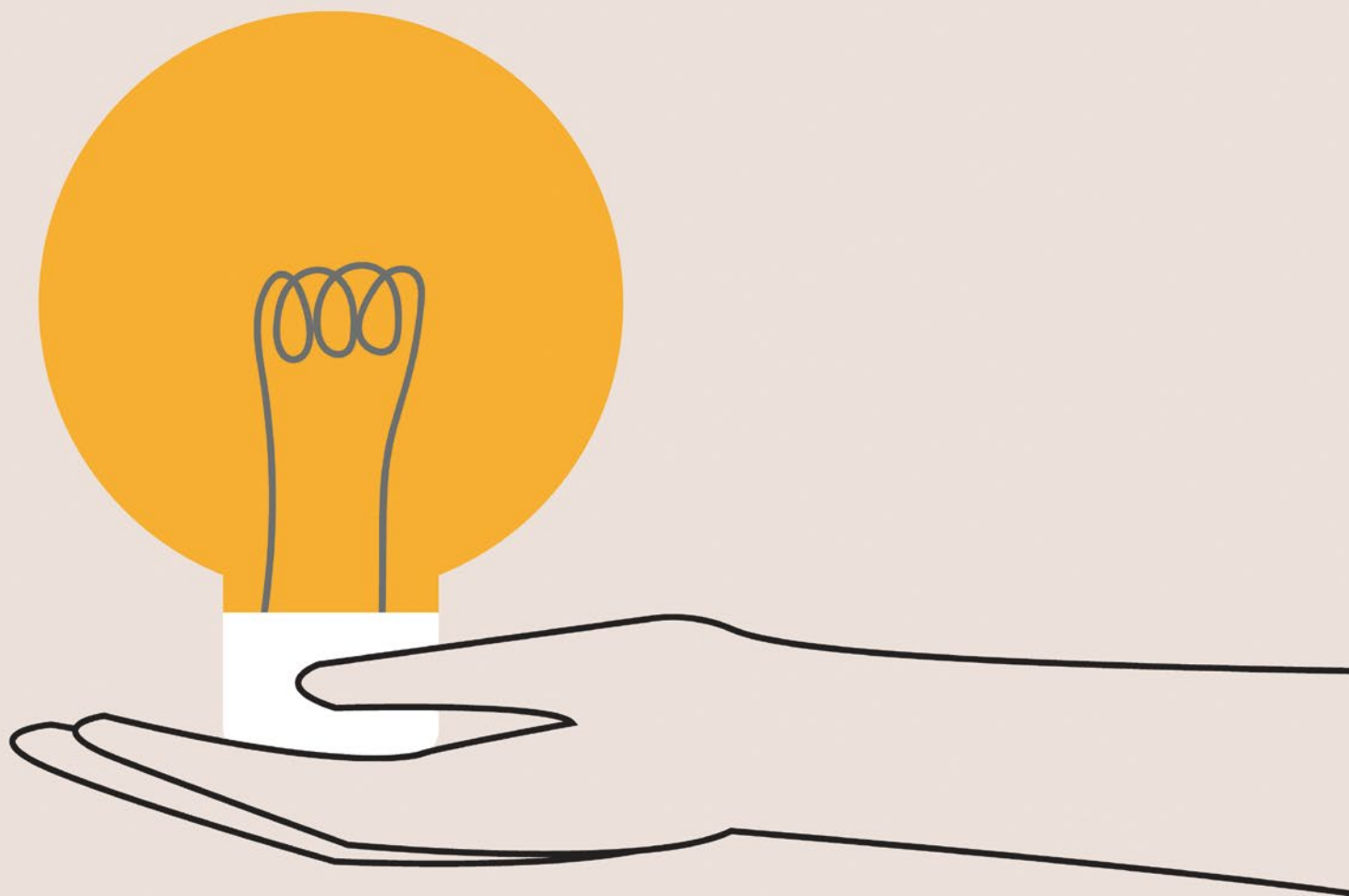
RO SEUNG HUI 노승희

시즌 중에는 매주 경기 장소가 달라지다 보니 경기장 주변 맛집 탐방이 저에게는 힐링 요소예요. 전국에서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이동시간도 상당한데요. 여기에 주 5~6회 정도 걸어서 라운딩을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꽤 커요. 음식은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에너지가 되기도 하지만 정서적인 면에서도 꽤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벌써 5년 동안 투어프로 생활을 한 만큼 경기가 열리는 골프장 주변에 꼭 찾게 되는 식당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좋아하는 식당에 들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심리적인 안정감도 생기고 경기 중에 쌓인 스트레스도 사르르 풀리거든요. 기분 전환에 효과가 아주 확실해요. ♦



위기의 순간 새로운 에너지로 채우기

시합을 하다 보면 위기의 순간은 언제나 존재한다. 문제는 그 위기의 순간을 현명하게 극복해낼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가에 달렸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집중된 에너지

“좋은 샷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지난 2005년 시즌 3승을 눈앞에 두었던 소렌스탐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당시의 소렌스탐은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혼을 겪으며 얼굴이 수척해진 상태였다. 자연히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결과는 오히려 반대였다. 당시 LPGA 관계자들은 경기력이 오히려 향상되었다고 전했다. 멘탈게임이라고 표현하는 골프는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으면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존 델리는 이혼소송 중에 한 번도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했고 프레드 컵스도 이혼하면서 후유증으로 성적이 추락해 몇 년 동안 회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소렌스탐은 달랐다. ‘골프 여제’라는 수식어가 붙은 대스타답게 개인사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니 말이다. 그는 그 비결로 “마음을 굳게 먹고 긍정적인 면만 생각하며 더욱 플레이에 집중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일 때문에 플레이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내 모든 에너지를 골프에 집중하고 있으며 연습하기 위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런 소렌스탐의 강인한 정신력과 에너지는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면의 요동치는 감정들에도 불구하고, 필드 위에서는 골프에만 온 정신을 쏟으며 스스로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기의 순간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지금 자신이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된다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기를 권한다. 가장 먼저 잠시 휴식을 취한다. 부정적인 마음이 지배할 때 할 일을 뒤로 미루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연습이 필요하다. 심장이 뛰고 손에서 식은땀이 나고 무력감 등을 느끼는 것은 몸을 흥분상태로 진입시키는 아드레날린의 작용 때문이다. 15분 이상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차를 한잔 마시거나 천천히 걸어본다. 두 번째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사람

들은 미리 혼자서 실패를 예감하고 확신하며, 과거에 이렇게 했을 때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현실성이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과거의 실패 사례 대신 극복 사례를 떠올려 보자. 이전에도 이겨냈으니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으로 돌아가기’다.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고 하지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 평소와 같은 숙면, 즐거운 식사, 산책이 3대 치료법이다.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하나다.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대인의 경우 걱정과 두려움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데 따른 자격지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은 생산적이지 않다. 생산적인 경우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앞서 가는 사람을 영감의 원천으로 삼을 때뿐이다.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되었다면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만 강력한 정신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나의 어떤 행동이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 나의 어떤 사고방식이 이런 상황을 불렀나? 지금과 다른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포자기에 빠지고 좌절감이 들 때 그런 상태를 끝낼 데드라인을 정한다. 날짜와 시간을 정해 놓고 이후로는 내게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기로 한다. 누구에게나 위기의 순간은 닥친다. 인생의 일부분이다. 한 번 위기의 순간이 닥쳤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경기가 끝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게임에서 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금물이다. 진짜 패배는 넘어진 자리에 계속 넘어져 있을 때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위기의 순간, 적절한 에너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발목 잡혀 목표를 향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

참고도서 :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천>

2025시즌 이제부터 시작! 제17대 KLPGA 홍보모델의 전지훈련 플랜

희망찬 2025시즌을 위한 준비는 벌써부터 시작되었다. 겨울 동안 제17대 KLPGA 홍보모델들은 새 시즌 더 나은 기량과 플레이를 선보이기 위해 누구보다 뜨거운 구슬땀을 흘리며 전지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이예원



▶ 이번 전지훈련에서 가장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쇼트게임과 아이언샷 정확도를 높이고 싶다. 좀 더 정확한 감각을 익히기 위해 필드 위에서 상황별로 연습량을 많이 늘려 훈련할 계획이다. 해가 갈수록 코스 난이도도 높아지고 2024시즌에는 공동 다승왕도 많고 새로운 우승자들도 많았다. 이제 선수들 간의 실력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쇼트게임이나 트러블샷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언샷 정확도에 집중해 연습하려고 한다. 하반기에 아쉬웠던 부분이, 체력이 떨어져 만족할 만한 경기를 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체력훈련에도 많은 비중을 둘 것이다. 체력을 키워 1년 내 내 고른 성적을 유지하고 싶다.

▶ 전지훈련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이번 시드니도 항상 전지훈련마다 동행하는 프로님과 떠날 예정이다. 내가 하는 경기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많이 보시기 때문에 2024시즌 아쉬웠던 경기 내용을 복기하면서 훈련할 계획이다. 좀 더 정확한 감각을 익히기 위해 필드에서 쇼트게임과 트러블샷을 상황별로 많이 연습하며 실력을 키울 것이다.

박현경



▶ 이번 전지훈련에서 가장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1월 16일부터 베트남 호찌민으로 전지훈련을 떠난다. 이번 전지훈련의 목표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우선 아이언샷의 경우 내가 가진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경기에서 아이언샷의 기록을 줄이기 위해 연습할 것이다. 퍼트도 중요한 부분이다. 2024년 짧은 거리 퍼트를 놓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고 싶다. 퍼트 감각을 끌어 올리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비거리 늘리기와 체력훈련이다. 시즌 중반을 넘어서면 체력이 떨어지면서 비거리가 점차 주는 경향이 있다. 시즌 끝까지 최대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 체력훈련에 힘쓸 예정이다.

▶ 전지훈련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2025시즌 궁극적인 목표는 KLPGA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는 것이다. 2024년에는 아쉽게 대상을 놓쳤지만 올해는 꼭 이루고 싶다. 시즌 초반에 우승이 빨리 나와야 심적으로 안정이 되는 편이다. 5월이 되기 전 시즌 첫 승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가영



▶ 이번 전지훈련에서 가장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매 시즌이 시작되고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컨디션 기복이 많다고 느껴져 체력훈련을 열심히 해서 시즌 내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할 것이다. 또 좋은 스코어를 위해서는 웨지샷과 퍼트가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해 연습하고 싶다.

▶ 전지훈련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태국 파타야로 전지훈련을 떠났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프로님이 동반한다. 전반적으로 프로님 훈련스타일을 따라가 보려고 한다. 새로운 스타일의 연습과 훈련을 하게 될 테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체력훈련을 잘 병행하면서 연습량도 최대한 늘려보려 생각하고 있다.

황유민



▶ 이번 전지훈련에서 가장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1월 베트남으로 전지훈련을 떠난다. 전지훈련에서는 쇼트게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여기에 집중할 것이다. 2024시즌이 끝나고 최근에는 근력 강화 운동과 체력 운동을 위주로 하고 있다. 2025시즌을 위해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싶다.

▶ 전지훈련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쇼트게임과 웨지샷 부분에 좀 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전지훈련에서 중점적으로 훈련할 것이다. 또 다양한 구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

방신실



▶ 이번 전지훈련에서 가장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1월 4일 뉴질랜드로 가서 8주 정도 전지훈련에 들어간다. 샷도 중요하지만 이번 전지훈련에서는 쇼트게임과 퍼트에 중점을 두고 훈련할 계획이다. 코스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트러블 라이에서 쇼트게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할 것이다. 퍼트 부분에서는 클러치 퍼트 성공률을 높이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다.

▶ 전지훈련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2025시즌에는 퍼트를 좀 더 잘하고 그린 주변 세이브율을 올리는 것이 목표다. ♦

세상에 따뜻한 에너지를 전하는 KLPGA 자선활동

연말을 맞아 그동안의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로 KLPGA와 선수들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이어졌다.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뜻깊은 자선활동을 돌아보았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온정 나누는 KLPGA

KLPGA에서는 골프 팬들에게 받았던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사회공헌 활동은 선수들의 자발적인 기부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골프를 통한 선한 영향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선수들의 버디 기록에 따라 기부금을 적립하는 '드림위드버디'는 KLPGA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15년 SBS골프와 함께 시작했고, 2018년부터는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메디힐이 함께하고 있다.

골프 저변 확대와 유소년 육성을 위한 '골프환경조성 프로젝트', 골프환경조성 학교를 대상으로 프로 선수들의 재능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인 'KLPGA with YOU', 'KLPGA 엘리트 유소년 멘토링'과 'KLPGA Kidz 골프캠프' 등도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아마추어 대회 개최를 통해 우수한 어린 선수들의 재능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는 'KLPGA-삼천리 꿈나무대회', 'KLPGA 회장배 여자아마골프선수권 대회'도 의미 있는 활동이다.

자선과 나눔의 장

지난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하이원 컨트리클럽에서 개최하는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4' 대회에서 'KLPGA Donation Store(이하 KLPGA 기부 스토어)'를 운영해 골프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또 폐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도 되었다.



D O N A T I O N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기금 마련 활동

KLPGA와 종합 패션 기업인 ㈜한성에프아이가 공동으로 '2024 KLPGA·올포유·레노마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한 이번 대회는 수익금을 어린이재단, 양로원, 화상재단, 한국펄벅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대어린이병원, 굿네이버스 등 다양한 기관에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KLPGA와 친환경 에너지 기업 주식회사 티과 함께 '제12회 티 채리티 오픈'의 자선기금을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에 전달했다. '제12회 티 채리티 오픈'을 통해 자선기금 5,000만 원(KLPGA 2,500만 원, 티 기부금 2,500만 원)을 마련했다. 이번 자선기금은 굿네이버스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KLPGA에서는 지난 12월 11일 '제12회 티 채리티 오픈'의 선수 기부금을 통해 마련된 약 1,300여 만 원을 여성 관련 사회복지시설 3곳에 전달했다. 따뜻한 나눔의 장을 실천하며 연말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후원을 이어갔다.

골프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봉사활동

KLPGA에서는 한 해 동안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12월 18일 'KLPGA 동계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KLPGA 임직원이 말반찬을 준비해 독거노인과 조손가족 등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KLPGA 동계 봉사활동'은 2013년부터 이어져 온 사회공헌 활동으로, KLPGA 회원들이 직접 소외계층을 돕고 골프 팬들이 보내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

Building Trust Through Transparent
Management and Innovative Golf

Lee Jung Hwan,
CEO of Doosan E&C

투명경영과 차별화된 골프마케팅으로 신뢰를 쌓다

두산건설 이정환 대표

2023년부터 KPGA와 동행을 이어오고 있는 두산건설은 새롭게 차별화된 골프마케팅으로 업계뿐 아니라 일반 대중과도 친근하게 소통하고 있다. 대회나 선수를 단순히 후원하는 것을 넘어 골프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두산건설의 의지가 담긴 결과다. 모든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하며 투명경영으로 두터운 신뢰를 쌓아 올리고 있는 두산건설 이정환 대표를 만났다. 글 · 유희경 | 사진 · 이재철

2024시즌 KPGA투어가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2024시즌 31개 대회가 열리고, 총상금 규모가 332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졌다. 여기에 단일 시즌 3승을 거둔 선수가 무려 5명이었고, 한 시즌 상금 10억 원을 돌파한 선수 또한 4명이나 되는 등 각종 신기록이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KPGA투어가 성공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골프 발전을 위해 함께 힘쓰는 후원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회가 있어야 선수가 존재한다. 대회가 열리기 위해서, 또 선수들이 대회에서 마음 놓고 자신의 기량을 펼치기 위해서는 기업의 후원이 필수다.

KPGA투어를 개최하는 기업은 금융사부터 패션기업, 건설사 등 다양하다. 두산건설 역시 2023년부터 KPGA투어와 동행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두산건설은 새롭게 차별화된 골프마케팅으로 업계를 비롯해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골프단 창단, 골프대회 개최와 함께 사인북과 프로암 초청, 기부활동, 직접 찾아가는 팬 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중과 소통해왔기 때문이다. 이렇듯 골프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낸 중심에는 두산건설 이정환 대표가 있다.

스토리텔링과 차별화된 골프마케팅으로 브랜딩

이정환 대표는 두산건설 전략혁신실을 거쳐 2022년 12월 대표직에 올랐다. 이 대표가 두산건설을 이끌면서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빠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2024년 3분기까지 직접 분양한 모든 프로젝트를 100% 완판시키며 화제가 됐다. 더불어 2024년도에는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여 매출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건설이 짧은 기간에 큰 폭으로 성장했던 요인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투명경영과 적극적인 마케팅이 꼽힌다. 특히 골프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대중과 친근하게 소통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두산건설은 2023년 유현주, 박결, 임희정, 유효주, 김민솔 선수를 영입해 두산건설 We've 골프단을 창단하고, KPGA투어 두산건설 We've 챔피언십을 개최하기 시작했다.

“두산건설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골프단을 창단하고 KPGA투어를 개최하게 됐다. KPGA투어가 워낙 인기가 많고 세계 3대 투어의 위상을 갖췄기 때문에 두산건설에도 적극적인 마케팅의 기회가 될 거라 판단했다. 또 건설사의 주된 고객들이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이라 데이터로 분석했을 때 많은 부분들이 겹치기도 한다.”

The 2024 KPGA Tour season concluded in grand style, featuring 31 tournaments with a record-breaking total prize pool of 33.2 billion KRW. This season saw unprecedented achievements, including five players securing three wins each and four players surpassing 1 billion KRW in earnings within a single season. Such accomplishments underscore the pivotal role of sponsors in driving the success of Korean golf. As tournaments are essential for players, corporate sponsorship is critical for ensuring these events take place and allowing players to focus on showcasing their talents. KPGA Tour sponsors come from diverse industries, including finance, fashion, and construction. Among these, Doosan E&C has stood out since joining the KPGA Tour in 2023, capturing attention with its innovative and distinctive golf marketing strategies. Through initiatives such as founding the We've Golf Team, hosting tournaments, publishing autograph books, inviting fans to pro-am events, engaging in philanthropic activities, and offering on-site fan services, Doosan E&C has actively connected with the public. At the heart of this effective marketing is Lee Jung Hwan, CEO of Doosan E&C.

Branding Through Storytelling and Differentiated Golf Marketing

Lee Jung Hwan, who served in Doosan E&C's Strategy Innovation Office, was appointed CEO in December 2022. Under his leadership, the company has achieved remarkable growth despite a sluggish construction market. In 2023, Doosan E&C sold 100% of its non-construction projects, leading to a 40% year-on-year revenue increase. By 2024, its annual revenue surpassed 2 trillion KRW, drawing significant attention.

Key drivers of this rapid growth include data-driven transparent management and proactive marketing efforts. Among these, golf marketing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enhancing brand recognition and fostering closer connections with the public. In 2023, Doosan E&C launched the We've Golf Team, recruiting players such as Yoo Hyun Ju, Park Gyeol, Lim Hee Jeong, You Hyo Ju, and Kim Min Sol, and began hosting the KPGA We've Championship. “We wanted a way to raise awareness of Doosan E&C and decided to form a golf team and host KPGA events. Given the immense popularity and prestige of the KPGA Tour as one of the world's top three tours, we believed it would positively impact our brand. Additionally, our main clientele overlaps significantly with golf enthusiasts, according to our data analysis,” said Lee.

The We've Golf Team distinguishes itself with a unique strategy. With a master's degree in marketing and extensive experience in sports marketing, Lee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brand storytelling. Players are aligned with



the five core keywords of Doosan E&C's We've brand Have, Live, Love, Save, Solve.

Doosan E&C has also expanded its commitment to Korean women's golf by renewing contracts with five players over the past two years and signing all team members for the 2024 season. Moreover, they have recruited Lee Yool Lyn, a national team member who topped the seed ranking finals, and Park Hye Jun, who secured two runner-up finishes last year. Such moves are particularly noteworthy given the challenges the golf industry faces amid economic downturns.

"While Doosan E&C supports its players, I believe the players also make a significant decision to partner with us. The We've Golf Team comprises players who excel in both performance and character. They consistently demonstrate dedication, arriving early and staying late to practice, and actively participate in activities with Doosan E&C. Their hard work and commitment make it meaningful for us to continue together, regardless of their performance outcomes," Lee shared.

With innovative golf marketing and a focus on fostering genuine partnerships, Doosan E&C, under Lee Jung Hwan's leadership, is setting new standards in corporate sports sponsorship, reinforcing its brand while contributing to the growth of Korean golf.

Practicing Communication and Sharing Through Golf

The We've Golf Team has captivated fans with marketing and fan services rarely seen in the golf industry. During the 2024 KLPGA season opener, the Doosan E&C We've Championship, the team organized a unique event: fans who collected the most autographs from 68 participating players were entered into a raffle for an invitation to the pro-am event of the 2025 season. This led to a lively scene at the championship, with golf fans enthusiastically collecting player autographs.

Additionally, Yoo Hyun Ju made headlines in October last year by recording announcements for the Shinbundang subway line and personally riding the train to greet passengers. The Shinbundang Line was a project developed, designed, and constructed entirely by a Doosan E&C consortium.

"Many people are surprised when they learn that Doosan E&C handled everything from planning to construction for the Shinbundang Line. The line is now operated by our subsidiary, Neotrans, and we thought it would be interesting to incorporate fun marketing ideas. Having Yoo Hyun Ju record the announcements was part of that effort. We imagined it might feel distant to see a star athlete, but what if Yoo Hyun Ju actually rode the train with passengers? That idea became a reality. When

두산건설 We've 골프단은 여느 골프단과 달리 차별화된 전략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 학원에서 마케팅을 전공하고 스포츠 마케팅 경험이 많은 이 대표가 브랜드 스토리텔 링을 중요하게 강조했기 때문이다. 2001년 론칭한 두산건설의 브랜드 We've의 5가 지 키워드(Have, Live, Love, Save, Solve)에 맞춰 선수마다 캐릭터에 부합되는 에 쟀설을 부여하고, 대회도 5가지 키워드에 맞춰 기획·운영 중이다. 유현주는 '꼭 갖 고 싶은 공간(Have)', 유효주는 '기쁨이 있는 공간(Live)', 박결은 '사랑과 행복이 있 는 공간(Love)', 김민솔은 '알뜰한 생활이 있는 공간(Save)', 임희정은 '생활 속의 문 제가 해결되는 공간(Solve)'을 선택해 활동 중이다.

또한 두산건설은 최근 한국여자골프 발전을 위해 통 큰 결정을 내렸다. 창단과 함께 한 5명의 선수와 2025년 전원 재계약한 것이다. 여기에 올해는 국가대표 출신이자 KLPGA 2025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본선에서 1위를 차지한 이율린(기쁨이 있는 공 간 Live)과 2024년 두 차례 준우승을 차지한 박혜준(알뜰한 생활이 있는 공간 Save) 까지 영입했다. 경기침체로 골프업계가 어려운 시장 상황에 있어 더욱 반가운 소식이다. 이 대표는 단순히 선수 후원하는 것을 넘어 함께한다는 상생과 의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두산건설이 선수들을 후원하긴 하지만, 반대로 선수들도 두산건설과 함께하겠다는 큰 결정을 내린 거라 생각한다. 두산건설 We've 골프단 선수들은 모두 경기력과 인 성을 갖춘 선수들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두산건설과 함 께하는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회장에서도 제일 일찍 나오고 제일 늦게까 지 연습한다.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적에 관계없이 다 같이 함 께 가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골프 통한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다

두산건설 We've 골프단은 그동안 골프업계에서 볼 수 없었던 마케팅과 팬서비스로 화제를 이끌었다. 2024시즌 KLPGA 개막전인 두산건설 We've 챔피언십에서는 국내 개막전을 기념하며, 팬 입장에서라도 다른 선수를 알아가는 재미를 주고 성숙한 팬 문



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사인복을 만들었다. 그리고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 68명 선수 의 사인을 가장 많이 받은 팬들 중 추첨을 통해 2025시즌 대회 프로암 초청이라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래서 두산건설 We've 챔피언십에서는 선수들의 사 인을 받으려는 골프 팬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유현주 선수는 지난 10월 신분당선 지하철 소개 멘트를 녹음하고, 직접 신분당 선에 탑승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눠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분당선은 두산건설 컨소 시엄이 노선 기획부터 설계·투자·시공·운영까지 사업의 모든 부분을 담당해 개통 한 라인이다.

"두산건설이 신분당선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진행했다고 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 다. 운영은 자회사 네오트랜스에서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마케팅을 진행하면 좋겠 다 생각해 유현주 선수가 안내방송을 녹음하게 됐다. 어떻게 보면 대중에게 스타 선 수는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유현주 선수가 함께 신분당선을 타고 간다면 어떨까, 하 는 상상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다. 그런데 처음 방송됐을 때 재미있는 민원이 들어왔 다. 안내방송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웃음).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라는 멘트를 더 추가해 방송했다.

이렇게 두산건설 We've 골프단이 색다른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팬덤까지 형성돼 국 내 골프대회 및 구단 인스타그램 채널 최초로 1만 2,000 팔로워를 달성하기도 했다. 두산건설은 골프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두산건설 We've 챔피언십 대회 입장료 수익금 전액을 제주도 장애인체육회에 기부하고, 골프단 소속 선수들 이 정규 대회에서 버디를 잡을 때마다 기부금을 적립해 시즌 종료 후 어려운 이웃들 에게 전달했다. 이 외에도 연말에는 두산건설 임직원들이 임희정 선수와 함께 진행 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골프단 애장품 경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유기 반려 동물 보호 센터에 기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에 앞장서 고 있다.

2025시즌에는 부산에서 개막전 열어

두산건설은 2025년에도 국내 개막전으로 KLPGA 시즌을 연다. 올해는 4월 3일부 터 나흘간 부산 동래베네스트GC에서 열린다. 이 대표는 골프대회도 건설사만이 할 수 있는 '공간을 해석하는 능력'이 접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4시즌에는 제주에서 대회를 개최했는데, 윤이나 선수가 KLPGA투어 두산건설 We've 챔피언십을 통해 복귀하고 방싯실, 황유민 장타 선수들끼리 한 조로 플레이 하면서 골프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또 4번 홀에서 알바트로스를 하면 아파트 한 채 를 부상으로 증정하는 파격적인 이벤트도 진행해 화제가 됐다. 2025시즌도 개막전 으로 진행되는 만큼 선수와 갤러리가 함께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축제의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 또 We've 브랜드의 에센셜은 대회를 진행할 때도 중요하게 생각하 는 키워드다. 꼭 가고 싶은 대회(Have), 기쁨이 있는 대회(Live), 사랑과 행복이 있 는 대회(Love),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는 대회(Save),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이 되는 대회(Solve)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신경 쓸 예정이다."

이 대표의 2025년 목표는 두 가지다. 두산건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 해온 만 큼 앞으로도 투명경영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과 두산건설 We've 골프단, 골프대회를 더욱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다. 2025년에도 두산건설 이 국내 골프문화 발전에 기여하면서 어떤 색다른 마케팅으로 골프 산업에 영감을 줄지 기대가 모인다. ◆



the announcements first aired, we even received amusing feedback, such as complaints that the messages were too short (laughs). We later added lines like, 'Have a great day' and "Travel safely" to make it more engaging."

These innovative marketing initiatives have helped the We've Golf Team build a dedicated fan base, achieving a milestone as the first domestic golf team and tournament Instagram account to surpass 12,000 followers.

Doosan E&C has also been active in community engagement through golf. Proceeds from ticket sales at the We've Championship were donated to the Jeju Disabled Sports Association. Additionally, the team accumulated donations for every birdie made by its players during regular tournaments, which were distributed to underserved communities at the end of the season. Other initiatives included a "Love Kimchi Sharing" event, where employees joined Lim Hee Jeong to prepare and donate kimchi, as well as auctions of team memorabilia, with proceeds supporting shelters for abandoned pets.

2025 Season to Open in Busan

Doosan E&C will once again host the KLPGA season opener in 2025, scheduled to take place from April 3 to April 6 at Dongrae Benest GC in Busan. Lee believes that integrating a construction company's expertise in "interpreting spaces" is key to organizing successful golf tournaments.

"Last season, we held the tournament in Jeju, where Yoon Ina made her return at the We've Championship and paired with long hitters Bang Sin Sil and Hwang Yoo Min, drawing significant fan interest. We also created a buzz with an extraordinary event offering an apartment as a prize for an albatross on the 4th hole. For the 2025 season opener, we aim to create a 'festival space' where players and fans can interact and enjoy the event together. The essential keywords of the We've brand are central to our tournament planning. We focus on crafting an event that people want to attend (Have), that brings joy (Live), that fosters love and happiness (Love), that contributes to society and the environment (Save), and that offers a refreshing escape from daily life (Sol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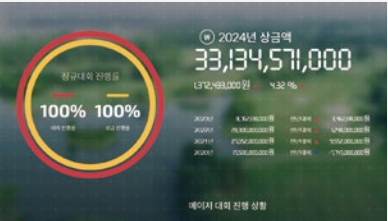
Lee's goals for 2025 are twofold: to continue building Doosan E&C as a trustworthy company through transparent management and to further enhance the success of the We've Golf Team and its tournaments. As Doosan E&C continue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s golf culture, all eyes are on the innovative marketing strategies it will bring to inspire the golf industry in 2025. ◆

THE HISTORICAL

2020-2024

2020

선수들의 기록들을 객관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인 '데이터센터(data.klpga.co.kr)'를 오픈했다. KLPGA는 1978년 네 명의 여자 프로골퍼가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40여 년의 장대한 역사를 상세히 기록하고 분석하기 위해 KLPGA 공식 홈페이지와 별도로 데이터 기반의 웹사이트를 오픈한 것이다. 데이터센터에서는 KLPGA 대회별, 선수별 상세 기록과 투어별 역대 기록 등 각종 기록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21

홍란 선수가 KLPGA 역대 최초로 1,000라운드 출전 기록을 달성했다. 2021년 6월 17일 충북 음성인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DB그룹 한국여자오픈 2라운드를 마치면서 통산 1,000라운드 경기 기록을 달성했다. 2005년에 데뷔한 홍란은 2월 삼성 레이디스 마스터즈에서 첫 라운드를 시작한 이후 17년 동안 한 번도 시드를 잃지 않고 꾸준히 활약해 오면서 마침내 대기록을 세우며 KLPGA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홍란 선수는 1,000라운드 출전을 기념해 KLPGA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



2022

KLPGA에서 외국인 선수들을 위한 문을 활짝 개방한 시기였다. 외국인 선수들의 국내 투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참가할 수 있었던 '준회원 선발전'과 '점프투어'를 모두 개방하면서 외국인 선수도 국내 선수와 동일하게 KLPGA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까지 외국인 선수의 경우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IQT)'를 통해 국내 투어 활동이 가능했다. IQT에서 다른 외국인 선수와 경쟁해 드림투어, 점프투어의 시드권을 획득하거나 각 투어의 시드순위전 참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방을 통해 글로벌 투어로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TIMELINE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KLPGA는 세계적인 투어로 꼽히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KLPGA가 성장하기까지 선수들의 놀라운 기록들이 더해지고 KLPGA 내부적으로도 홈페이지와 데이터센터를 오픈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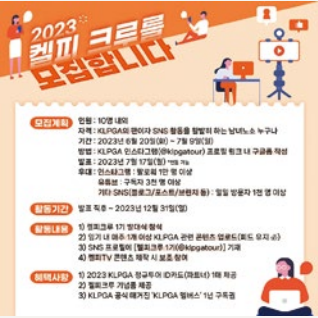


2023.05

KLPGA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리뉴얼했다. 새로운 홈페이지는 경쾌한 느낌의 '울트라 마린' 색상을 테마로 희망의 에너지를 전달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KLPGA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또 기존 홈페이지와 달리 '골프 팬만을 위한 홈페이지'로 새단장해 현재 열리고 있는 대회의 피드와 기록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단 메인 메뉴에서는 리더보드, 투어 일정, 선수, 기록, 미디어 등 투어와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어 편리하다.

2023.06

KLPGT에서 처음으로 켈피 크루(KLPGA CREW)를 모집했다. 켈피 크루는 KLPGA투어를 사랑하는 팬과 함께 KLPGA투어와 선수들이 관련된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다. KLPGA투어의 팬이자 SNS 활동을 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인스타그램 팔로어가 1만 명 또는 유튜브 구독자가 3,000명 이상이거나 SNS 활동이 활발한 이들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처음 출범한 1기는 골프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10인이 선정되어 KLPGA투어 소식을 SNS를 통해 활발하게 전달해 주었다.



2024

2024시즌 KLPGA는 전체 투어 76개 대회, 총상금 약 361억 원으로 4년 연속 300억 원을 돌파했다. 정규투어는 대회 수 31개, 총상금 약 332억 원 규모로 지난 시즌 31개에서 1개 대회가 줄었지만 총상금은 약 14억 원이 늘었다. 정규투어는 3월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을 시작으로 개막되었다. 한 해 동안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을 위한 시상식인 KLPGA 대상 시상식에서는 황유민이 인기상을, 신인상에는 유현조, 2024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윤이나가 위메이드 대상, 상금왕, 최저타수상을 차지하며 3관왕에 올랐다. ♦



KLPGA 2025시즌 미리보기

해외 골프장 투어

2025시즌 개막을 앞두고 드림투어가 최초로 해외에서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골프장에서 선수들은 또 한 번 새로운 도전과 모험의 시간을 갖는다.



‘KLPGA 2025 드림투어 인도네시아 여자오픈’이 개최되는

다마이 인다 골프클럽

2025년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다마이 인다 골프클럽 BSD코스에서 ‘KLPGA 2025 드림투어 인도네시아 여자오픈’이 열린다. 드림투어가 해외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마이 인다 골프클럽은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 시내에 있는 수카르노하타 국제 공항과 자카르타 시내에서 차로 30~40분 거리에 있는 신시가지인 BSD(Burni Serpong Damai) 시티에 위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부동산 개발사인 다마이 인다(Damai Indah) 그룹에서 운영하며 18홀의 골프 코스를 갖추고 있다. 전장이 길고 큰 벙커가 유명한 코스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벙커가 코스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벙커를 피해 가기 위한 전략과 함께 긴 코스를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에게는 도전정신을 일으킨다. 다마이 인다 G&CC BSD(Bumi Serpong Damai) 코스는 1996년 세계적인 골퍼이자 골프 설계자인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잭 니클라우스는 자신이 설계한 수많은 골프 코스 가운데서도 이곳은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며 가장 좋아하는 코스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BSD 코스를 운영하는 다마이 인다 그룹의 또 다른 골프 코스는 로버트 트렌트 존스 주니어가 디자인한 다마이 인다 G&CC PIK 코스(18홀)로 바다의 정신을 기본으로 설계되었고 두 코스 모두 인도네시아 10대 골프 코스에 선정되면서 세계적인 대회를 개최해 골퍼들에게 잘 알려진 코스다. 다마이 인다 BSD 코스는 열대지방의 야자수가 길게 늘어진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코스로도 유명하다. 골프장 안에 들어선 순간 시원하게 펼쳐진 골프장은 넓고 쾌적한 인상을 주며 1999년 미국의 골프 잡지인 〈골프 다이제스트〉에서 인도네시아 최고의 골프 코스로 꼽히기도 했다. 2000년 허츠 인터내셔널 골프 트래블 어워드에서 선정한 동남아시아 베스트 골프 코스 다섯 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될 만큼 명문 골프 코스다. 인도네시아 명문 골프 구장인 만큼 코스 관리 또한 수준급이다.



‘KLPGA 2025 드림투어 필리핀 레이디스 마스터즈’가 개최되는 필리핀 더 컨트리 클럽

KLPGT가 레이디스필리피나스골프투어(LPGT)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필리핀 레이디스 마스터즈가 총상금 30만 달러 규모로 개최된다. KLPGA 드림투어 선수 50명과 아시아 선수 82명, 총 132명의 선수가 우승을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일 곳은 필리핀 더 컨트리 클럽이다. 더 컨트리 클럽은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약 50km 거리, 라구나 사우스 하이웨이에서 남서쪽으로 2.8km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전체 18홀에 파72, 챔피언티 전장이 7,256야드로 국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골프 클럽이다. 100% 회원제 골프장으로 ‘마닐라 컨트리 클럽’, ‘악악 컨트리 클럽’과 더불어 필리핀 3대 명문 골프 클럽으로 꼽힌다. 컨트리 클럽의 골프 코스는 1997년 미국의 프로골퍼 출신이자 골프 코스 설계가인 톰 위스코프(Tom Weiskopf)가 기술적인 플레이를 즐길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설계했다. 프로들도 이 코스를 플레이해 봐야 한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공격루트를 갖고 있는 골프 코스다.

컨트리 클럽 코스 1번 홀(파4)은 그린 좌측에 연못이 있어 그린 우측으로 공을 보내게 되는데 이 역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정확성이 상당히 필요한 홀이다. 2번 홀(파5)은 핸디캡 1번인 이 코스에서 가장 긴 롱홀이다. 티 박스에서 보면 우측으로 도그렉성인 홀로 티샷이 떨어지는 지점에 벙커가 자리해 장타자라면 최대한 멀리 보고 티샷을 하는 것이 좋다. 15번 홀은 전체적으로 페어웨이가 좁은 편이고 굴곡도 제법 있어 전략을 잘 짜야 한다. 2019년에는 CTGA(대만여자프로골프)와 LPGT가 주최한 필리핀&대만여자 프로골프대회를 개최한 곳이기도 하다.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개최되는 태국 블루캐니언 컨트리 클럽

KLPGA투어에서는 지난 2023, 2024시즌 두 번의 동남아시아 지역 대회로 개막을 맞았다.

2024년에 열린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는 이예원이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블루캐니언은 아시아권에서 가장 유명한 골프 리조트 가운데 하나로 36홀을 갖추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린의 길고 좁으며 많은 내추럴 해저드와 87개의 벙커가 있다. 블루캐니언은 태국 10대 골프장, 세계 100대 골프장에 선정되었고 푸켓 공항에서 차로 10분 내외에 위치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한다.

1991년 선보인 캐니언 코스(Canyon Course)는 지난 1994년과 1998년, 2007년 조니워커 클래식으로 선정되면서 유명해졌는데, 조니워커 클래식을 세 번이나 개최한 유일한 컨트리 클럽이기도 하다. 1994년에는 그레그 노먼이 우승을 차지했고, 1998년 2월에는 타이거 우즈가 우승한 곳이다. 캐니언 코스는 고무 공장 옆에 있는 버려진 주석으로 광산의 원래 풍경을 최대한 지키면서 조성되었다. 협곡과 절벽은 붉은 색과 흰색의 주석 바위가 어우러지고 푸른 하천이 조화로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크게 우거진 9그루의 야자나무는 캐니언 코스 앞쪽부터 홀을 둘러싸며 이국적인 모습을 자랑한다.

레이크 코스는 1999년 2월 일본의 건축가 요시카즈 카토가 만들었다. 레이크 코스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도전할 수 있는 270야드의 타깃 드라이빙 구역을 갖춘 총 7,129야드의 경이로운 챔피언십 코스다. 잘 꾸며진 그린과 좁고 굴곡이 심한 페어웨이를 갖추고 있어 ‘아시아 최고의 챔피언 코스’라는 명성이 아깝지 않다. 코스의 하이라이트는 11번에서 15번 사이의 5개 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1번 홀의 티샷은 중간에 커다란 호수가 있어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안겨준다. 그린 양옆으로도 물 웅덩이가 2개나 있어 안정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파3인 4번 홀은 섬으로 형성되어 있어 골퍼들이 섬 지역에 정확하게 티샷을 날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14번 홀은 캐니언으로도 불리는데 골퍼들이 장애물을 넘기기 위해 어려운 샷을 쳐야 하는 곳이다. 골프장의 코스도 훌륭하지만 클럽하우스의 멋진 경치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클럽하우스에서는 페어웨이와 그린의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리조트에서는 골프 코스가 바로 내려다보이는 객실과 태국 전통 안마, 스파 체험도 가능하다. ◆





2024시즌 KLPGA투어 종결산의 자리

2024 KLPGA 대상 시상식

2024시즌 누구보다 뜨거운 활약을 보여준 KLPGA투어 선수들, 한 해 동안 빛나는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을 위한 '2024 KLPGA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KLPGA 임직원들과 선수들을 후원해주는 스폰서와 후원사, 언론사 관계자들까지 함께하며 수상자들에게 아낌없는 성원으로 시상식의 분위기를 한껏 뜨겁게 만들었다.

2024년 11월 27일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4 KLPGA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2024년을 결산하는 자리인 만큼 KLPGA투어 선수들과 투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상식장은 일찍부터 뜨거운 열기로 고조되었다. 1999년부터 개최된 이번 시상식은 매년 연말이면 국내외 선수들과 골프 팬들의 관심을 받는 KLPGA의 대표적인 행사로 성장했다. 한 해 동안 누구보다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과 KLPGA를 든든하게 후원해주는 후원사 및 관계자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일 년간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 자리가 되었다.



오늘 하루는 주인공 바로 나야 나~ 드레스 업!

이번 시상식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선수들의 화려한 의상이었다. 선수들이 주인공인 만큼 이번 시즌에도 화려한 의상은 가장 많은 화제를 낳았다. 평소 필드 위에서 골프웨어를 입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 대신 이날 하루는 공주로 변신한 듯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저마다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의상 선택도 눈길을 끌었다. 드레스를 선택한 선수들은 여성적인 매력을 한껏 뽐냈다. 윤이나는 큰 키를 돋보이게 하는 블랙 롱드레스를 선택했다. 여기에 올백 헤어 스타일과 드롭형 귀걸이를 착용해 차분하면서도 절제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줬다. 배소현 역시 블랙 드레스를 선택했다. 심플한 라인의 블랙 드레스에 어깨선은 화이트 라인 장식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김재희는 목과 양쪽 팔 부분에 화려한 컬러의 꽃장식이 달린 드레스로 개성을 뽐냈다. 화이트 드레스를 선택한 선수들이 가장 많았다. 박현경은 화려한 비즈로 장식된 스타일의 화이트 드레스를 입었는데 여기에 감쪽한 티아라를 매치해 여신 자태를 보여주었다. 노승희는 어깨 부분에 리본으로 장식을 준 화려한 라인의 드레스를, 고지우는 간결하고 우아함을 강조하는 원피스형 드레스를 선택해 대조를 이루었다. 어깨 선을 드러내는 과감한 오프숄더 드레스로 눈길을 사로잡은 선수들도 있었다. 박보검은 화려한 러플 장식이 있는 블루 컬러의 오프숄더 드레스로 섹시한 모습을 뽐냈고, 지한솔 역시 은은한 블루 컬러의 오프숄더 드레스로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했다. 화려한 의상을 선택한 선수들도 있었다. 김수지는 목 라인부터 비즈 장식이 촘촘하게 장식되어 화려한 룩을 보여주는 드레스를 입었고,



이에원 역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시스루 소재의 블랙 드레스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반면 황유민, 송은아, 이정민, 박결은 팬츠 정장으로 색다른 맛을 보여주었다.

각자의 취향과 안목을 엿볼 수 있는 의상들은 그동안 경기장에서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며 시상식을 보는 재미를 확실히 더했다. 이번 시상식은 주관방송사인 SBS골프를 비롯해 네이버, 다음카카오, 카카오VX, U+모바일tv, 에이닷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관계자들과 골프 팬들은 생중계 방송을 통해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실시간으로 팬들과 KLPGA의 한 해 성대한 마무리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기도 했다. ◆



2024시즌을 빛낸 영광의 얼굴들



이제 본격적으로 시상식의 막이 올랐다. KLPGA 대상 시상식의 1부는 일 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자리. 가장 먼저 한 해 동안 여러모로 KLPGA를 지원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KLPGA 발전을 위해 애쓴 공로를 기리는 공로상과 투어 공로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다음 2부 순서는 선수들을 위한 시상식 자리였다. 먼저 골프 기자단에서 수여하는 기량발전상인 'Most Improved Player Award' 수상자로는 배소현이 선정되었다. 2017년 정규투어에 늦게 합류한 배소현은 7년 만인 2024시즌 'EI 채리티 오픈'에서 154개 대회 만에 첫 승을 차지했다. 골프 팬들이 직접 투표해 더욱 의미가 깊은 '인기상'의 주인공은 투어 2년 차 황유민이었다. 황유민은 상금왕 윤이나와 공동 다승왕에 오른 박현경 등의 치열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인기상 부문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며 영예를 안았다. KLPGA투어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인기상을 수여하고 있고, 2023년에는 박현경이 생애 첫 인기상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따뜻한 나눔의 시간도 마련되었다. 'KLPGA와 SBS가 함께하는 메디힐 드림위드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2024시즌 투어 내내 진행한 자선기금 조성사업과 이벤트, 선수들의 기부금 등을 더해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사업인 '꿈날개 클럽'에 전달한 것이다. 이번 기부금은 총 203,240,000원으로 드림위드버디 역대 최고 기부액을 기록해 더욱 의미가 깊었다.

이후에는 드림투어 상금왕 자리에 오른 송은아와 챔피언스투어 상금왕 최혜정의 수상이 이어졌다. 송은아와 최혜정에게는 '덕시아나 상품권 1,500만

원'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2024시즌 생애 첫 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영광의 주인공은 김민별, 김재희, 노승희, 문정민, 배소현, 유현조 등 6명의 선수들이었다. 이 선수들은 'KLPGA 위너스클럽'에 가입하며 200만 원 상당의 '프레드릭 콘스탄트 레이디 슬림라인 문페이즈 시계'를 부상으로 받았다.

이어서 KLPGA 정규투어에서 10년 연속 활동한 선수만 가입할 수 있는 영광의 'K-10클럽' 시상식 시간이 마련되었다. 'K-10클럽'에는 박결, 박지영, 박채윤, 지한솔, 최은우가 이름을 올렸다.

2024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크리에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정민 등 정규투어에서 1승 이상을 거둔 고지우, 김수지, 마다솜, 박민지, 박보겸, 박지영, 박현경, 윤이나, 이가영, 이에원, 지한솔, 최은우, 황유민에게는 국내 특별상 트로피가 주어졌다.

주요 타이틀 부문의 시상도 이어졌다.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다승왕 경쟁에서는 마다솜, 박지영, 박현경, 배소현, 이에원 등 5명의 선수가 시즌 3승씩을 올리며 공동 다승왕을 차지했다.

생애 단 한 번이라 더욱 의미 있는 '신인상'의 영광은 유현조에게 돌아갔다. 유현조는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신인상 포인트 2,334점으로 일찌감치 신인상을 예약했다.

2024시즌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KLPGA투어의 스타임을 입증한 윤이나가 상금왕, 최저타수왕 등 3관왕을 차지했다. 1년 6개월 만의 공백 끝에 2024시즌 복귀한 윤이나는 25개 대회에 출전하며 꾸준히 상위 랭킹에 올랐다. 우승은 '제 11회 제주삼다



수 마스터스' 한 차례에 불과하지만 총 14차례 '톱텐'에 들며 최고의 선수로 기록되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선수들의 숨겨진 끼가 대방출 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선수들의 새로운 면모에 팬들의 열띤 호응이 이어졌다. 박현경은 이날 SBS스포츠 안현준 아나운서와 MC로 시상식 진행자로 나섰다. 지난 2023 'KLPGA 대상 시상식'에서 박현경은 라이브 팬미팅과 다수 선수들의 간단 인터뷰를 진행해 능숙한 진행 솜씨를 뽐낸 적이 있다. 시상식을 시작하며 박현경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대상 시상식의 MC를 맡게 돼 떨리고 설렌다. 혹여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면서 "(챔피언 퍼트를 할 때와) 비슷한 정도로 지금도 떨린다. 잠을 제대로 못 잤다"라고 MC를 맡은 소감을 전했다. 박현경의 소감에 시상식에 참석한 동료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큰 박수로 응원했다. 생애 첫 우승으로 수상에 나선 김재희는 트렌디한 '빼끼빼끼춤'을 선보였다. 시상식장에서 음악이 흘러나오자 숨겨두었던 춤 실력을 보여주며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2024 KLPGA 대상 시상식'을 통해 KLPGA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하며 한 해의 성과를 선수들은 물론 참석한 관계자, 팬들까지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

2024 KLP6A 대상 시상식

주요 수상자



위메이드 대상·
상금왕·최저타수상
윤이나



신인상
유현조



인기상
황유민



드림투어 상금왕
송은아



챔피언스투어 상금왕
최혜정



박현경



마다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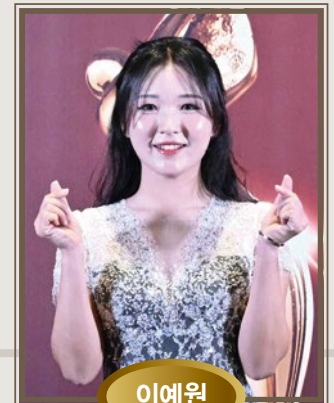
박지영



공동
다승왕



배소현



이예원

2024 KLPGA CEREMONY OF

AWARDING GRAND PRIZE

2024시즌을 장식한 선수들의
오늘 이 한마디



윤이나

“매 경기 행복하게
감사하며 임했는데
최저 타수상을 받아
감개무량해요. 코스에서
가장 가깝게 도와주신
양원철 캐디에게
감사해요. 더 꾸준한
선수가 되라고 주는
상으로 여기겠어요.”



황유민

“팬들이 만들어 준 상이라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골프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더 나은 황유민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유현조

“올 시즌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신인상 수상과
우승이었어요. 다행히 두
목표를 이룰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배소현

“첫 우승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겨내고
견뎌내는 동안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상까지 주셔서
감사해요. 허리부상 때문에
선수 포기까지 생각했는데
3승까지 기록해 2024년은
잊지 못할 한 해가 됐어요.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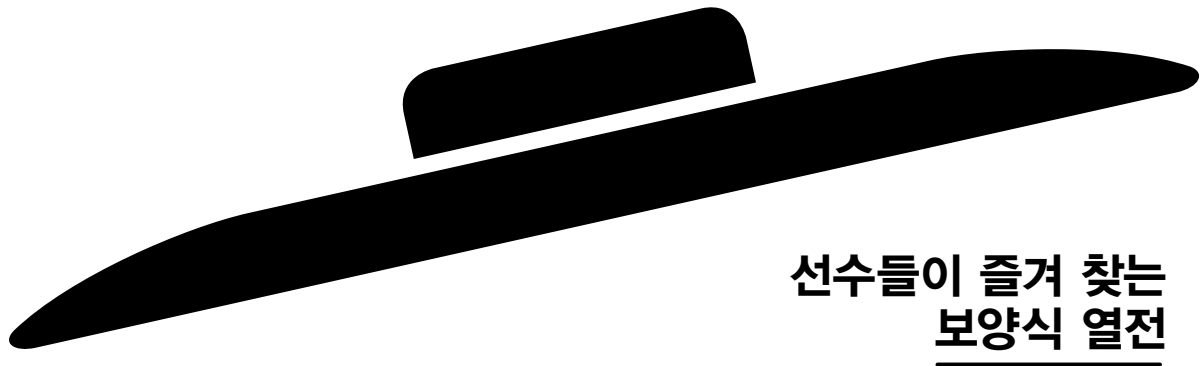
김재희

“시상식 무대에 서니
우승 때의 전율이 다시
느껴지네요. KLPGA의
성장을 위해 힘쓴
분들에게 감사하고
2024년 함께 고생한
동료들과 이 영광을
나누고 싶어요.”



김수지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값진 성과를 낼 수 있게
도움을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려요. 선수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경기의 품격이 한층
높아지게 됐어요.
모두에게 고생했다고
전하고 싶어요.”



선수들이 즐겨 찾는
보양식 열전



김민별 보양식 - 삼계탕
“개인적으로 보양식을 찾아서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그래도 시즌 중에는 힘이 되고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더라도 잘 챙겨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여름철 더운 날씨에 기운이 없을 때는 다른 음식보다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단백질이 풍부한 닭고기 살에 국물을 먹고 나면 그래도 기운이 솟는 것 같아요.”



김수지 보양식 - 장어구이 & 장어탕
“보통 대회장에 나가서는 곰탕을 즐겨 먹는 편이에요. 국물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빨리 먹을 수 있고, 속도 든든하고 고기가 들어 있어 단백질을 보충하기에도 좋아요. 개인적으로 몸이 허하다 싶을 때는 장어구이나 장어탕을 먹어요. 장어가 워낙 스테미나 음식으로 유명하잖아요. 또 제 체질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맛도 물론 좋고요.”



배소현 보양식 - 녹용
“체력적으로 힘이 들고 건강을 챙겨야겠다고 마음먹으면서 보양식으로 녹용을 챙겨 먹고 있어요. 녹용을 먹고 나서는 밤에 잠을 잘 때도 숙면을 취하고 체력이 부족 오른 기분이 들어요. 최근 스폰서인 메디컬오 원장님이 직접 진맥을 해주시고 맞는 한약을 지어 보내주셨는데 꾸준히 먹으며 건강을 챙기고 있어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선수들의 보양식은 무엇일까. 먹으면 힘이 나는 보양식을 공개한다.



유현조 보양식 - 고기
“종류를 가리지 않고 고기 요리는 다 잘 먹는 편이에요. 운동을 하고 나서는 단백질 보충을 위해 고기를 먹으며 체력을 키우고 있어요.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족 높아지면서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위주로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요, 틈틈이 ‘프로틴’ 파우더로 영양을 보충해요. 간편하면서도 단백질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어 저의 최애 보양식이 된 것 같아요.”



박민지 보양식 - 샤브샤브
“겨울철 즐겨 찾는 음식으로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를 좋아하는데요, 카페인이 들어 있지 않은 캐모마일차나 보리차를 즐겨 마셔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 외에도 단백질을 잘 섭취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고기 단백질도 몸에 좋지만 식물성 단백질을 즐겨 먹으려고 해요. 낫토나 두부 같은 음식이요. 겨울철에는 따끈하게 먹을 수 있는 샤브샤브 같은 요리를 좋아해요.”



황유민 보양식 - 삼계탕
“대회나 연습을 하고 나면 남은 시간이 짧아 식사를 길게 하기 힘든데요, 영양이 가득한 삼계탕은 보양식으로 그만이에요. 여름철 특히 자주 찾는 음식이죠. 삼계탕을 먹고 나면 기운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영양이 풍부해 더위에 덜 지치고 시합을 마칠 때까지 체력을 잘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음식이에요.” ◆





KLPGA를 통해 찾은 내일의 희망

자라비 분찬트

2025시즌 새로운 루키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누구보다 눈에 띄는 얼굴이 있다. 바로 태국 출신의 선수 자라비 분찬트다. 그동안 꿈꿔왔던 정규투어 무대에서 활약을 다짐하며 큰 희망으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Embracing Korean Culture and Tour Life

Rising golf talent Jaravee Boonchant, from Bangkok, Thailand, has secured her spot on the 2025 KLPGA Tour after finishing 16th at the 2025 Qualifying School(Q-School). A former standout at Duke University, where she led her team to an NCAA Championship as a full scholarship athlete, Boonchant has already shown flashes of brilliance. She claimed victory at the 2022 Epson Tour Championship and has been sponsored by Hana Financial Group since 2021, supporting her journey through professional golf. In 2024, she made headlines with a T6 finish at the KLPGA Hana Financial Group Championship.

“I love playing in Korea,” Boonchant said. “There’s so much energy on the course and off. The fans bring so much passion to the tournaments, and by the weekend, the galleries are buzzing. And honestly, I always look forward to deciding where and what to eat after a round.”

Boonchant has developed a strong fondness for Korean food, which she says has helped her eat more vegetables a surprising twist for someone who typically avoids them. “Korean food just makes me feel healthier,” she laughed. She’s also

한국 음식과 문화를 즐기는 투어 생활

2025시즌 정규투어 출전권을 놓고 열린 ‘KLPGA 2025 정규투어 시드순위전(Q-스쿨)’에서 태국의 신예 프로골퍼 자라비 분찬트가 16위에 올라 정규투어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태국 방콕에서 태어난 자라비 분찬트는 15세 때 미국으로 건너가 듀크대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챔피언십 단체전 우승을 이끌었고, 2022년 LPGA 2부 투어인 엡손 투어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21년부터는 하나금융그룹과 후원 계약을 맺어 투어 활동을 지원받고 있다. 2024시즌에는 KLPGA투어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에 출전해 공동 8위에 올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저는 한국에서 플레이할 때마다 항상 즐겁게 경기했다고 기억해요. 필드 위에서 경기를 하거나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모두 즐기고 있어요. 많은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들을 위해 응원하러 오고 주말이 되면 더 많은 갤러리들이 골프장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경기를 더 재미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특히 경기가 끝나고 어디에서 무엇을 먹을지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자라비 분찬트는 한국 음식을 상당히 좋아한다. 채소를 별로 즐기지 않는 식성을 갖고 있지만 한국 음식을 먹으며 많은 채소를 먹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한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기분이다.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K-팝과 K-드라마 역시 좋아하는데 2024시즌이 끝나면 더 많은 드라마를 몰아 볼 계획이다.

A New Chapter on the KLPGA Tour

Jaravee Boonchant

2025시즌을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정비

처음 한국행을 도전하기까지 결정은 쉽지 않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고향인 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뒤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많은 부분 미국에서의 생활이 상당히 익숙해진 상태였다. 한국투어에 진출한다는 것은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필드 환경도 미국과는 사뭇 달랐다. 한국 골프장의 대부분 코스는 언덕이 많다. 높낮이가 다른 다양한 언덕에서 치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했다. 골프 외적으로 머물 집과 코치, 피트니스 트레이너, 식사 장소 등을 찾아야 하는 등 새로운 도전 요소들이 많았다.

“2024시즌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 기뻐요. 저는 그래도 2023시즌보다는 더 성장했다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싶어요. 이전에는 거의 경험해본 적이 없는 한국에서 경기를 하면서 좀 더 코스 공략에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했는데요. 이런 경험들은 제가 골프에 가진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과거에는 골프에서 좋은 결과를 내려면 그린 상태와 퍼트감 등 여러 가지가 완벽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기하면서 버디를 하는 방법은 여러 환경에서 다양하다는 것을 2024년 깨닫게 되었다. 수풀속에서 거칠게 칠 때도 있고 칩샷으로 버디를 할 때도 있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니 더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고 골프를 더 즐길 수 있었다.

2025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이번 겨울에도 많은 준비를 할 예정이다. 지난 시즌 동안 코치와 함께 스윙 연습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2024시즌을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스윙을 좀 더 견고하게 가다듬고, 한국의 코스들이 주로 언덕이 많고 잔디가 우거진 상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클럽 피팅에서도 한국 코스에 맞도록 변화를 줄 계획이다.

“새로운 시즌 KLPGA에서 우승하려면 쇼트게임을 포함해 많은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데요. 스윙 연습을 열심히 해서 확고한 실력을 갖추도록 할 생각이에요.”

최근 태국은 뛰어난 골프 선수들이 배출되며 세계적으로 태국여자골프의 파위를 보여주고 있다. 태국의 박세리로 불리며 LPGA 통산 12승을 거둔 에리야 쭈타누깐, 2021년 LPGA투어 신인상을 수상한 패티 타와타나킷, LPGA에서 2승을 올린 아티야 티피꾼 등이다. 태국여자골프의 강세 흐름 속에서 신예 선수에 속하는 자라비 분찬트 역시 다가오는 2025시즌 새롭게 도약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

a fan of K-pop and K-dramas and plans to catch up on her favorite series after the 2024 season.

A Fresh Start for the 2025 Season

Transitioning to the KLPGA wasn’t an easy decision for Boonchant. Having spent 11 years in the U.S. after moving there in high school, she was deeply rooted in American culture. Joining the KLPGA meant starting over?much like her move to the U.S. and adjusting to a completely different environment.

“Korea’s courses are so different,” she explained. “There’s a lot more elevation and variety in the terrain, so I had to put in extra practice to get comfortable hitting from uneven lies. Beyond that, finding a place to live, a coach, a fitness trainer, and even figuring out where to eat were all part of the challenge.”

Despite the hurdles, Boonchant feels she’s grown tremendously. “The 2024 season had its ups and downs, but I’m proud of how I finished. Compared to 2023, I’ve matured as a player. Competing in Korea forced me to think more creatively about my approach to the game, and that’s changed my mindset completely.”

She admitted that in the past, she believed everything greens, putting, conditions had to be perfect to achieve good results. But her experience in Korea taught her otherwise. “Birdies can come in all sorts of ways sometimes it’s a rough shot from the bushes or a chip-in from around the green. Realizing that freed me to play more naturally and, most importantly, enjoy the game.”

With 2025 on the horizon, Boonchant is using the offseason to prepare. Her strong start to 2024 came after an intense winter of swing practice, and she plans to build on that momentum. “Korean courses are known for their hills and thick grass, so I’m adjusting my club fittings and fine-tuning my swing to adapt to those conditions.”

“To win on the KLPGA, I know I need to sharpen every aspect of my game, especially my short game. I’m committed to putting in the work this winter to make that happen,” she said confidently.

Thailand continues to cement its place as a powerhouse in women’s golf, with stars like Ariya Jutanugarn, who boasts 12 LPGA wins, Patty Tavatanakit, the 2021 LPGA Rookie of the Year, and Atthaya Thitikul, who has already claimed two LPGA titles.

Boonchant is part of this new wave of Thai talent, ready to leave her mark on the global stage. As she gears up for the 2025 KLPGA season, her fans both in Thailand and beyond are eager to see what’s next for this rising star. ◆

김해림의 어드바이스

현명한 은퇴를 위한 준비

선수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한 번쯤 '은퇴'에 대한 고민을 하기 마련이다. 최선을 다해 선수생활을 하고 이제 지도자로 제2의 골프인생에 도전 중인 김해림이 후배들에게 현명한 은퇴에 대해 조언을 들려준다.



지난 2024년 10월 24일 KLPGA투어 '덕신EPC ·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1라운드를 마치고 은퇴식을 하셨습니다.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세요? 대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수들이 은퇴 축하를 위해 모여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며 '내가 적어도 후배들에게 나쁜 선배는 아니었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웃음) 함께 눈물 짓고 축하해주는 후배들에게 너무 감동했어요. 마지막 조였던 선수들은 경기 중이라 은퇴식에 참여를 못하다며 다음 날 편지까지 써서 찾아왔어요.

은퇴 시점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은퇴 시기를 고려하며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2년 전 무렵부터 은퇴를 해야 할지 아니면 경기를 더 해야 할지 마음 속으로 고민이 많았어요. 마음이 계속 오락가락하며 흔들렸는데요. 경기에 나가 플레이하는데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자연스레 성적도 따라주지 않았어요. 2024 시즌 하반기 들어서는 확실하게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은퇴 후 삼천리 스포츠단의 지도자로 변신해 후배 양성에 힘쓰겠다고 하셨는데요. 아직 많은 시간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선수에서 지도자로 활동하시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이제는 제가 코치로서 골프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아닌 선수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하는 입장인데요. 선수 뒤에서 묵묵히 서포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달라진 점 같아요.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이제는 뒤쪽에 가려져 있지만, 제가 가르치는 선수가 주인공이 되어 스타가 되면 또 다른 뿌듯함과 감사함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30대를 넘어 점점 은퇴에 대한 고민을 하는 선수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은퇴를 고려하는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건네고 싶으세요? 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랫동안 선수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수생활을 경험해본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건 선수일 때 가장 빛난다는 사실이에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지도자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교육을 듣고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이제 그동안의 배움과 경험이 합쳐지면서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인간미 있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선수들을 사업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면 좋겠어요.

2009년부터 KLPGA투어에서 활동하며 약 16년간 341개 대회에 출전했는데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3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오픈'에서 3연패를 하고, 메이저대회인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는 2016년과 2017년 연이어 우승을 차지하셨습니다. 어떤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2016년 '제3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오픈'에서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는데요. 투어 입회 9년 만의 첫 우승이었어요. 첫 승 물꼬를 튼 다음에는 3연패를 달성하며 단일 대회 3연패라는 기록도 달성했어요. 김해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회인 것 같아서 가장 기억에 남아요.

KLPGA투어 역사상 3번째로 '동일 대회 3연패'라는 기록을 달성했고, 2023년에는 역대 6번째로 'KLPGA 정규투어 300경기 출전' 기록을 달성했어요. 또 KLPGA 최초로 역대 최장 기간인 '12년 연속 상금 1억 원 획득 선수'에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선수 시절 누구보다 뛰어난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꾸준함'이 비결이었다고 생각해요. 골프를 꾸준히 좋아했고, 한결같이 연습했어요. 계속해서 연구하고 집요하게 묻고 늘어져 좋은 기록들을 선물로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은퇴식에는 역대급으로 많은 선수들이 참여했는데요. 소감이 어떠셨어요? 서연정 선수가 공식연습일 서프라이즈로 커피차를 보내준 것도 감동이었어요. 삼천리 스포츠단에서도 1라운드부터 최종라운드까지 미리 계산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기념해주신 것도 감사해요. 후배들의 깜짝 선물과 편지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받을 자격이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동료들이 기념해줬어요.

다시 선수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하고 싶으세요? 지금 다시 골프를 해도 정확하게 샷을 치는 건 자신이 있는 편이에요. 요즘 코스 길이가 길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비거리를 늘리는 훈련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오랫동안 투어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나만의 건강 팀이 있나요? 가리는 것 없이 골고루 잘 먹고 체력훈련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투어를 오래 뛸 수 있는 방법은 골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라도 기회의 문은 열려 있다고 봐요. 저도 부상만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계속 선수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요즘 주니어선수들을 보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보통 어른들이 "요즘 MZ세대는 원래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골프선수는 각 개인이 하나의 사업체 대표에 비유할 수 있다고 봐요. 사업이 잘 되다가도 결국 인성문제로 논란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잖아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성은 아무리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어도 잘 갖추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평소에 인성을 강조하는 편이에요.

은퇴를 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하기를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나요? 골프의 매력은 1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스스로 인내하고 싸워야 된다는 점이에요. 아무도 대신 싸워줄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말할 수 없을 만큼 뿌듯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코치로서 2025년 목표는 무엇인가요? 코치로서는 2025년이 루키 시즌인 셈인데요. 결과로 빨리 뭘 입증해 보이겠다는 조금한 마음보다는, 신입 코치로 활동하며 천천히 달려나갈 생각이예요. 시즌을 보내며 좀 더 자신감이 붙고 속도를 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페이스를 올려보기도 하고 너무 앞서나간다면 속도를 줄이기도 하면서 루키 시즌을 즐겨보려고요. 선수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에요. 연습할 때 실전처럼 몰입해서 하고, 실전에서는 연습한대로 즐기며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



KLPGA 프로들을 위한 은퇴 후 코칭
골프장 업무

1년에도 수없이 많은 경기와 연습을 위해 골프장을 찾는
KLPGA 선수들. 누구보다 골프장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선수들에게 골프장에서의 일은 제2의 도전이 될 수 있다.

선수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빛나는 공간 골프장

수없이 많은 경기 참여를 위해 경기장을 찾는 선수들에게 골프장
만큼 친숙한 공간이 없다. 어린 시절부터 골프선수가 되기 위해
골프장에서 연습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만큼 골프장은
선수들의 은퇴 후 제2의 도전 무대가 되기에 가장 유리한 곳이다.
2024시즌 KLPGA투어 ‘롯데 오픈’과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이
펼쳐진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의 오선효 총지배인은
LPGA투어 선수 출신이다. 한국 주니어대회에서 우승한 뒤 미국
으로 유학, 라스베이거스 네바다주립대에 진학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10여 차례 우승컵을 들었고, 2002년에는 미국 서부지역 최
우수 여자 선수권상을 수상했다. 2004년 프로로 전향했지만 뜻밖
의 교통사고로 심한 부상을 당한 후 골프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되

었다. 2009년 US여자오픈에서 팔꿈치를 다친 그는 스승인 부치
하먼이 골프장에 추천서를 써주며 인생이 바뀌었다. 주니어 시절
을 보낸 로스앤젤레스 롤링힐스골프장에서 매니저로 근무를 시
작했는데 대학 때 전공한 호텔경영학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
다. 롤링힐스골프장에 견학 온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 개설
준비요원들에게 자문을 해준 인연으로 귀국길에 올라 개업과 함
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는 한 기사에서 “프로 선수
라면 골프에 관한 최고 전문가”라며 국내 프로 골프선수들에게
골프장 경영이라는 새로운 진로에 도전해볼 것”을 이야기했다.
블루헤런 골프 클럽의 경영지원파트 최재훈 대리는 “KLPGA 선
수들이 아무래도 다양한 골프클럽을 많이 방문한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골프장 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며 다른 골프장의 좋
은 점 등을 접목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방면에서 선수들이
많은 골프장을 다닌 경험과 각 골프장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능력
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수원CC의 총무부
전강표 부장은 “행사기획팀의 경우 KLPGA 선수 출신이라면 스
타 플레이어로 고객 유치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
경기운영팀에는 남자 직원들의 경우 골프선수 출신들이 몇 있다”
라고 했다.
골프장의 경우, 해당 골프장의 매출이 오르거나 명문 구장이라는
입소문이 나고 골퍼들에게 좋은 골프장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가
장 좋은 만큼, 스타 플레이어 출신의 선수들이 골프장에 근무하
며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골
프장 업무들은 기본적인 업무 지식이 필요하고 조직 안에서 다른
직원들과 손발을 맞춰 일해야 하기 때문에 협업에 대한 이해와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잘 맞아야 한다.

골프장 근무에 필요한 필수조건은?

골프장 매니저나 파트장 정도의 직급이 되려면 기본 이상의 골프
이해도를 갖춰야 하고, 골프장에서 요구되는 경기 운영 방식, 고
객 입장에서 요구하는 경기 운영 방식 모두 파악할 수 있어야 한
다. 또 골프 규정에 대해 잘 알며, 해당 골프장의 골프 코스에 대
한 높은 이해도, 신입 캐디를 교육할 수 있는 자질이 요구된다.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과의 의사소통 능력
도 필수다.
골프장마다 팀 구성은 조금씩 다르다. 대부분은 회사 운영에 대
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팀, 코스 잔디를 관리하는
코스관리팀, 경기 진행과 캐디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경기진행
팀, 현관, 로커 담당의 서비스팀, 업장 내 시설물 관리를 하는 시
설팀, 레스토랑 및 그늘집 담당부서인 식음조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수들이 골프장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양하지만 경기
운영팀과 행사기획팀이 가장 유력하다. 경기운영 매니저 혹은 경
기운영 파트장의 경우, 실제 골프 경기가 열릴 때 경기를 진행하
고 캐디 관리, 플레이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 등의 업무가 주어
지는데, 골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업무인 만큼 실제로 남자 선
수들은 은퇴 후 근무하는 경우가 꽤 많다. KLPGA 경기 역시 경
기운영팀에서 경기를 골프장과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단
실제 손님들의 예약 업무나 손님 관리, 조직 관리, 클레임 관리,
경기 룰 인지 등의 업무를 진행해야 하므로 일에 필요한 기본적
인 업무 소양은 따로 배워야 한다.
매니저나 지배인의 경우에는 서비스 업무가 대부분이다. 레스토랑
관리까지 겸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다른 팀들과 손발을 맞추
고, 조직을 관리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행사기획팀의 경우에는
행사의 세부적인 기획을 짜고, 다른 팀들과의 협조를 구해야 하
는 등의 업무로 행사 기획 능력과 리더십 등의 능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골프장 업무를 해보고 싶다면 일정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체2급(골프)
이상의 자격증이다. 골프장마다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자격
증으로 2025년 상반기부터는 권고사항에 해당된다. 추가적으로
코스관리사 자격증도 소지한다면 다른 이들보다 장점으로 부각
되는 요소가 될 것이다. 골프장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유리하게
보기 때문에 국내나 해외 골프장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조금이라
도 있다면 파트장 급으로 근무하는 데 더욱 유리할 것이다. ◆





유전자검사로 나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제노플랜

지금까지 건강관리라고 하면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다였다. 그러나 내가 가진 유전자를 파악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건강관리가 가능하다는 사실!

사람들마다 생김새가 다르듯 고유의 생활습관이나 타고난 체형, 질병 위험도도 다르다. 타인과 다른 나만의 유전자, 바로 DNA 때문이다. 사람들은 유전자검사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단순히 친자 확인에나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유전자검사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다.

건강관리 솔루션의 시작 제노플랜엑스 유전자검사

사람은 약 1% 이하의 유전적 차이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유전적인 차이는 모발의 타입이나 키처럼 외형적인 차이로 나타난다. 부모님이 키가 크고 곱슬머리의 경우 유전적으로 키가 크고 곱슬머리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유전적인 차이는 외형적인 것보다 건강상의 문제에서 더 큰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바로 당뇨나 치매와 같은 질환에 대해 어떤 취약성이 있는지, 특정 약물에 대한 반응성처럼 건강상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내가 유전적인 병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이런 유전적인 기질이 발현되지 않은 경우 파악을 하고 있기가 쉽지 않다. 좀 더 건강하게 내 몸과 유전적인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노플랜엑스 유전자검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 제노플랜엑스 유전자검사는 개개인의 유전자가 갖고 있는 잠재성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균형 잡힌 영양부터 규칙적인 운동까지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단, 개인의 특성과 건강상태는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생활습관과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전자검사만으로 현재와 미래의 상태를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노플랜엑스 유전자검사 항목

- **건강관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비만,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등
- **운동** 유산소운동 적합성, 근력운동 적합성, 근육발달 능력 등
- **식습관** 식욕, 포만감, 단맛 민감도, 짭맛 민감도 등
- **수면습관** 수면습관 · 시간, 불면증, 아침형 · 저녁형 인간, 코골이
- **개인특성** 머리, 보행 속도, 눈 색깔, 알코올 대사, 알코올 의존성 등
- **피부 · 모발** 피부 노화, 여드름 발생, 피부 염증, 탄살 · 각질, 색소침착 등
- **영양소** 비타민 A 농도, 비타민 C 농도, 비타민 B6 농도 등
- **혈통분석** 민족 구성, 모계 혈통



제노플렉스 유전자검사, 얼마나 믿을 만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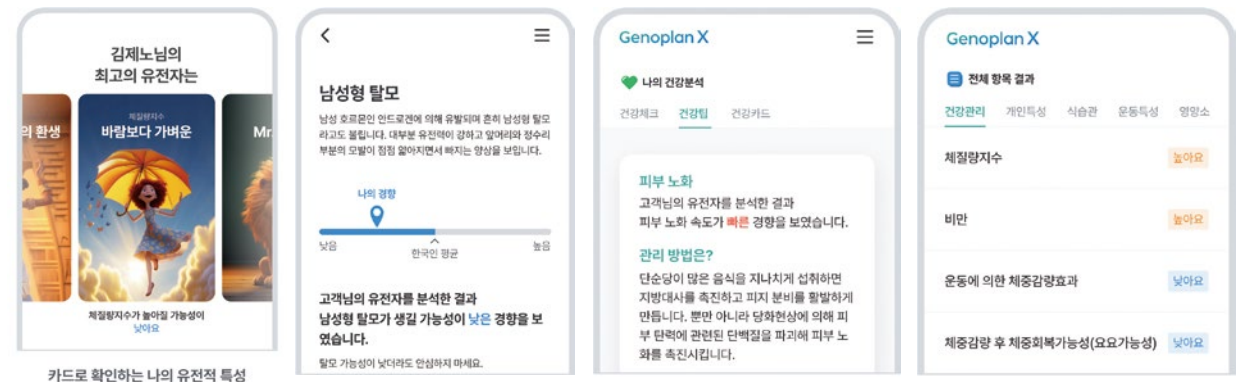
제노플렉스의 생명과학 전문가들은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전자를 선별하고 분석한다. 또 매일 발표되는 방대한 양의 최신 연구 결과를 수집하고 분석해 리포트에 반영하고 있다. 제노플렉스의 유전자검사는 그럼 얼마나 정확할까? 아시아인 대상의 연구 결과를 우선적으로 참고해 유전자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아시아인에게 최적화된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검증된 Illumina 사의 자동화 시스템 장비를 사용해 유전자 분석의 정확도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분석의 전 과정이 추적 및 관리되는 LIMS(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실험실 정보 운영 시스템)를 도입, 분석 결과의 높은 퀄리티와 신뢰도를 보장한다.

유전자검사와 건강검진의 차이

건강검진은 현재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학적 진단을 의미한다. 제노플렉스 유전자검사는 진단의 목적이 아니라 과학적, 임상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예측검사다. 유전자검사를 통해 자신의 유전적인 경향을 바로 이해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다면 유전자 분석 검사 결과는 어떻게 분석하는 것일까? 다중 유전자 분석법은 개인적 특징(모발 굵기, 체질량지수)에 관련이 높다고 알려진 여러 유전자 마커를 활용한다. 마커란 곧 DNA에서의

위치를 의미하는데 그 위치에서 개인이 어떤 유전자를 가졌는지 파악하고 한국인의 특성을 감안한 계산을 통해 유전적 경향성을 이끌어낸다. 대개 그 유전인들이 가진 영향력이 수치로 표현되는데, 이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알고리즘을 통해 조정하거나 영향력 수치를 생략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기도 한다. 가령 ‘혈압’에 대한 분석에서는 혈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여러 유전인자를 고객이 얼마나 가졌는지 파악한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유전인자 분포를 감안한 계산을 통해 ‘유전적으로’ 혈압이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를 판정한다. 이런 정보들은 상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보안이 우려될 수 있다. 모든 검사로 얻은 개인의 유전자 정보는 개인정보 정책에 따라 암호화, 익명화 처리되며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개인식별정보는 이중으로 보안처리해 유전정보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한다. 분석 데이터는 고객의 동의하에 익명화 프로세스를 거쳐 의학적 연구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된다. 단, 암이나 질병과 같은 질병예측 유전자검사는 병의원을 통해 의뢰 받을 시 시행할 수 있고,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수다. ◆



HOT ISSUE

KLPGA 공식 유전자검사 서비스 서플라이어 조인식



KLPGT, 제노플랜코리아와 공식 유전자검사 서플라이어 협약 체결

2024년 9월 4일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T)와 제노플랜코리아(주)가 공식 유전자검사 서플라이어 협약을 체결했다. 제노플랜은 유전자 데이터를 통해 개인에게 적합한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최신 유전자 분석 기술을 이용해 개인별 건강 최적화와 질병 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정규, 드림, 점프, 챔피언스투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제노플랜코리아의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강병규 제노플랜 총괄대표는 “KLPGA 공식 서플라이어로서 제노플랜의 첨단 유전자 분석 기술로 KLPGA 회원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와 운동 능력 개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선수 개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KLPGA 선수들이 국내외 무대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시즌을 위해 달린다!
루키 선수들의 ____ 전지훈련

2025시즌을 위해 누구보다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루키 선수들.
2024시즌 드림투어 상금순위 20위 안에 든 선수들은 이번 겨울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2025시즌 신인상을 목표로 파이팅
2024시즌 드림투어 상금순위 1위 ▶ 송은아
상금왕에 오르며 2024시즌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송은아. ‘KLPGA 2024 드림투어 with 삼일제약 5차전’과 ‘KLPGA 2024 군산 드림투어 14차전’에서 우승을 차지해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송은아는 태국을 동계훈련 장소로 정했다. 태국의 베스트 오션 골프클럽에서 그동안 부족했다고 여겼던 쇼트게임과 트러블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에 임하고 있다. 지금도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 주지만, 매 연습 라운드에서 기복 없이 스코어를 유지해 실전 감각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겨울 시즌 정말 열심히 준비해 정규투어에서 시즌 1승 이상과 신인상을 수상하는 게 목표예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생년월일 2002년 6월 12일 입회 연도 2021년 9월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강점 만들기
2024시즌 드림투어 상금순위 7위 ▶ 박지혜3
2024시즌 드림투어에서 준우승을 3번 차지하며 아쉬움을 남겼던 박지혜3. 그는 정규투어 무대를 앞두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부족한 점들을 채워가며 후회 없는 루키 시즌을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프로로서 첫 시즌이기 때문에 더 많은 배움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확신해요. 매 샷에 집중하고 그동안의 노력들이 경기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태국에서 두 달 동안 훈련 중인 박지혜3는 100야드 이내 피치샷에 집중하며 정확한 거리 계산과 거리에 맞는 다양한 샷을 구사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태국에서 박지혜3는 더 높은 목표를 위해 성장의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생년월일 2005년 6월 30일 입회 연도 2023년 9월



정규투어 좋은 성적을 위한 쇼트게임 훈련
2024시즌 드림투어 상금순위 10위 ▶ 서교림
2024시즌 드림투어에 입성하자마자 준우승을 두 차례 거두며 2025시즌 정규투어 폴시드 획득에 성공하는 등 성장세가 빠른 슈퍼루키 서교림. 이번 동계훈련지를 뉴질랜드의 클레이워터 골프 클럽으로 정하고 그린 주변의 다양한 쇼트게임과 퍼트를 강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골프를 할 때 쇼트게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쇼트게임 훈련을 강화해 좋은 성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전지훈련이 저에게는 단순한 연습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2025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투어 생활의 성공적인 첫 스타트를 위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생년월일 2006년 8월 2일 입회 연도 2024년 8월



훈련과 개인 시간의 밸런스 맞추며 연습 중
2024시즌 드림투어 상금순위 13위 ▶ 강정현
‘KLPGA 2024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19차전’에서 연장 승부 끝에 우승을 차지했던 강정현은 정규투어에서도 자신감 넘치고 유쾌하게 경기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고 우승 소감을 이야기했다. 루키 시즌을 앞두고 강정현은 국내에서 꾸준한 성적을 내기 위해 컨디션 관리를 우선순위에 두며 체력훈련을 열심히 하는 중이다. “실제 경기에서 많은 버디 찬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100m 안쪽 거리를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있어요. 날씨가 추울 때는 실내에서 스윙 연습에 주력하고 있어요.” 겨울 동안 훈련도 열심히 하지만 개인 활동도 즐기고 있다. 시즌 중에는 좀처럼 하지 못했던 뮤지컬 감상이나 여행 등의 취미활동을 즐기며 알차게 이번 겨울을 보내는 중이다.
생년월일 2003년 12월 13일 입회 연도 2022년 8월

꿈의 정규투어를 위한 행복한 훈련

2024시즌 드림투어 상금순위 14위 ▶ 윤혜림

따뜻한 남쪽 광주를 동계훈련 장소로 정한 윤혜림은 체력 훈련에 집중하며 2025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무엇보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부상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 과거 훈련에서 더 좋은 컨디션을 위해 열심히 체력훈련에 집중했더니 막상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체력을 강하게 끌어 올려 1년 내내 고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실제 경기에서는 쇼트게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프로치 연습을 많이 하며 보완하고 있어요. 정규투어는 빠른 그린과 러프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긴 잔디에 적응하는 샷도 연습하고 있어요.” 그동안 드림투어에 오래 있던 만큼 2025시즌 정규투어의 꿈이 이루어져 특별한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윤혜림. 그는 이제 1년 내내 정규투어의 매 경기를 즐기며 행복한 시즌을 보낼 준비 중이다.

생년월일 1997년 5월 4일 입회 연도 2016년 7월



태국 프로들이 선택한 골프장에서 맹연습

2024시즌 드림투어 상금순위 17위 ▶ 황민정

황민정은 아버지가 목포에서 운영하는 황스골프아카데미 학생들과 2025시즌부터 캐디를 맡은 친오빠와 함께 태국 콘텐 싱하파크CC로 전지훈련을 떠났다. 태국의 국가대표 선수나 싱하 소속 프로들이 연습하는 골프장이라 코스 컨디션이나 연습환경이 매우 뛰어난 곳이다. “2024시즌 경기를 치르면서 부족했거나 아쉬웠던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중인데요. 정규투어에 잘 적응하기 위해 클럽별 탄도연습을 주로 하고 있어요. 쇼트게임이나 체력 보강 훈련도 빼놓지 않아요.” 2025시즌을 위해 열심히 훈련하는 와중에도 휴식을 중요하게 여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라운딩과 연습으로 스케줄이 가득하지만, 일요일에는 쉬는 데 집중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짱구 만화도 보면서 힐링하는 시간도 소중하다.

생년월일 2001년 2월 28일 입회 연도 2019년 6월



정규투어 적응을 위해 체력훈련에 집중

2024시즌 드림투어 상금순위 15위 ▶ 한빛나

이번 전지훈련이 후회 없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한빛나는 6주간 미국 캘리포니아로 떠났다. 정규투어 데뷔를 앞두고 드림투어와 다른 코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습할 예정이라고. “정규투어의 빠른 그린에 적응하기 위해 쇼트게임 연습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드라이버 거리도 조금 부족하다고 여겨 비거리를 늘리고, 골프 연습 못지않게 체력훈련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할 생각이에요.” 정규투어에서는 강한 체력이 필수라고 판단해 이 부분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2025시즌에 모든 걸 쏟아붓고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한빛나는 2025시즌을 최고로 맞이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중이다.

생년월일 1999년 5월 27일 입회 연도 2017년 9월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채우기

2024시즌 드림투어 상금순위 20위 ▶ 조이안

아마추어 시절 각종 대회를 휩쓸며 두각을 나타낸 조이안은 KLPGA 입회 2개월 만에 점프투어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2025시즌 그의 목표는 “기본기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모든 샷을 완벽하게 구사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팜스프링스에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플레이를 하는 중에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빠르게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것을 습관화하고 싶다.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끝까지 부상 없이 최대한 많은 양의 훈련을 소화해 루키 시즌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루키 시즌에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 나은 시즌을 준비하는 그는 이번 겨울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생년월일 2004년 9월 16일 입회 연도 2023년 6월



켈피TV 핫 프로그램 가이드

이번 시즌 끝맺음으로 더욱 가득한 켈피TV. 아직도 안 보셨다고요? 선수들의 시상식 백스테이지
생생한 현장부터 매력 가득 선수 인터뷰까지 놓칠 수 없는 재미가 가득해요.

시상식 백스테이지 인터뷰



2024 시즌 피날레 축제 대상 시상식 날 미처
담아내지 못한 선수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켈피TV에서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수상 인터뷰와는 사뭇 다른 선수들의
백스테이지 인터뷰! 이게 real이지!

게릴라 인터뷰 2,3편



켈피TV에서만 만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KLPGA 선수들의 매력 발산 타임!

- ▶ 2편: 고지우, 최예림, 임진영, 유현조 선수가
전하는 특별한 인터뷰
- ▶ 3편: 김민별, 이예원, 박결, 이정민 선수가
전하는 세상 하나뿐인 특별 인터뷰

선수들이 전하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 go go

티나토크 인터뷰 1, 2, 3편

차 한잔의 여유와 함께 즐기는 찐친들의
솔직 담백한 토크 타임!



- ▶ 1편: KLPGA 찐친들의
에피소드 대방출!
'Tea 나눈 토크 1편'
- ▶ 2편: 골프장 밖에서는
'소녀감성?! KLPGA 0년생들
의 반전 매력!'
'Tea 나눈 토크 2편'
- ▶ 3편: '같은 팀이라고 알팔
없다' 솔직 털털
그녀들의 매력 토크 타임~
'Tea 나눈 토크 3편'

릴스 하이라이트



POINT1 시드순위전 비하인드 스토리	POINT2 켈피TV는 사랑을 살고 지한솔-방신실 영상편지	POINT3 달맞이꽃
------------------------------------	--	-----------------------

tv.naver.com/klpgatv
www.youtube.com/@klpgatour



크셜로 새롭게 NEW 칠성사이다



제조·판매: 롯데칠성음료(주) |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회원맞춤형교육 공지문]

❑ 외국어교육과정

가. 파고다어학원

구분	내용
장소	• 강남점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6-6, 7 파고다어학원(T.02-2051-4000) • 종로점 :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56-6(T.02-2274-4000) • 신촌점 : 서울시 서대문구 청천동 20-41 아남인베스텔 3층(T.02-717-4000) • 부산점 : 부산시 진구 부전2동 232-2(T.051-802-4001)
지원내용 · 비용	총 90% 교육비 할인 (매달 1강좌 파고다어학원 70%* 할인 + 추가 협회지원 20% 할인 = 총 90% 할인 및 자부담 10%만 결제) ※ 수강료 50만 원 이상 강좌의 경우 • 50만 원 기준으로 70% 금액 할인(ex: 50만 원에서 70% 할인받아 35만 원 결제) • 50만 원 이상일 경우, 차액 결제(ex: 수강료 70만 원일 경우, 할인 받은 금액 + 20만 원 차액 결제) ※ 기타 할인&쿠폰 중복 할인 불가
신청방법	지점별 등록처 직접 방문 신청(회원증 지참 필수) / 지점별 강좌 홈페이지 참고(www.pagoda21.com)
문의	지점별 학원으로 문의
기타	본인이 아닌 대리인 수강이 적발될 경우 : 지원 영구 중단 ※ 대리인 : 가족, 친인척, 친구 등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나. 파고다인강

구분	내용
장소	파고다인강(파고다스타) (www.pagodastar.com)
지원내용 · 비용	매달 온라인 파고다인강 1강좌 50% 할인 ※ 제외 수강 과목 : GRE, 점수보장반, 환급반, 중국어강사양성과정, 원데이클래스, 챌린지, 온라인라이트클래스 제외 ※ 교재 증정 및 응시료 환급 제외 ※ 기타 할인&쿠폰 중복 할인 불가
신청방법	이메일(pagodastar@pagoda21.com) 또는 팩스(02-533-8066)(KLPGA 회원증 사본, 신분증 사본, 할인신청서* 제출) *할인신청서 [KLPGA 홈페이지 → 정보센터 → 회원혜택(교육서비스) → 파고다어학원 참조]
문의	파고다어학원(02-6907-2489)
기타	본인이 아닌 대리인 수강이 적발될 경우 : 지원 영구 중단 ※ 대리인 : 가족, 친인척, 친구 등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다. 전화외국어 / 화상외국어 교육

구분	내용
일정	• 전화외국어 : 1회 10분 / 주 2~3회 • 화상외국어 : 1회 20분 / 주 2회
비용	협회 지원
과목	투어프로 골프영어, 레슨프로 골프영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기타외국어(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
인원	• 전화외국어 : 80명 • 화상외국어 : 10명
신청방법	매년 3, 6, 9, 12월에 신청자 모집 [KLPGA 홈페이지 → KLPGA 뉴스 공지 참조] https://www.npagodataalk.com/w/klpga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3월(4월~6월 교육), 6월(7월~9월 교육), 9월(10월~12월 교육), 12월(1월~3월 교육)
기타사항	본인이 아닌 대리인 수강이 적발될 경우 : 지원 영구 중단 ※ 대리인 : 가족, 친인척, 친구 등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 인문소양과정

구분	내용	
주제	리더스포럼	수지행수요일에 만나는 지혜의 향연)
내용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 오피니언 리더의 트렌드 특강으로 정부기관, 대기업 핵심인재 등 700여 명 참가	역사, 예술, 철학 등 분야별 최고의 석학들을 통해 삶의 성장과 해안을 얻는 특강
일정	2월 7일(금) 06:40 ~ 09:00 (조찬식사 제공)	2월 5일(수), 3월 5일(수)
장소	롯데호텔 월드(송파구 잠실동) 3F 크리스탈 볼룸	노보텔 엠베서더 2F 샴페인홀
비용	협회 지원	
인원	선착순 30명	선착순 11명
신청	https://edu.klpga.co.kr/main.do 로그인(협회 홈페이지 ID/PW 동일) 후 개별 신청	

❑ 문화교양과정

구분	내용
장소	전국 34개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일정	• 봄학기 (03월~05월) → 01월 ~ 02월 모집 • 가을학기(09월~11월) → 07월 ~ 08월 모집 • 여름학기(06월~08월) → 04월 ~ 05월 모집 • 겨울학기(12월~02월) → 10월 ~ 11월 모집
비용	학기당 1개 과정 수강료 지원(15만 원 이하 정기강좌에 한함 / 재료비 및 교재비 본인 부담)
내용	라이프스타일, 건강/뷰티, 공예, 어학/인문, 음악/악기, 미술, 쿠킹, 육아, 교양 등
신청	https://culture.lotteshopping.com/index.do 통해서 수강 과정 선택 지점별 등록처 직접 방문 신청(회원증 지참 필수) ※ 당해 학기 과정 교육 취소 후 타 과정 재등록 불가

※ 문의 : KLPGA 사무국 서상덕 차장(☎02-560-4416 / sangduk.suh@googlemail.com), 유현규 과장(☎02-560-4427 /andy@klpga.com)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신청 후 무단 불참 시 1년간 교육 지원 중단

회비 미납으로 인한 제명자 KLPGA 회원 복원 불가 안내

2021년도 KLPGA 제5차 이사회('21.09.03.)에서 회비 장기 미납으로 인한 제명자 KLPGA 회원복원 불가 관련하여 의결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비 관련 규정

KLPGA 정관	제2장(회원) - 제8조(회원의 의무) 2항 본 회가 정한 일정의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회원) - 제10조(회원의 제명)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KLPGA 상벌분과 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 제15조(징계기준) 제5항(제명) 가. 회원 관련 2) 회원 중 2회(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회비를 미납한 경우 3) 협회에 납부 및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납부 및 지급 기간을 기산하여 1년간 내지 않았을 경우	
회비 미납으로 인한 제명자 KLPGA 회원 복원 처리	2023년 1월 1일부터 회원 복원 불가	근거 2021년 KLPGA 제5차 이사회(2021.09.03)

※ 문의사항 : KLPGA 사무국 박인섭(02-560-4423)



1 YOON INA

윤이나

랭킹 포인트 **11.1102**

합계 포인트 **388.86**

출전 대회 수 **25**



6

PARK HYUN KYUNG

박현경

랭킹 포인트

7.7885

합계 포인트

428.37

출전 대회 수

55



2

KIM SU JI

김수지

랭킹 포인트

9.5483

합계 포인트

486.96

출전 대회 수

51



7

YOO HYUN JO

유현조

랭킹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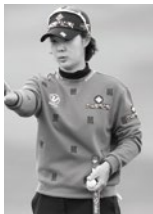
6.7250

합계 포인트

235.37

출전 대회 수

34



3

PARK JI YOUNG

박지영

랭킹 포인트

8.8922

합계 포인트

453.50

출전 대회 수

51



8

MA DASOM

마다솜

랭킹 포인트

6.3380

합계 포인트

361.27

출전 대회 수

57



4

LEE YE WON

이예원

랭킹 포인트

8.6805

합계 포인트

477.43

출전 대회 수

55



9

RO SEUNGHUI

노승희

랭킹 포인트

5.9855

합계 포인트

365.11

출전 대회 수

61



5

HWANG YOU MIN

황유민

랭킹 포인트

8.2870

합계 포인트

397.78

출전 대회 수

48



10

BAE SOHYUN

배소현

랭킹 포인트

5.9456

합계 포인트

338.90

출전 대회 수

57

2025년 2주 차

2025 K-RANKING

위메이드 대상 포인트 우수 선수

우승의 기쁨도 크지만 또 하나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위메이드 대상 포인트 월간 MVP로 선정되는 것이다. 'KLPGA 위메이드 대상 포인트'에서 월간 우수 선수로 선정되면 100만 원을 증정하고, 시즌 종료 후 KLPGA 대상 수상자에게는 2,000만 원을 보너스로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선수별 랭킹이 궁금하다면 위믹스 포인트 랭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10 OCTOBER

10월 우수 선수 김수지

김수지가 KLPGA투어 2024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제24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우승을 거두었다. 이번 우승으로 KLPGA 위메이드 대상에서 100포인트를 한 번에 획득할 수 있었다. 이후 상상인 · 한경 와우넷 오픈 2024에서 40포인트, S-OIL 챔피언십 2024에서 30포인트를 추가하며 누적 10월 대상 포인트 우수 선수로 선정되었다.



11 NOVEMBER

11월 우수 선수 마다솜

마다솜은 2024시즌 KLPGA투어 최종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위메이드 대상 포인트 100포인트를 획득해 11월 MVP로 선정되었다. 지난 11월 10일 열린 'SK텔레콤 · SK쉴더스 챔피언십 2024' 최종라운드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승을 달성한 마다솜은 이번 우승을 통해 시즌 3승과 통산 4승 쾌거를 이루었다.



2024년도 KLPGA

제5기 재능기부단



5기 재능기부단
안현미
(T0062)

저의 성장에 걸맞은 역할을 해주신 협회에 감사함을 느끼며 저 또한 누군가에게 미약하지만 걸맞은 역할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재능기부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협회의 타이틀로 아이들에게 골프라는 스포츠를 알릴 수 있어 자긍심으로 부듯합니다.

열심히 땀을 보여주고자 하는 아이들 모습에 저 또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무더운 교육장에서 열심히 따라와 주는 아이들을 위해 안전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5기 재능기부단
윤성현
(S0020)

기본적인 자세 또는 매너(에티켓)를 갖추지 못한 채 필드를 접하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동반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골프를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무한책임감을 느끼며 기회가 된다면 올바르게 가르치고자 하던 차, 재능기부단으로 활동하며 레슨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스런치처럼 흡수하는 유소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은 아쉬움이 크지만, 저와 학생들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며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5기 재능기부단
김명희
(00068)

5년 동안 KLPGA 재능기부단으로 활동해 보니 항상 보람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 학교를 다니며 학생들에게 재능기부로 레슨을 해보니 생각보다 스런치처럼 가르쳐주는 대로 받아들이고 잘 따라와 저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중1 여학생이 수업이 끝난 후 찾아와 골프가 너무 재미있다고 해주며, '내가 골프를 잘 전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5기 재능기부단
홍유정
(T0208)

KLPGA에서는 선생님, 학생들 모두 골프를 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주 진성초등학교에 실내골프연습장을 설립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골프가 어떤 운동인지 알릴 기회였고,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기술을 가르쳐주고 싶어 적년에 이어 올해까지 재능기부단에 참여하였습니다.

올해엔 처음으로 학생들이랑 필드를 나가게 되었는데, 앞으로 매년 학생들이 필드에서 더 좋은 경험을 하고 골프의 매력을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기 재능기부단
배명희
(00028)

설레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만나 사람으로 레슨을 하였고, 실력이 향상되는 학생들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부듯했습니다. 골프 선수로서 골프로 봉사할 수 있어 행복하며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해 줄 수 있음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재능기부단이 더욱 활성화되어 많은 회원분들이 이를 경험하며 더 많은 학생들에게 골프라는 좋은 기회를 선물하셨으면 합니다.



5기 재능기부단
김민선
(00444)

학생들과 선생님의 골프에 대한 열정이 어느 선수들과 다르지 않아 놀랐습니다. 친구들에게 골프 기술을 가르쳐 주며 저 또한 골프에 대한 열정이 새록새록 기억나고 다시 피아나는 기분입니다.

제 작은 노력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많은 회원님들께서 재능기부에 함께 하셔서 이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기 재능기부단
김효정
(00780)

불과 초 4, 5학년 정도의 어린아이가 나이에 비해 상당한 실력과 진지함을 갖췄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저의 나눔을 통해 많은 친구들이 골프를 더 즐겁고 편안하게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골프 골나우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 재능을 발견해서 훌륭한 선수로 성장해 우리 협회의 든든한 후배들이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5기 재능기부단
민아누
(01027)

좋은 기회에 재능기부에 참여하게 되어 설레는 마음을 안고 처음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학생들의 집중도와 재능에 놀랐고 제가 골프를 가르쳐주려 가셔 더 많은 애나지를 받고 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들이 이번 경험을 통해 골프라는 스포츠를 재미있고 좋은 기억으로 남기길 바랍니다.



5기 재능기부단
양지연
(00791)

처음으로 협회를 통하여 재능기부를 하니 성인분들 수업을 하다가 중학생 친구들 수업을 할 수 있어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하여 의미 있는 일을 많이 경험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재능기부가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기 재능기부단
서초비
(01291)

협회에서 받은 사랑과 관심, 배려 그리고 선배님들께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랐는데 좋은 기회로 동광중학교 골프부 재능기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골프 골나우로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동광고등학교 졸업생의 입장에서 부듯했으며, 모교라 그런지 더욱 애정을 갖고 한 명 한 명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2023년도와 2024년 재능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KLPGA 회원으로서 프로골프로 저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 년에 몇 번 안 되지만 아이들을 만나 소통하고 레슨 하는 시간이 저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년도엔 필드 레슨이 추가되었는데, 필드에 있는 4시간 동안 자연에 둘러싸여 웃고, 이야기 나누고, 레슨도 하니 힘든 줄도 모르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재능기부란 힐링과 감사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기 재능기부단
김지숙
(00146)



5기 재능기부단
최미숙
(00052)

재능기부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학교까지 가는 거리가 없지만,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어린 학생들이 즐거워하며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그 학생들과 함께 한 해를 뜻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5기 재능기부단
김보민
(00492)

좋은 기회로 접하게 된 재능기부단에서 미숙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색해하던 첫 만남이 있었다면 마지막 수업에선 아쉬움이 더 크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즐겁게 함께해주던 친구들과 잘 인솔해 주신 선생님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에 더 동참하고 활동하겠습니다.



5기 재능기부단
박현순
(00063)

재전 백운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의 골프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짧은 시간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없었지만 질서 있게 참여해 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이 있습니다.

KLPGA의 지속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멋진 선수가 탄생되길 소망합니다.



KLPGA TOUR NEWS

DREAM TOUR



'와우매니지먼트그룹 KLPGA 드림투어 2024 17차전'

황민정, 출신원과 함께 우승!

충청남도 부여군에 백제 컨트리클럽(파72/6,614야드)의 사비(OUT), 한성(IN) 코스에서 열린 '와우매니지먼트그룹 KLPGA 드림투어 2024 17차전(총상금 7,000만 원, 우승상금 1,050만 원)'에서 황민정(23)이 우승을 차지했다.

황민정은 "라이프 베스트인 7 언더파를 경신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세웠는데, 이를 달성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라면서 "출신원을 기록했을 때 '기회가 오면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더 집중했더니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드림투어, 송은아 상금왕 등극

2024 드림투어 상금왕의 영예는 올 시즌 2승을 거두며 꾸준한 경기력으로 상금 52,837,597원을 획득한 송은아(22)에게 돌아갔다. 송은아는 "2024년 초부터 목표로 했던 상금왕을 차지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면서 "2025년 정규투어에 가서 항상 성실하고 웃으면서 플레이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2025 KLPGA 정규투어 시드권을 차지하게 될 상

금순위 20위 이내의 선수도 모두 확정됐다. 상금왕 송은아와 왕중왕전 우승자 리슈잉에 이어 본 대회 공동 12위를 기록한 김효문(26)이 상금순위 3위를 기록했고, 황연세(21,LS)와 이지현3(26,비비안)가 뒤를 이었다. 총상금 2억 원이 내걸린 이번 대회에서 극적으로 2025 KLPGA 정규투어 시드권을 차지한 선수들도 탄생했다. 연장 승부를 펼친 서교림은 상금 2,100만 원을 추가하며 직전 대회까지 51위에 그쳤던 순위를 10위까지 끌어 올려 정규투어 시드권을 확보했다. 단독 3위에 오르며 상금 1,600만 원을 추가한 구래현은 상금순위 45위에서 16위로 도약하며 정규투어 티켓을 따냈고, 상금순위 21위로 살얼음판을 걷던 이주현(21)은 본 대회 공동 12위를 기록하며 상금순위 19위로 올라섰다.



'KLPGA 2024 SBS골프 드림투어 with 이지스카이 CC 18차전' 이지현3, 최스타 기록과 시즌 2승 달성! 대구 군위군에 위치한 이지스카이 컨트리클럽(파71/6,371야드)의 스카이(OUT), 이지(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4 SBS골프 드림투어 with 이지스카이 CC 18차전(총상금 7,000만 원, 우승상금 1,050만 원)'에서 이지현3(26, 비비안)가 우승을 차지했다. 이지현3는 "첫 우승을 했던 코스라 그런지 대회 전부터 긴장도 안 되고 플레이가 편안했다"라면서 "우승했을 때의 코스 공략법과 경험을 살려서 플레이한 덕분에 최스타 기록도 세울 수 있었다"라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LPGA 2024 무안CC·올포유 드림투어 19차전'

강정현, 드림투어 첫 승 달성!

전라남도 무안에 위치한 무안 컨트리클럽(파72/6,439야드)의 남A(OUT), 남B(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4 무안CC·올포유 드림투어 19차전(총상금 1억 원, 우승상금 1,050만 원)'에서 강정현(21)이 우승을 차지했다.

강정현은 "우승이 믿기지 않았고, 그저 연장전을 버디로 잘 마무리했다는 생각뿐이었다. 'KLPGA 2024 노랑통닭 큐캐피탈파트너스 드림챌린지 1차전'에서도 연장전까지 갔었는데, 그때 보기를 한 게 너무 후회돼서 이번에는 후회 없이 자신 있게 치자고 마음먹었다. 마음먹은 대로 잘돼서 정말 기쁘다"라고 박찬 소감을 전했다.



'KLPGA 파마리서치 리쥬란 드림투어'

왕중왕전 2024 리슈잉 우승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휘닉스 컨트리클럽(파72/6,337야드)의 마운틴(OUT), 레이크(IN) 코스에서 열린 2024시즌 마지막 드림투어 대회 'KLPGA 파마리서치 리쥬란 드림투어 왕중왕전 2024(총상금 2억 원, 우승상금 3,000만 원)'에서 중국 국적의 인터내셔널투어 회원(이하 I-TOUR 회원) 리슈잉(21, C)이 우승을 차지했다.

2024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드림투어 첫 우승을 차지하고, 상금순위 2위로 올라서며 '2025 KLPGA 정규투어 시드권'까지 확보한 리슈잉은 "2차 연장에서 버디 퍼트를 남겨뒀을 때 꼭 넣어서 우승하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컸다"라면서 "이렇게 마지막 대회에서 드림투어 첫 우승을 가둘 수 있어서 더욱 뜻깊고 기쁘다"라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KLPGA & MEMBER'S / 2025.WINTER

KLPGT, 역사상 최초로 해외에서 드림투어 2개 개최

글로벌 투어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이하 KLPGT)가 아시아골프 리더스포럼(이하 AGLF)과 '아시아 태평양 서킷(APAC Circuit, 이하 APAC 서킷) 시리즈 투어'에 대한 협약을 맺고, 역사상 최초로 해외에서 드림투어 2개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어로 도약하고 있는 KLPGT와 아시아 태평양 여자골프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AGLF의 이번 협약을 통해 드림투어 선수들과 해외골프 유망주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2025시즌 KLPGA 드림투어의 1, 2번째 대회 이자 AGLF의 APAC 서킷 시리즈를 장식할 신규 대회는 'KLPGA 2025 드림투어 인도네시아 여자오픈'과 'KLPGA 2025 드림투어 필리핀 레이디스 마스터즈'다.

KLPGT, 제7차 이사회 통해 2025시즌

해외 드림투어 2개 운영 방식 확정

KLPGT(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가 12월 6일(금) 개최된 'KLPGT 제7차 이사회'를 통해 2025시즌 해외에서 열린 드림투어 2개 대회의 운영 방식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KLPGT는 2개 대회의 실제 지급 상금은 대회당 30만 USD로 하는 한편, 공식 기록 상금은 대회당 총상금 1억 원으로 변환(총상금 1억 원 요율을 적용)해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참가 자격은 2025 드림투어 1차 대회 시드권자, 2025 정규투어 시드순위 31위 이후자로 의결했다.



JUMP TOUR

'KLPGA 2024 그랜드·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16차전' 조혜지, 생애 첫 우승!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그랜드 컨트리클럽(파72/6,224야드)의 서(OUT), 동(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4 그랜드·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16차전(총상금 3,000만 원, 우승상금 450만 원)'에서 조혜지(18)가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조혜지는 "13차전과 14차전에서 챔피언즈로 플레이했는데, 두 번이나 우승을 놓쳐서 아쉬움이 남았다"라면서 "이번 대회 때 우승이 간절했지만, 의식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하자는 생각으로 플레이했더니 좋은 결과가 따라왔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CHAMPIONS TOUR

'KLPGA 2024 SBS골프 챔피언스 투어 with 이지스카이 CC 5차전'

최혜정, 시즌 4승과 함께 상금왕 등극!

대구 군위군에 위치한 이지스카이 컨트리클럽(파72/5,773야드) 스카이(OUT), 이지(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4 SBS골프 챔피언스 투어 with 이지스카이 CC 5차전(총상금 1억 원, 우승상금 1,500만 원)'에서 최혜정(40)이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최혜정은 "이번 대회 출전하기 전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줘 큰 힘이 됐다. 기대에 부응하게 돼서 기쁘고 행복하다"라면서 "이번 주 내내 퍼트 감각이 좋았고, 불이 놓인 위치에서 라인이 잘 보여 퍼트 성공률이 높았던 것이 우승의 원동력이다"라고 밝혔다.

최혜정은 챔피언스투어 상금왕이 되면서 다음 시즌 정규투어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최혜정은 이에 대해 "정규투어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내고, '노장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특히 2007시즌 우승했던 '제8회 하이트컵 여자프로골프 챔피언십'과 2011시즌 우승했던 '제33회 메트라이프·한국경제 KLPGA 챔피언십'에 역대 우승자로서 다시 참가하고 싶다"고 의욕을 드러냈다.



2024시즌 KLPGA투어 총결산!

31개 대회, 총상금 약 332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 2024시즌 KLPGA투어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치열한 경쟁과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어우러져 골프 팬들에게 최고의 시즌으로 기억될 2024시즌 KLPGA투어를 총정리한다.

2024시즌 KLPGA투어는 위메이드 대상, 상금왕, 최저타수상 등 주요 타이틀을 두고 시즌 내내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윤이나(21, 하이트진로)가 추격자들의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내며 3관왕에 올라 시즌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고, '슈퍼루키' 유현조(19, 삼천리)는 '상상인 · 한경 와우넷 오픈 2024'에서 일찌감치 신인왕에 등극했다. 2024시즌 KLPGA투어에서는 생애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선수도 대거 탄생해 눈길을 끌었다. 다승을 기록한 배소현과 노승희를 비롯해 김재희(23, SK텔레콤)는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며 감격의 순간을 맞이했다.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유민조는 2013시즌 '기아자동차 제27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전인지(30, KB금융그룹) 이후 11년 만에 메이저 대회 루키 우승자가 되어 주목받았다.

또한 2023시즌 신인상 수상자인 김민별(20, 하이트진로)은 '2024 동부건설 · 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에서, 2023시즌 드림투어 상금왕 출신인 문정민(22)은 '대보 하우스디 오픈'에서 각각 첫 우승을 거뒀다.



2024시즌 KLPGA투어 경신된 기록과 2025시즌 이어질 새로운 여정

2024시즌 KLPGA투어는 선수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이 빛난 한 해였다. 이번 시즌 새롭게 탄생한 주요 성과들을 돌아보고, 2025시즌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기록들을 살펴본다.

박민지는 '2024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 우승하며故구옥희, 강수연(48), 박세리(47), 김해림(35, 삼천리)이 세운 동일 대회 3회 연속 우승 기록을 넘어 KLPGA투어 사상 최초로 동일 대회 4연패를 달성했다. 안송이(34, KB금융그룹)는 KLPGA투어 생애 최다 출전 기록을 새로 썼다. 이예원(21, KB금융그룹)은 '2024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2라운드 16번 홀부터 '2024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2라운드 11번 홀까지 연속 104개 홀 동안 보기 없는 플레이를 이어갔다. 노승희(23, 요진건설산업)는 2024시즌 31개 대회에 모두 출전해 100라운드를 소화하며 단일 시즌 최다 라운드 기록을 새롭게 작성했다.



KLPGT, 2024 코리아 스포츠진흥대상에서 프로스포츠 스페셜 부문 대상 수상!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T)가 11월 13일 진행된 '2024 코리아 스포츠진흥대상' 시상식에서 프로스포츠 스페셜 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체육회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며 2024년 6회째를 맞은 코리아 스포츠진흥대상은 국내 스포츠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스포츠 유관단체, 기업 · 브랜드 등 우수 공로자,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스포츠동아가 주최하는 상이다.



KLPGA투어 5인의 공동 다승왕이 돌아보는 2024시즌과 다가올 2025시즌

2024시즌 KLPGA투어에서 가장 치열했던 타이틀은 단연 다승왕이다. 이예원(21, KB금융그룹), 박현경(24, 한국토지신탁), 박지영(28, 한국토지신탁), 배소현(31, 프롬바이오), 마다숨(25, 삼천리) 등 5명의 선수가 3승씩을 수확하며 2024시즌을 뜨겁게 달궜다. 이들은 2024시즌 31개 대회 중 절반에 가까운 15개 대회의 트로피를 차지했고, 벌어들인 상금은 총 4,971,110,941원으로 2024시즌 KLPGA투어 총 상금의 15%에 육박한다. 5인의 다승왕은 한 시즌에 3승이나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다양한 이유를 꼽았다. 이예원은 "중요한 순간에 퍼트가 많이 떨어져 줘서 3승을 거둘 수 있었다"라면서 퍼트를 강조했다. 박현경은 "그린적중률이 처음으로 톱텐에 들었다"라면서 "아이언샷의 일관성을 위해 훈련을 많이 했는데, 덕분에 3승까지 거둘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박지영과 배소현은 "꾸준한 운동과 훈련의 결과물이다"라고 입을 모았고, 마다숨은 "항상 옆에서 지지해 주는 가족들과 팬들의 응원이 큰 원동력이 됐다"라고 다승왕의 영광을 주변에 돌렸다.



2024시즌 KLPGA투어 파3, 파4, 파5 최강자는 누구

2008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한 파3, 파4, 파5 홀 성적 기록을 바탕으로 2024시즌 KLPGA투어 홀별 최강자를 알아본다. 먼저, KLPGA투어의 2024시즌 파3홀 최강자는 서어진(23, DB손해보험)이다. 18홀 중 10개로 구성되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파4 홀에서는 김수지(28, 동부건설)가 2024시즌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한 선수에 자리했다. 2024시즌 파5홀에서 가장 강한 면모를 보인 선수는 3관왕을 차지한 윤이나(21, 하이트진로)다.



KLPGA, 'KLPGA 우리동네 골프주치의' 운영... 회원 대상 골프 특화 의료 서비스 제공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회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KLPGA 우리동네 골프주치의' 사업을 진행한다. KLPGA는 고강도 운동을 요구하는 골프의 특성상 잦은 부상과 건강 문제를 겪는 KLPGA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에 특화된 의료 서비스와 합리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본 사업을 진행하고 12월 17일 'KLPGA 우리동네 골프주치의' 인증식을 열었다.



KLPGT, '오로라월드 챔피언십' 개최 조인식 가져

10월 23일(수),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이하 KLPGT)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오로라 골프앤리조트에서 2025시즌 KLPGA투어 '오로라월드 챔피언십'의 개최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오로라월드 챔피언십'은 오로라월드(주)가 주최하고, KLPGT가 주관하며, 2025년 7월 17일(목)부터 나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본 대회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오로라 골프앤리조트에서 총상금 10억 원 규모로 펼쳐진다.



2024시즌 KLPGA투어 버디-이글-홀인원 킷에 오른 선수들

2024시즌 KLPGA투어에서는 선수들이 한층 발전된 기량을 선보이며 골프 팬들을 열광시켰다. 버디쇼는 물론, 이글과 홀인원까지 터져 나오는 등 화려한 기록이 쏟아졌다. 2024시즌 KLPGA투어 가장 많은 버디를 기록한 선수는 노승희(23, 요진건설산업)다. 노승희는 2024시즌 344개로 가장 많은 버디를 기록했다. 평균 버디 수로 보면 2024시즌 3관왕을 차지한 윤이나(21, 하이트진로)가 4.0526개로 1위에 올랐다. 전예성(23, 삼천리)은 ‘크리스토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 버디만 12개를 기록하며 한 라운드 최다 버디 기록을 경신해 화제를 모았다. 가장 많은 이글을 엮어낸 선수는 신인상의 주인공 유현조(19, 삼천리)다. 홀인원 부문에서는 이정민(32, 한화큐셀)이 2024시즌 유일하게 두 번의 홀인원을 작성해 냈다.



KLPGA 골프 전문 교습가 자격 과정, ‘2024 KLPGA Master Professional’ 수료식 열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KLPGA빌딩’에서 골프 전문 교습가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KLPGA Master Professional’의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4회째를 맞은 ‘KLPGA Master Professional’은 ‘회원의 레슨 역량 및 전문성 강화’와 ‘골프 레슨 시장에서의 경쟁력 증대’를 위해 2021년 신설됐으며, 지난 7월 25일부터 약 3개월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KLPGA, ‘골프환경조성 프로젝트’로 남양주 사능초에 골프 연습장 설립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골프환경조성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사능초등학교에 골프 연습장을 설립하고, 이에 대한 준공식을 진행했다. KLPGA는 10월 14일 ‘골프환경조성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된 사능초등학교에서 골프 연습장 준공식을 열고 클럽 세트, 골프공, 골프장갑, 볼공급기 등 다양한 골프용품을 지원했다.



KLPGT, 2024시즌 디지털 운영 시스템 대폭 강화 KLPGT(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가 2024시즌 각종 디지털 운영 시스템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경기위원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새롭게 개발했다. 이를 통해 경기위원은 각 홀의 경기 진행 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홀로 플레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2024년 4월부터 SK텔레콤, SBS미디어넷, CNPS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샷별 중계 영상 서비스’도 골프 팬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3시즌부터 제공된 3D 샷트래커도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또한, 스마트워치 앱 출시로 골프 팬들은 실시간 알림을 통해 즐겨찾기 해둔 선수의 성적을 손목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KLPGT, ‘2024 KLPGA 선수 데이터 리포트’ 배포… 아마추어·골프 관계자에게도 제공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이하 KLPGT)가 2024시즌 정규투어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2024 KLPGA 선수 데이터 리포트’를 제공했다. KLPGT는 공식기록 파트너 ㈜CNPS(대표이사 최형식)를 통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위치기반 거리데이터를 수집하며 골프 데이터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시즌 종료 후 시범적으로 제공했던 데이터 리포트는 선수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매년 시즌 종료 후에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2025 제17대 KLPGA 홍보모델 12인 발표!

12월 12일(목),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이하 KLPGT)가 ‘2025 제17대 KLPGA 홍보모델’의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제17대 KLPGA 홍보모델’은 2025시즌 정규투어에서 활약할 김민별(20, 하이트진로), 김수지(28, 동부건설), 노승희(23, 요진건설산업), 박민지(26, NH투자증권), 박현경(24, 한국토지신탁), 방신실(20, KB금융그룹), 배소현(31, 프롬바이오), 유현조(19, 삼천리), 이가영(25, NH투자증권), 이예린(21, KB금융그룹), 임희정(24, 두산건설), 황유민(21, 롯데)(이상 가나다순)까지 총 12명의 선수들로 결정됐다.



KLPGA 2025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이울린 수석!

전라남도 무안군에 위치한 무안 컨트리클럽(파72/6,335야드)의 동A(OUT), 동B(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본선’에서 이울린(22, 나이키)이 수석을 차지했다. 이울린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실렘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시드순위전이 주는 압박감과 부담감 때문에 떨리기도 했다”라고 입을 열어 “이렇게 마무리를 잘하고 2025시즌 시드를 확보하게 돼 정말 기쁘고 한시를 놓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이울린에 이어 2024시즌 드림투어에서 1승을 차지했지만 시드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드순위전에 출전한 윤수아(22, 파마리서치)가 드림투어에서의 아쉬움을 시드순위전 차석으로 털어냈다. 최종합계 16언더파 272타(66-66-73-67)로 경기를 마친 윤수아는 시드순위 2위에 자리해 정규투어 입성에 당당하게 성공했다.



KLPGA, ‘KLPGA-KGCA 공식 골프 연습장 인증사업’ 13호로 필드림골프클럽 선정

10월 2일(수),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한국골프연습장협회(이하 KGCA)와 함께 진행하는 ‘KLPGA-KGCA 공식 골프 연습장 인증사업’ 13호로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필드림골프클럽’을 선정해 인증식을 진행했다.



KLPGA, ‘KLPGA-KGCA 공식 골프 연습장 인증사업’ 14호로 ‘Back_yard’ 선정

10월 23일(수),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한국골프연습장협회(이하 KGCA)와 함께 진행하는 ‘KLPGA-KGCA 공식 골프 연습장 인증사업’ 14호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Back_yard(백야드)’를 선정해 인증식을 진행했다. 크리에이티브(대표이사 석재호, 이하 크리에이츠)가 운영하는 Back_yard는 300평 규모의 실내에서 100야드 이내의 쇼트게임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실내 쇼트게임 전문 연습장이다.



KLPGA, ‘KLPGA-KGCA 공식 골프 연습장 인증사업’ 15호로 ‘메이필드 골프클럽’ 선정

12월 3일(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한국골프연습장협회(이하 KGCA)와 함께 진행하는 ‘KLPGA-KGCA 공식 골프 연습장 인증사업’ 15호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메이필드 골프클럽’을 선정해 인증식을 진행했다.

2025 MEMBER'S SERVICE

01 골프장

● 센추리21 CC

혜택 KLPGA 정회원 그린피 할인:
95,000원(주중)

※4인 1팀 기준, KLPGA 회원 1인 혜택 적용.
단, 센추리 21 CC 회원 동반 시 상가 할인
혜택은 제공되지 않음.

대표문의 033-733-1000

홈페이지 www.century21cc.co.kr

주소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공말길 193

● 힐드로사이 CC

혜택 주중 8시 이전 4인 1팀 내장 시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1인 그린피
면제(동반자 인터넷 회원가입 필수, 타
이벤트 할인 중복 적용 불가)

대표문의 033-439-3333~4

홈페이지 https://www.hilldeloci.co.kr

주소 강원도 홍천군 남면 한서로 2840

● 리앤리 컨트리클럽

혜택 KLPGA 회원 1명 + 동반자 3명(4인 1팀
기준) 내장 시, 30,000원 할인(주중만 가능,
주말은 불가)

대표문의 031-580-9000

홈페이지 www.leenleccc.co.kr

주소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정계로
702-24

● 베어크리크 포천

혜택 ① 정회원 : 4인 1팀 내장 시, 최대
2명 그린피 50% 할인 ② 준회원 : 4인 1팀
내장 시, 최대 2명 그린피 20% 할인(단,
베어크리크G.C 인터넷 유료회원 가입 必)
※ 주말 / 공휴일은 할인 불가

대표문의 1899-0115

홈페이지 www.bearcreek.co.kr

주소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달인동로 35

● 서원힐스

혜택 ① 4인 1팀 내장 시, KLPGA 회원
1인 그린피 50% 할인(KLPGA 회원 2명
이상이어도 KLPGA 회원 1명에게만 적용)②
서원 프렌즈로 자동 가입 후 타석 및
숯게임장 할인 - KLPGA 회원 : 50% 할인
③ 연습장 입점 아카데미 소속 선수 중
KLPGA 정회원 또는 준회원 입회(승격)한
자의 한하여 라운드, 연습장, 숯 게임장
무료.

- KLPGA 정회원 : 2개월

- KLPGA 준회원 : 1개월

※ 단, 그린피 할인 행사보다 제휴요금이

낮을 경우 할인행사 요금 적용

대표문의 031-941-0025, 031-940-9400

홈페이지 www.seowongolf.co.kr

주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산48-1

● 대영힐스 CC

혜택 4인 1팀 기준, 주중에 한하여
KLPGA 회원에 한해 그린피 50% 할인
(1팀당, 1명 할인 적용)

대표문의 043-850-8601~3(예약실)

홈페이지 www.dyhills.basecc.co.kr

주소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성종두담길 114

● 마론뉴데이 CC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할인 혜택 주중 : 165,000원 주말 :
225,000원

대표문의 041-623-5500

홈페이지 https://maronnewday.com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복면 남안5길 74

● 롯데스카이힐 부여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KLPGA 회원에 한해 그린피 할인
- 주중 : 50% 할인 - 주말 : 30% 할인

대표문의 041-939-1701~4

홈페이지 www.lotteskyhill.com

주소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 35-1

● 드비치골프클럽

혜택 주중 그린피 140,000원(1부에 한함)

대표문의 055-736-3000

홈페이지 debeach.co.kr

주소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573

● 문경 GC

혜택 4인 1팀 기준, 주중에 한하여
KLPGA 회원 1인만 적용
- KLPGA 정회원 : 그린피 면제
- KLPGA 준회원 : 그린피 50% 할인

대표문의 054-550-5000

홈페이지 www.mgle.co.kr

주소 경북 문경시 문경골프장길 240

● 블루원 상주 골프리조트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4인 1팀 기준, 주중에 한하여
KLPGA 회원 1인만 50% 할인

대표문의 1899-1888

홈페이지 www.blueone.com

주소 경북 상주시 모서면 화천3길 127

● 캐슬렉스 제주 CC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그린피 할인 - 주중 : 70,000원, 주말 :
90,000원

대표문의 064-793-6800

홈페이지 www.castlexjj.com

주소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1241

● 해비치 CC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주중에 한하여 그린피 10% 할인

대표문의 064-766-6200

홈페이지 www.haevichi.com

주소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산

30번지

● 코럴오션리조트 사이판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① KLPGA 회원 MRI 호텔 투숙 시,
코럴 오션 골프장 그린피 할인- FT 가격
기준 40% 할인(성수기)~50% 할인(비수기)

※ MRI 그룹 : 코럴 오션 리조트, 캔싱턴
호텔 사이판, PIC 리조트 사이판 ② 동반
플레이어가 3인 이상 코럴 오션 골프장
예약하는 경우, KLPGA 회원 본인에 한해

18홀 금액으로 무제한 플레이

※ 상가 혜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대표문의 070-5168-4913

홈페이지 www.coraloceansaipan.com

주소 P.O. Box 501160, Saipan,

Northern Mariana Islands

● 가야CC

혜택 정/준회원 그린피 할인(일, 주말/
공휴일에 적용) 정회원 67,000원, 준회원
80,000원(비회원 3인 동반 시)

대표문의 055-337-0091

홈페이지 https://www.gayacc.com

주소 경남 김해시 인제로 502

● 대구CC

혜택 정회원 그린피 할인
① 대구, 경북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KLPGA 정회원에게 한하여 평일 1/2부에
적용(60,000원)

② 주말은 비회원 정상요금으로

세금만 제외함

③ 타지역 정회원의 경우, 세금만 제외함

대표문의 063-869-5277

홈페이지 https://www.daegucc.co.kr

주소 경북 경산시 진량읍 일연로 718-42

● 보성CC

혜택 정회원 그린피 할인 ① 평일, 주말(토/
일요일),
공휴일 본인 1인 운영요금에서 2만원

할인(KLPGA 회원증 또는 증빙서류 확인 후

본인 1인 프린트 결제 시 현장적용)

② 선결제 및 패키지 예약 건 이용 불가

③ 온라인 예약 및 전화예약 후 현장결제

적용으로만 가능

대표문의 061-804-1000

홈페이지 https://www.bosungcc.co.kr

주소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조성3길 338

● 페럴CC

혜택 지난해 KLPGA 상금순위 시드 60위
이내 선수에 한하여 1인 그린피 면제
(주중에 한함)

대표문의 031-887-7001

주소 경기 여주시 점동면 점동로 181

● 정산CC

혜택 KLPGA 정회원에게 한하여 그린피
10만원(주중 1부에 한함)

대표문의 055-320-0121

주소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637번길

299-194

● 클럽디 가창

혜택 4인 1팀 방문 시, 프로 1인에 한하여
주중 50%, 주말 20% 할인

대표문의 055-945-6060

주소 경남 거창군 신태면 감악산로 388

● 클럽디 금강

혜택 4인 1팀 방문 시, 프로 1인에 한하여
주중 50%, 주말 20% 할인

대표문의 063-720-7777

주소 전북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130

주소 전북 보은군 보은읍 장속중초로 386

● 헤라CC

혜택 4인 1팀 방문 시, 프로 그린피 1인
면제(주중에 한함)

대표문의 051-973-7400

주소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로306번길 77

● 파인힐스CC

혜택 비회원 3인 동반 시, 프로 1인 (정회원

KLPGA 회원을 위한 혜택

KLPGA 회원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소개합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문의 KLPGA 사무국 차지해 과장 (02-560-4426 chajh@klpga.com) ※회원혜택 이용시 KLPGA 회원임을 증명해야 함

50% / 준회원 30%) 그린피 할인(주중에

한함)

대표문의 061-750-9000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송광사길 99

● 스카이힐제주

혜택 정상가의 20~50% 할인

대표문의 064-731-2000

주소 제주 서귀포시 상예로 530

스카이힐골프장

02 골프연습장

● 어반컨트리클럽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① 음료/주류 제외 전 메뉴 30% 할인
(주중에 한함)

② 첫 방문 시, 최대 1개 식사 1천원

대표문의 010-2959-6569

홈페이지 @urbancc.official(인스타그램)

주소 경기 남양주 다산 중앙로153, 218호

● 백야드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① KLPGA 무료(소프트게임(55분),1회)

② 동반(레스)입장 시, 동반객은 정상요금

대표문의 031-620-1106

홈페이지

@backyard.official(인스타그램)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131, B1

● J.NOVOV GOLF STUDIO

혜택 ① KLPGA 회원 트랙맨 스튜디오

할인(트랙맨이 세팅된 개인연습공간 제공)

② KLPGA 회원 1시간무료 연습가능

* 1시간 이후, 21,000원에 이용

대표문의 031-989-8778

홈페이지 https://j-novom.com

주소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83-4, 9층

● 더 프라자 골프 스튜디오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① 교육 및 세미나 : 무료(10회 / 1개월)

※ 단, 09시~12시, 18시~23시만 가능

② 첫 고객 레슨 : 무료(프로 1명당 회원

5명까지)

- 신규매장에 한함(3개월까지)

③ 영상(YouTube 촬영) : 무료

※ 단, 18시 ~ 23시/주말 공휴일에 한함

④ 정규투어 시드권자 및 시드우선

순위자 개인연습 : 무료(2시간/1일)

단, 정규투어 시드권자 및 시드우선

순위자 확인 후 혜택 이용

⑤ 투어프로 및 프로 개인연습 : 1만원 할인 /

1시간

지점 <서울> 신사점, 학동1호점, 청담점,

한남점, 옥수점, 여의도점, 삼성점,

잠실점, 독성점 <부산> 센텀시티점

<경기> 동탄점, 정자점, 판교점

대표문의 02-6949-6736(삼성점)

홈페이지 https://theplazagolf.com

● TGX 골프아카데미

혜택 아카데미/스튜디오 골프타석 할인

① 일일권 50% 할인

- 아카데미(16,500원/주중, 15,000원/주말)

- 스튜디오(25,000원 / 주중, 주말)

② 정기권 30% 할인

③ 쿠폰 20% 할인

대표문의 02-6490-9455

홈페이지 https://www.tgxgolf.co.kr/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몰

B2

● 골프플래닛

혜택 ① 타석/스투이어 사용 : 무료

② 기어스 스윙데이터 : 연 1회 무료

③ 피트니스/필라테스 : 50% 할인

④ 피팅분석 : 연 2회 무료

⑤ YOUTUBE 촬영 대관 : 연1회 제공

대표문의 02-553-5550

홈페이지 https://www.golfplanet.kr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로 7길 17, B1

● 갤러웨이 아웃도어 퍼포먼스센터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 퍼팅상당(55,000원) 후 연습장 1시간 무료

이용 * 연습장 이용 : 22,000원 / 1시간

(드라이빙레인지, 퍼팅그린, 벙커)

대표문의 031-631-4643

홈페이지 www.callawaygolfkorea.co.kr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64 갤러웨이골프 이천 아웃도어

퍼포먼스센터(사우스 스프링스CC 내)

● 클럽디청담

혜택 프로 개인 연습 시, 타석비 50% 할인 /

클럽디 컵비 20% 할인(주류 및 음료 제외)

대표문의 02-6403-7717

주소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39 B1~3F

03 골프용품

● 폴스윙 코리아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폴스윙 키트 레슨패키지

- 구성 : 폴스윙키드+아이패드+Onform 1년

구독 - 가격 : 8,190,000원(100만원 할인)

대표문의 폴스윙 코리아(02-555-4653)

폴스윙코리아 인스타그램 DM발송

홈페이지 https://www.fullswinggolf.k

주소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39, 3층

● 미즈노

혜택 드라이버, 우드, 하이브리드, 아이언

40~50%, 웨지, 퍼터 50%, 스탠드백,

골프화 60%, 골프장갑, 볼 70% 할인 적용

※ 단, 제품별 연간 구매 수량 제한 있음.

홈페이지 https://corpkr.mizuno.com/

주소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76, 13층

● 3P 골프

혜택 골프그림 세척다울 '체다커',

골프발란스 연습용 패드 '실스텝' 등

홈페이지 전 상품 50% 할인

대표문의 02-333-3840(염정애 실장)

홈페이지 http://www.3pgolf.com

주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9, 1102호

● 범양글러브

혜택 프로골퍼 전용 특가물 - 최대 80%

※ 단, 상품별 할인율은 상이할 수 있음

대표문의 02-714-4403

홈페이지 http://www.kglove9.com

주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84-4,

605호

● 보이스캐디

혜택 KLPGA

홈페이지 www.revokorea.com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길 70, 4층

● **SR30**
혜택 KLPGA 전체 회원 대상
SR30 통풍형 글러브 50% 할인
※ 단, 회원 인당 2회까지 20매 가능
대표문의 062-671-5447
홈페이지 www.SR30.com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1로 49번길 34

● **SYNLAWN(골프잔디)**
혜택 프라이빗 골프연습장 무료 컨설팅
① 스튜디오퍼팅, 타석 등) 구성
인조잔디(타석, 퍼팅, 라프) 10% 할인
※ 총 30혜베이상 추가 5% 할인
※ 총 50혜베이상 추가 10% 할인
대표문의 010-7196-4838
홈페이지 https://synlawnkorea.com/putting-greens/
주소 서울 강남구 선릉로 138길 18, 1~2층

● **SIDAS**
혜택 시다스 맞춤 인솔 40% 할인 /
자세평가 : 무료
대표문의 010-8205-1797

04 골프의류

● **페어라이어**
혜택 전 제품 40% 할인(최초 소비자가)
※ 한도 : 1인당 300만원/연
※ 마일리지 및 행사쿠폰 적립불가
※ 정해진 지점내에서 교환 가능, 환불 불가
대표문의 02-953-4337
홈페이지 https://www.fairliar.com/

● **까스텔바작**
혜택 KLPGA 회원 대상 전 품목 30% 할인
(1인 1회 한도 100만원)
※ 마일리지 적립 불가, 기타 할인 및
판촉행사 금액권 중복적용 불가
대표문의 02-3498-0401
홈페이지 www.castelbajackorea.com

● **데상트골프, 르꼬끄골프, 먼싱웨어**
혜택 데상트코리아 공식 온라인몰
골프브랜드(데상트 골프, 르꼬끄 골프,
먼싱웨어) 30% 할인(이월상품 제외)
※ 연간 소비자가 300만원 이내
(매년, 1월 1일에 사용금액 갱신됨)
홈페이지 shop.descentekorea.co.kr/
DESCENTEGOLF/event/detail/59848

● **레노마골프**
혜택 KLPGA 회원 대상 신상품 30% 할인

※ 정상 소비자가격(TAG 부착 가격)한함
※ 연 500만원/1인 한도 ※ 주요도시
정상대리점에서만 가능, 상설대리점 제외
대표문의 02-2211-6921(오지원 주임)
홈페이지 http://www.renomasports.co.kr/

● **바이스골프**
혜택 전 품목 30% 할인 ※ 전국 바이스골프
오프라인 정상매장 (온라인몰, 아울렛
제외)에 한함 ※ 연간 한도 : 정회원 –
1000만원, 준회원-700만원, 티칭회원-
500만원(TGA가격 기준)
대표문의 1833-4354
홈페이지 vicegolf-korea.com

● **아디다스골프(골프존마켓 압구정점)**
혜택 전 품목 30% 할인
대표문의 02-516-4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72

● **어뉴골프**
혜택 전 품목 30% 할인(신규가입 및
프로모션 할인 중복불가)
※ 전국 어뉴골프 오프라인
정상매장(온라인몰, 아울렛 제외)
※ 연간 한도: 정회원 – 1000만원,
준회원-700만원, 티칭회원-
500만원(TAG가격 기준)
대표문의 1833-4354
홈페이지 https://www.anewgolf.com/

● **어퍼스트롭**
혜택 ① 어퍼스트롭 골프라인 70%,
캐주얼라인 50% 할인(한도 : 1인당
500만원/월) ② 스컬피그 판매가의
20%할인 제공, 정가의 최대 85%할인
대표문의 070-7733-9002
홈페이지 https://upperstrop.com

● **틀비스트**
혜택 신상품 30% 할인(TGA가격 기준)
(한도 : 1인당 100만원/월)
※상품권, 할인권 중복 사용 불가
대표문의 02-3456-9196
홈페이지 www.torbist.co.kr

05 숙박

● **신라스테이 서울**
혜택 숙박요금 37~74% 할인
대표문의 02-2230-0700(예약문의)
홈페이지 www.shillastay.com
주소 ① 삼성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06
② 서초 : 서울 서초구 효령로 427
③ 역삼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17

● **선배리호텔(여주)**
혜택 ① 객실 : 13만원~22만원
② 조식패키지 : 16만원~25만원
③ 워터파크패키지 : 16만원~26만원
④ 풀패키지 : 20만원~30만원
대표문의 02-3660-3007
홈페이지 www.sunvalleyhotel.co.kr
주소 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45

● **라마다 용인호텔**
혜택 ① 숙박 : 자사 홈페이지
예약가(최저가)의 10% 할인
② 레스토랑 : 석식: (성인) 7만원 /
(아동)3만7천원,
조식: (성인)2만4천원/(아동)1만6천원
대표문의 031-8097-6500
홈페이지 www.ramadayongin.com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356-6

● **호텔 원티드**
혜택 최대 64% 할인 제공
(65,000원 ~ 250,000원/조식포함)
대표문의 032-585-8900
홈페이지 www.hotelwanted.modoo.at
주소 인천 서구 북항로 32번길 20

● **오크밸리 리조트**
혜택 정가의 30~40% 할인
(15만원~31만원/계절별 가격 상이)
대표문의 1588-7676(1번)
홈페이지 www.oakvalley.co.kr
주소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2길 58

● **웰리힐리파크**
혜택 ① 숙박 : 정가의 40% 할인 등
특별할인 제공 ② 워터플레이드 시즌패스 :
정가의 36~38% 할인 제공
대표문의 1544-8833(ARS 1번)
홈페이지 www.wellihillpark.com
주소 강원 횡성군 둔내면 고원로 451

● **호텔탑스텐 강릉**
혜택 ① 숙박 : 디럭스패밀리리더블 :
(일~목) 11만원 / (금) 13만원 /
(토~일,공휴일) 18만원
② 조식 : 10% 할인 (중복할인 불가/
본인 포함 최대 4인)
대표문의 033-530-4800
홈페이지 www.hotel-topsten.co.kr
주소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화로 455-34

● **씨마크호텔**
혜택 프리미엄 디럭스, 이그제큐티브룸
3~48% 할인(사전 전화문의 필수)
※ 2인 조식 : 객실료 포함

대표문의 033-650-7000
홈페이지 www.seamarqhotel.com
주소 강원 강릉시 해안로 406번길 2

● **신라스테이 해운대**
혜택 숙박요금 37~74% 할인
(121,000원 ~ 330,000원)
대표문의 02-2230-0700(예약문의)
홈페이지 www.shillastay.com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70번길 46

● **신라스테이 서부산**
혜택 숙박요금 37~74% 할인
(90,000원 ~ 240,000원)
대표문의 02-2230-0700(예약문의)
홈페이지 www.shillastay.com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자국제7로

● **더그루브**
혜택 최대 44~55% 할인 제공
(69,000원 ~ 220,000원)
대표문의 063-464-0505
홈페이지 thegroove.jilib.site
주소 전북 군산시 소룡1길 55

● **라한호텔 전주**
혜택 숙박요금 37~74% 할인
(95,000원 ~ 207,000원)
대표문의 02-2230-0700
홈페이지 https://lahanhotels.com/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85

●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
혜택 숙박요금 37~74% 할인
(100,000원 ~ 200,000원)
대표문의 02-2230-0700
홈페이지 https://lahanhotels.com/
주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1

●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호텔세종**
혜택 KLPGA 회원 특별가 제공
(110,000원~495,000원)
대표문의 043-330-3300
홈페이지 www.hotelsejong.kr/ko
주소 세종시 도움1로 7

● **청풍리조트**
혜택 KLPGA 회원 특별 할인(25~60%) 제공
대표문의 043-640-7000
홈페이지 www.cheongpungresort.co.kr
주소 충북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1798

● **호텔락히**
혜택 KLPGA 회원 특별할인가 제공
- 스탠더드 더블 : 85,000원
- 디럭스 더블 : 100,000원

- 디럭스 패밀리 : 110,000원
대표문의 043-909-5000
홈페이지 http://www.hotellacky.com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88-126

● **ICC호텔**
혜택 호텔 객실 이용 시, 20%할인
대표문의 042-866-5001
홈페이지 www.hotelicc.com
주소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55

● **라한셀렉트 경주**
혜택 특별 할인가(13만원~35만원) 제공
대표문의 1644-8005
홈페이지 https://lahanhotels.com/
주소 경북 경주시 보문로338

● **라한호텔 포항**
혜택 특별 할인가(13만원~35만원) 제공
대표문의 1644-8005
홈페이지 https://lahanhotels.com/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 265번길 1

● **아이스퀘어호텔**
혜택 ① 숙박 : 디럭스(더블/트윈)143,000원
(61%할인) ② 조식 : 21,300원(15%할인)
대표문의 055-344-5000
홈페이지 www.isquare-hotel.com
주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60

● **기린빌라리조트**
혜택 KLPGA 회원 특별 할인가 제공
(주중 70%, 주말 65%, 성수기 60%)
대표문의 064-805-3007
홈페이지 kylinvillaresort.com
주소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427-1

● **서귀포 JS호텔**
혜택 ① 숙박 : KLPGA 회원 특별가
- 스탠다드 : 55,000~65,000원
- 디럭스 트윈 : 66,000~76,000원
- 디럭스 패밀리 : 77,000~87,000원
② 조식 : 성인 15,000원/아동 10,000원

대표문의 064-802-3002
홈페이지 www.seogwipojshotel.com
주소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 745-5

● **루체빌**
혜택 KLPGA 회원 특별가(8만원~10만원)
대표문의 064-805-0115
홈페이지 www.luceville.com/kor/index.do
주소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산록남로 786

● **토스카나 호텔**
혜택 ① KLPGA 회원 특별가 제공
(200,000원 ~ 460,000원)
② 조식 : (성인)25,200원(아동)16,100원
대표문의 064-735-7000
홈페이지 www.hotelloscana.co.kr
주소 제주 서귀포시 용흥로 66번길 158-7

● **파르나스 호텔 제주**
혜택 ① 숙박 : KLPGA 회원 10% 할인
② 식사 : 뷔페 레스토랑 15% 할인
대표문의 064-801-5100
홈페이지 www.pamashoteljeju.com
주소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100

●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
혜택 특별 할인가(11만원~20만원) 제공
대표문의 1644-8005
홈페이지 https://lahanhotels.com/
주소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875

● **라운호텔앤리조트**
혜택 KLPGA 회원 특별가 제공
(56,000원~150,000원)
대표문의 064-796-7730
홈페이지 http://hotel.raon.co.kr
주소 제주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127

● **신라스테이 구로**
혜택 객실타입 및 예약일자에 따른 특별가
제공
대표문의 02-2230-0700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흥대로 596

● **그랜드하얏트제주**
혜택 객실타입 및 예약일자에 따른
특별가 제공
대표문의 064-907-1234
주소 제주 제주시 노연로12,
그랜드 하얏트 제주

● **롯데시티호텔제주**
혜택 스탠다드 패밀리 트윈 5~30% 할인
대표문의 1577-0360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83

● **롯데호텔제주**
혜택 디럭스가든 패밀리트윈 8~20% 할인
/ 롯데호텔제주 온수풀 해온 무료
대표문의 1577-0360
주소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로72번길 35

06 의료

■ 안과

● **하늘안과의원**
혜택 KLPGA 회원 안과 시술 우대
① 안종합검진: 30여 가지 첨단
안 정밀검사 무료
② 시력교정 수술비 혜택 제공
③ 라식, 라섹 책임보증서 발급 /
평생 관리 보장 서비스
④ ONE-DAY 라식/라섹
⑤ 시력교정 시술 최대 49% 할인

대표문의 02-573-9779
홈페이지 bweye.co.kr
주소 ①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09
6~10층
② 부산시 진구 부전동 257-42
노블레스B/D 8, 9층
● **강남 베스트성모안과**
혜택 ①베이직 라식/라섹: 120만원 →
59만원
② 양막 라식/라섹 : 160만원 → 79만원
③ 올레이저 라식/라섹 : 200만원 → 89만원
④ 미도 라섹 : 220만원 → 99만원

⑤ 아베드로 엑스트라 라섹 : 300만원 →
담당자 문의
대표문의 02-6271-1000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 송촌빌딩
14층(역삼역 6번 출구)

● **서울 | 부산 밝은 세상안과**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시력교정 우대 혜택 최대 40% 할인
대표문의 02-3443-0880(서울),
051-805-1100(부산)
주소 ①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823
한양타운 2, 6, 7층(서울)
②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로74
아이온시티빌딩 8, 9, 10, 11층(부산)

■ 치과

● **서울미소진치과**
혜택 KLPGA 회원 비급여진료 할인
① 치아교정 20% 할인, 치아미백 20% 할인
② 충치치료(레진/인, 온레이, 크라운) 20%
할인
③ 네비게이션 디오 임플란트 20% 할인
④ 오스템 임플란트 20% 할인
⑤ SIC와산 임플란트 10% 할인
※ 방문해주시는 KLPGA회원분들께
맞춤형 구강 관리방법을 안내해드리며,
맞춤형 구강 관리용품을 증정해드립니다.
대표문의 02-515-2875
홈페이지 www.seoulmisojin.co.kr

● **오늘치과**
혜택 KLPGA 회원, 직계가족 및 임직원 대상
① 비거리 향샹 마우스가드 20% 할인
② 하루완성 세렉 라미네이트 20% 할인
③ 하루완성 충치치료 20% 할인
④ 비밀치아교정, 네비게이션
임플란트 10% 할인
⑤ 치아미백, 턱관절치료,
입냄새치료 10% 할인
주소 서울 7호선 상봉역 4번출구,
상봉동113-1
대표문의 02-6956-7528

SERVICE INFORMATION



SIDAS
혜택 시다스 맞춤 인솔 40% 할인 /
자세평가 : 무료
대표문의 010-8205-1797

홈페이지 www.bettertoday.kr

담당자 김석범 원장(010-7528-2424, 카톡ID : supergp)

● 길튼 치과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비급여진료 할인

① 치아교정 20% 할인 – 오스템 임플란트 20% 할인

② 투명교정 20% 할인 – 보토스 20% 할인

③ 충치치료(레진, 크라운) 20% 할인

④ 라미네이트 20% 할인 –

치아미백 30% 할인

대표문의 02-585-8050 /

카톡 ID: 길튼치과

홈페이지 www.giltodont.com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34, 1층

● 화이트e치과

혜택 화이트e치과 전 자점 동일

우대 할인 적용

① 비급여 검사 및 치료비용 10~49% 할인

② 치아 특화 치아용품 증정

③ 임플란트 진행 시 특별우대

전문인들의 협진을 통한 맞춤 Total

대표문의 010-5360-6850

(김영진 경영기획 본부장)

홈페이지 https://www.white2.co.kr/

주소 강남점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37, 7층

영등포점 :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2길

1, 9~10층

해운대점 : 부산 해운대구 좌동로 93, 3층

서면점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94, 5층

남포점 : 부산 중구 비포관장로 34, 2층

● 스마일블로섬 치과의원

혜택 KLPGA 회원 VVIP 우대

① 치아교정 (특수교정, 비발치교정, 비수술교정,

단기 앞니교정) 30% 특별할인

② 치아미백 50% 할인

③ 심미 (앞니 무스제 비니어) 20% 할인

④ 임플란트 (스웨덴 아스트라)

특별 우대 할인

※ 서울대, 연세대, UCLA NYU 출신

보드전문인들의 협진을 통한

맞춤 Total Care

예약문자 010-7561-2119

홈페이지 smileblossom.com

주소 서울 강남구 선릉로94길 12

세운타워 11층

● 이스턴 치과의원

혜택 구강검진 및 상담, 치료 및 사후 관리,

진료 및 수술비용 할인

문의 02-553-2804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9-3

광진빌딩 402 이스턴 치과의원

■ 재활, 척추, 관절, 한의원, 피부과

● 단골병원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① 외래진료(비급여) 15% 할인

② 물리치료(도수제외) 15% 할인

③ 입원(상급 병실료) 30% 할인

④ 시술(도수 제외) 15% 할인

대표문의 051-582-0100

담당자 010-9494-0868

홈페이지 www.dghospital.com

주소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829

● 더본병원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할인 제공

① 비급여 검사 및 치료 비용 20% 할인

– 척추, 관절/통증치료(체외충격파,

도수치료, 주사치료)

② MRI 검사 비용 33% 할인

대표문의 02-587-2299

홈페이지 www.thebone.kr

주소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67(사당동)

● 더정형외과

혜택 KLPGA 회원 및 직계 가족 대상 검사

및 치료 비용 할인

① 비급여 검사 및 치료비용 20% 할인

② 골프특화 치료비용 20%

할인(체외충격파, 도수치료, 주사치료)

대표문의 02-6959-9077

홈페이지 www.the-os.co.kr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92길 29

도일빌딩 4~6층

● 새로온병원

혜택 KLPGA 임직원, 전체 회원 및

직계가족 대상 의료 혜택 제공

– MRI 20% 할인 2) 비급여 진료비 10% 할인

(재료대 제외)

문의 010-9197-6757(예약문의)

홈페이지 www.saerounhospital.com

● 한맘플러스병원

혜택 ① 회원 본인 및 직계가족 비급여 30%

할인(정규투어 선수 50% 할인)

② 회원 추천 시 일반인 비급여 10%

할인(정규투어 선수 20% 할인)

③ 골프 메디컬 피트니스 무료 이용

※ 비급여: 도수치료, 충격파치료, 인대강화

등 주사치료, 만성통증 스크램블러치료 등

대표문의 02-3452-9912

홈페이지 www.1mam.net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27

그린메디칼빌딩 1~4층

● 완광려한의원

혜택 KLPGA 전체 회원(20% 할인) 및

직계가족(15%) 의료혜택

– 원내 모든 비급여 치료 20% 할인

– 일반 치료 시 파스 증정 및 물리치료,

테이핑, 약침 무료

대표문의 064-744-1075

주소 제주도 1100로 3334, 동현빌딩 2층

● 광고삼성H정형외과

혜택 KLPGA 회원 비급여 항목 20%

할인(도수치료&체외충격파 포함)

주소 수원시 영통구 도청

대표문의 031-217-5000

홈페이지 http://samsunghortho.com

로18번길 26, 2층

● 연미부과의원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할인 제공 – 피부 레이저, 미백, 탄력,

항노화치료 20% 할인

대표문의 02-415-3274

주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5층

■ 종합검진

● 솔병원

혜택 ① 비급여 검사 및

치료 비용 20% 감액

② 스포츠재활 및 골프피트니스

프로그램 20% 감액

③ 골프 특화 스포츠의학검진 50% 감액

(본원만 해당)

④ MRI 검사 비용 50% 감액(당해연도

정규/드림/점프/챔피언스 출전선수

(본원만 해당)

대표문의 ① 솔병원(강서 본원) :

02-2064-7575,

www.sol-hospital.co.kr

② 시흥솔병원 : 031-314-7582,

www.korearm.com

③ 위례솔재활의학과의원 :

031-8023-5757,

www.solrehab.co.kr

④ 용인 연세솔재활의학과의원 :

031-339-2111, 혜택 별도문의

● 용인연세프라임병원

혜택 KLPGA 회원 및 가족 비급여 10% 할인

① 척추, 관절 ② 통증치료(체외충격파,

도수치료, 주사치료) ③ 내과, 검진센터

문의 1588-7542

홈페이지 www.primehospital.co.kr

담당자 임창현 과장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5

● 서울베스트검진센터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특별 혜택 제공

① 종합검진 우대 할인 제공

② 여성 암 특화 검진 제공

③ 독감예방 접종 할인 제공

④ 3차 의료기관 전자 차트 진료 연계

대표문의 02-2135-1357

홈페이지 www.sbestmc.com

주소 서울시 중구 다산로46길 17, 2층

● 서울메디케어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혜택 제공 ① 종합검진 : 300,000원

② 정밀검진 : 500,000원

대표문의 박강민 과장(02-709-6783)

홈페이지 www.seoulmedicare.com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6(공덕동475)

● 국립암센터

혜택 KLPGA 회원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전용 검진 패키지 이용(정상가

대비 10% 할인)

※ 대장내시경 시행 시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 용종의 크기와 관계없이

당일 대장용종시술이 가능

※ 국가암(공단) 검진 대상자의 경우 KLPGA

검진과 병행 가능(종목되는 항목 제외하여

감면 효과 있음)

대표문의 031-920-1212

홈페이지 www.ncc.re.kr

● 한신메디피아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할인 제공

① 종합검진 300,000원

② 정밀 종합검진 500,000원

③ 암 발병 의심 시 PET-CT 무료 촬영

④ 입원치료 필요 시 본원 협력병원으로

우선 조치

⑤ 건강검진 후 정기적인 관리 제공

대표문의 한지훈 과장(1588-1541)

홈페이지 www.medikind.com

주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94

한신공영빌딩 2층, 3층

● 참좋은 그레이스병원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할인 제공

① 종합검진 프로그램 약 60% 할인

② 하이푸(HIFU) 시술 10% 할인

대표문의 031-901-4000

(담당자 : 허길행 부장)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073

● 메디스캔 의원

혜택 KLPGA 회원(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

추가 검사, 예방접종 패키지 20~30% 할인

대표문의 064-801-5100,

010-4800-0120(유예진)

홈페이지 www.mediscan.co.kr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

에이플러스에셋타워 20층

● 서울아산병원

혜택 KLPGA 회원 및 직계가족 대상

우대 제휴 프로그램 제공

– 건강검진 후 유소견 시

외래 진료 예약 지원

– 건강검진 고객을 위한 특성화된

맞춤형 외래진료

– 스포츠건강의학센터 연계 지원

대표문의 02-3010-5000

홈페이지 health.amc.seoul.kr

● 세브란스 헬스 체크업

혜택 KLPGA 회원(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

대상 세브란스체크업 검진비 30% 할인

(선택검사 포함)

– 신속한 상담 및 예약을 위한

전담 직원 배치

– 추가 진료 필요 시 우선진료(Fast Track)

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연계 진료 제공

– 희망 고객에 한하여 검진 후

영상기록 무료 제공(CD)

대표문의 1588-7757

주소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남대문로5가

84-11) 연세세브란스빌딩 4, 5층

● 명지내과

혜택 KLPGA 회원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혜택 제공

① 비급여 검사 및 검진 50% 할인

② 골프특화 치료비용(체외충격파,

도수치료,

주사치료 등 50% 할인)

대표문의 김영진 실장(010-5360-6850)

주소 부산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29

성광타워 3~4층

● 차병원&차움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KLPGA 회원 제휴프로그램 우대 할인가

제공

대표문의 02-3015-5500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42(차움)

■ 트레이닝센터

● 닥터골프

혜택 ① SFMA(선택적 움직임 평가),

CSM(등속성 근기능 검사),

TP1 골프기능검사: 월 1회 무료

② 분석장비(TRACKMAN, V1 pro, SAM PUTT,

K-VEST, Fligt Scope) : 월 1회 무료

③ 라운지, 스파, 스크린 연습, 세미나:

월 1회 무료

※KLPGA 공식대회 참가선수는 준비

기간부터 대회종료까지 무제한 이용

대표문의 051-710-8006

홈페이지 https://drift24-golf.com/

주소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29

● 닥터핏24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① 피트니스클럽(비회원제) 50%할인

② SFMA(선택적 움직임 평가), CSM(등속성

근기능 검사) – 월 1회 무료

③ GX(Group Exercise

브랜드 제외)
대표문의 1688-3000
홈페이지 kr.lottedfs.com

● **보보리스 네트워크**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헤어, 메이크업 할인(회원 40%, 회원 가족 30%, 회원 지인 30%) ※ 메이크업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미 지정 시에 한하여 할인혜택 가능 (지정할 경우 할인 불가)
대표문의 02-549-3030
주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1-23 보보리스

● **썬모리엔**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회원 할인가 제공
모리엔 헤어샴푸, 헤어토닉 제품 35% 할인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567-48
대표문의 051-929-6916 / 051-9733-9733
홈페이지 www.ks1004.kr

● **엘씨씨바이오**
혜택 KLPGA 회원 제품 구매 시 전제품 정가의 25% 할인
대표문의 02-464-3377
홈페이지 mcbio.co.kr
주소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2길 6

● **몬도델비노**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와인 제품 최대 30% 할인 혜택 제공
홈페이지 www.mondodelvino.co.kr
대표문의 1566-4494 / 010-5500-0876
주소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74-10, 417호(자곡동)

● **백제홍삼 주식회사 삼대인**
혜택 KLPGA 회원 및 직계가족 대상 삼대인 홍삼 전 제품 할인 (달임 제품 제외)
홈페이지 온라인 구매 30% 할인 전화 주문, 오프라인 구매 25% 할인
※이벤트 할인으로 추후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산정회계법인**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제반 회계 및 세무 서비스 수수료 20% 할인
대표문의 010-3230-9676 / shkim@sjcpa.co.kr
홈페이지 https://www.sjcpa.co.kr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02 에임하이타워 6층

● **헤츠**
혜택 KLPGA 회원 대상 프리미엄 웨딩 40% 할인 / 회원 및 가족, 지인 대상 헤어,메이크업 사술 할인 (회원 50%, 가족 40%, 지인 30%)
대표문의 010-4626-3473(송진주 원장)
홈페이지 jinjoolo@hanmail.net
위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88 한나빌딩5층 HETZ

● **와이드모바일**
혜택 ① 전 국가 15%, 도시락 USIM ESIM 5% 할인
② 보조배터리 무료제공
대표문의 1566-9070
홈페이지 www.wifidosirak.com

● **키자니아**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키자니아 서울 입장권 30~40% 할인혜택 제공
대표문의 1544-5110
홈페이지 www.kidzania.co.kr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

● **YJ케어라이프**
혜택 유벨라 반신욕기 45% 할인
대표문의 010-4089-8454(김경기 담당자)
주소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3층

● **비율**
혜택 KLPGA 회원 대상 이용요금 50% 할인, 회원 가족 대상 이용요금 30% 할인 제공
※ 가장추가 별도 계산
대표문의 010-9971-9141(명상 원장)
홈페이지 beall-beauty.com
주소 강남구 도산대로78길 6

● **세계골프역사박물관**
혜택 KLPGA 회원 당사자 및 동반 1인 관람료 무료 (관람료 5,000원)
※ 일요일, 국정공휴일 휴관
대표문의 02-2192-3005
홈페이지 www.superiori.com

● **도넛킹**
혜택 본점 방문 시 오리지널 클레이즈+아메리카노 세트 증정
대표문의 010-7443-1282(박은수 프로)
주소 제주시 구남로6길 25

● **케어바이미**
혜택 ① 골프케어 연 1회 무료
- 3D 피부 정밀 분석 후 개인의 피부상태에 맞는 케어 진행

② 관리 등록하시는 분들께 첫 방문 시 30% 할인
③ 프로그램 이용 시 10% 할인 제공 (물광테라피, 콜라겐테라피, 비타민테라피)
대표문의 010-7666-7697(김지은 실장)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6 현익빌딩 15층

● **제주 파시픽랜드**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및 회원가족 대상
- 상크릴라 요트(60분) 40%(성인) 할인
- 비비제트보트(15분) 40% 할인
- 잠수제트 20% 할인
- 마린스테이지공연 30%(성인) 인
- 엘마리노뷔페 10% 할인
※ 성인 기준 할인율이며, 자세한 내용은 문의 전화 확인
대표문의 1544-2988
홈페이지 www.pacificland.co.kr

● **강남심리치료센터**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회원 할인가 제공
- 심리치료적 골프멘탈 클리닉 20%~30% 할인
- 심리 워크숍/심리 캠프 프로그램 참여 20% 할인
대표문의 이조이 프로 (010-7206-9155 / 031-657-0975)
홈페이지 www.mindtutoring.com
주소 ① 서울본점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06, 광명빌딩 4층 ② 평택비전점 :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22번길 40, 배다리정원 4층

● **시너텍(EMP 애플)**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혜택 제공
- EMP 신제품 출시 올인원 멀티밤/썬세럼/트러블세럼 출시 기념 프로모션
※ 멀티밤 소비자가 : 59,000원
※ 썬세럼 소비자가 : 39,000원
※ 트러블세럼 소비자가 : 79,000원
※ 메디힐 광채크림 사은품 증정 (소비자가 28,000원 상당)
-세트가격 소비자가 : 177,000원 → 50% 할인/88,000원 진행
※ 구매감사 고객 명의 1만원 기부 진행
대표문의 010-5419-9709(김현정 이사)
홈페이지 www.bmc.beauty
주소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353, 414호 JK루체스타

● **골스튜디오**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온라인 스토어 할인

① 골스튜디오 공식 온라인 스토어 GRAB-ITY BALANCE 제품군 30% 할인(의류 제품 제외)
② 대상 제품 : GRAB-ITY BALANCE™ PRO, BASIC, FLIPFLOP / 이상 3개
③ 구입 한도 : 3개 제품 합산 연간 1,200,000원 내
※ 해당 혜택은 온라인 스토어에서만 적용 가능하며, 오프라인 매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문의 skaut410@wagti.com / 010-2963-3619
홈페이지 https://goalstudio.com

● **LG라이프케어**
혜택 LG계열사(LG전자, LG생활건강, LG아트센터 등) 제품 및 생필품, 건강, 여행, 스포츠, 문화 등 라이프 콘텐츠 제공 및 할인

● **윤자선멘탈클리닉**
혜택 원데이 골프멘탈코칭 10% 할인 / 골프멘탈 기본 및 심화 코칭 20% 할인
대표문의 010-4251-4241

빈

칸

을

QUIZ EVENT

채

워

라

〈KLPGA 멤버스〉겨울호에 실린 선수 인터뷰를 읽고 아래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맞춰주세요!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선수의 사인볼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제

김민별은 이번 우승의 비결로 ‘○○’를 꼽았다.

※힌트 : 6페이지

이벤트 기간

1월 24일(금) ~ 2월 7일(금)

이벤트 참여 방법

① KLPGA 인스타그램 팔로우 ②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댓글 달기

당첨자 발표 및 당첨자

2월 12일(수) / 4명(개별 안내)



instagram.com/klpgatour



Mercedes-Maybach EQS SUV

HS효성 더클래스에서 메르세데스-마이바흐의
수준 높은 럭셔리를 경험해보세요.

MAYBACH



메르세데스-마이바흐 공식 딜러 HS효성 더클래스